

The Doctrine of the Church

# 교회에 관한 교리

# The Doctrine of the Church

By James W. Knox

Korean Translated and published by Permission

© 2011 by King 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 교회에 관한 교리

지은이	James W. Knox
옮긴이	이우진
펴낸이	김영균

재판발행	2014. 4. 12
발행처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1999. 6. 18. 제17-292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7층
전화	0505-856-1997
홈페이지	<a href="http://www.ilovekjib.com">www.ilovekjib.com</a>
표지그림	이장용 jy13b@naver.com
표지디자인 · 편집	최애경 choilove72@hotmail.com

ISBN 978-89-89741-38-1

정가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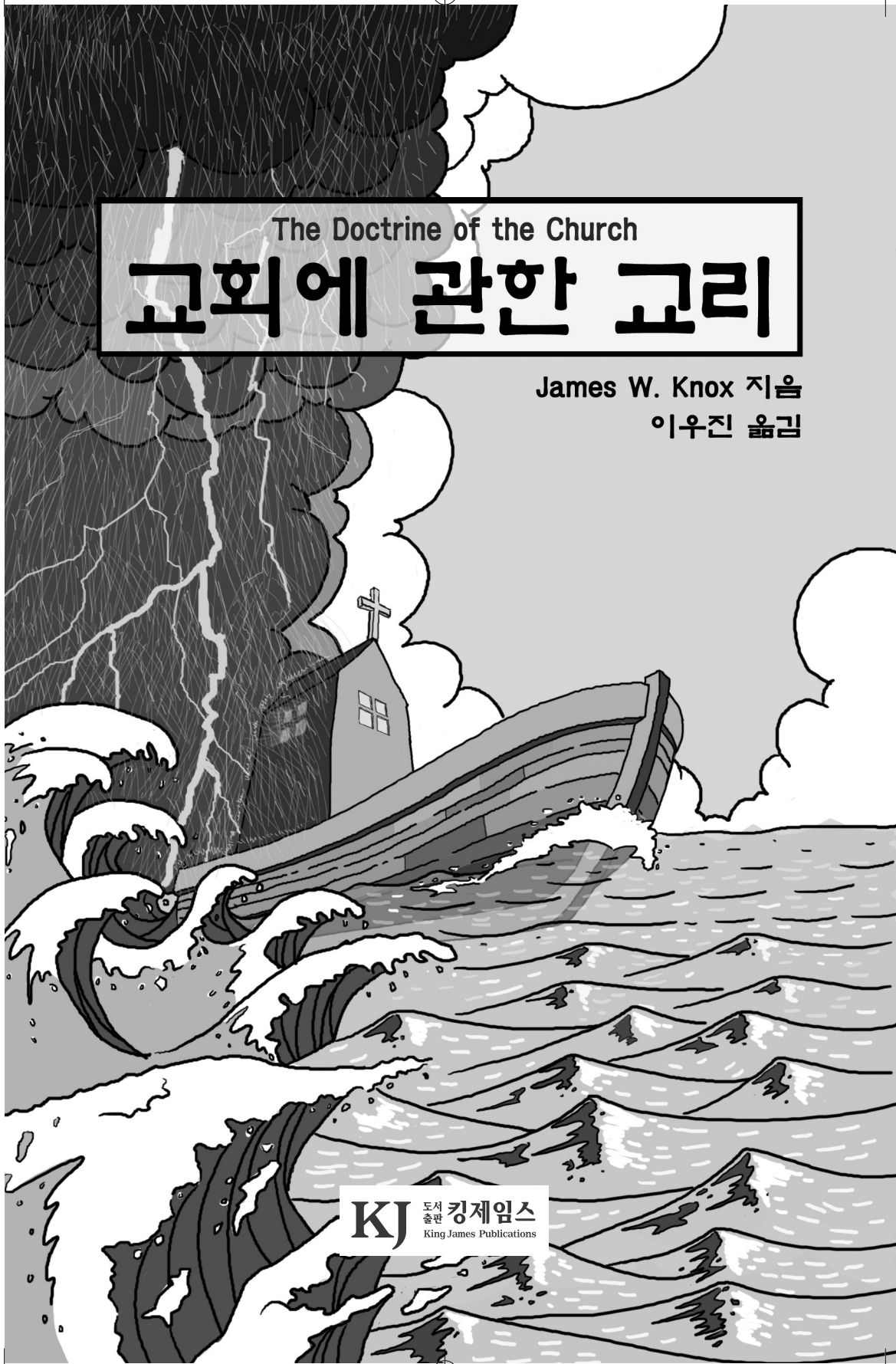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The Doctrine of the Church

#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지음

이우진 옮김



KJ

도서  
출판  
King James Publications

킹제임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한영대역(2008)”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역자 서문 \_6

## 목차

제1장 교회란 무엇인가	_10
제2장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_32
제3장 교회의 기원	_51
제4장 교회의 연합	_75
제5장 교회의 모형	_92
제6장 교회의 머리	_117
제7장 교회의 세가지 정의	_135
제8장 교회의 목적1: 가르침	_150
제9장 교회의 목적2: 경배	_168
제10장 교회의 목적3: 기도 모임	_183
제11장 영적인 선물1	_199
제12장 영적인 선물2	_216
제13장 영적인 선물3	_237
제14장 목사와 감독과 집사	_252
제15장 교회와 징계	_270
제16장 교회와 헌금	_288
제17장 교회와 찬양	_304
제18장 교회와 간증	_317
제19장 교회와 세상1: 전도	_332
제20장 교회와 세상2: 선교	_351
제21장 교회와 구제	_372
제22장 교회 내의 이단	_387
제23장 세 부류의 사람	_407



## 역자 서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전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이고 각 지역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역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실행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의 일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행 11:25-26).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교리를 위해서입니다(딤후 3:16-17).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엡 4:14-15).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은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요 4:23).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경배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거짓 종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물(은사)을 주셔서 함께 교회로

모여 서로를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로 모여 주님을 섬기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의 목적, 교회의 머리, 영적인 선물, 헌금, 찬양, 간증, 전도, 선교, 구제, 징계 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성경적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전통적인 침례교회의 교리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침례교회에서는 교회의 기원을 침례인 요한으로 보지만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많은 그룹에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교적 건전한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자는 좀 더 성경적으로 이 주제에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2장으로 보지 않고 요한복음 20장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마 28:20). 또 믿는 사람들이 위로자이신 성령님 없이 지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 14:16-18). 만일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한 것이라면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7일 이상은 위로자 없이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따라서 교회는 그때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침례교회의 입장과 저자의 견해가 다른 또 하나의 부분은 목사 와 감독에 대한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을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직접적으로 이들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는 주님께 선물로 받는 것인 반면(엡 4:11), 감독은 자격을 갖추어 그 직분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딤후 3장, 딤후 1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목사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기는 하지만 감독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일 목사와 감독을 서로 다른 것으로 나눈다면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지역교회를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어떤 특정한 교리를 독자에게 강요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론(아직 성경적 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론일 것입니다)”을 성경과 비교하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알던 것과 다른 주장이라고 해서 가르치거나 책으로 출판할 수 없다면 수많은 성경의 진리들은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자신의 생각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연구함으로 더욱 탄탄한 성경적 교리의 기초를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고 지역교회들도 바로 서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역자도 이 책을 번역하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오류를 바로 잡고 새로운 시각으로 교회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교재로 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간증을 여러 번 듣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천천히 읽어보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미국 플로리다 주의 딜랜드 시에서 THE BIBLE Baptist Church



와 부속 신학원에서 목회와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는 James W. Knox 형제가 2009년에 강의한 *The Doctrine of the Church*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의 끝에는 역자의 요약을 덧붙였습니다. 책이 아닌 강의라는 특성 때문에 듣기와 옮기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용 전체를 번역하지 못한 장(chapter)도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번역이지만, 원래 강의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손상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어색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역자의 실력이 부족한 탓이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 바랍니다.

이 책은 진리침례교회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번역한 것입니다. 2011년 봄부터 가을까지 이 책을 교재로 하여 “교회론”이라는 주제로 주일 오전 시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강의는 [www.ilovekjb.com](http://www.ilovekjb.com)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독자 개인과 지역교회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게 큰 유익을 주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저자와 역자와 독자를 한 몸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11년 10월

역자 이우진



## 제1장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성경적 교리와 실행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5:25).

만일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건물을 위해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건물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벽돌이나 나무나 철근이나 콘크리트나 합판이나 내장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혼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구원받은 혼들이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공부해 볼 것입니다.

클라렌스 라킨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에 의해 조직되고 지원을 받는다. 교회는 인간의 육신적인 성품을 만족시켜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한 곳이 아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인간의 육신을 개선시키는 곳이 아니다. 인간의 육신을 개선시키거나 구원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은 단 한번도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다. 세상을 개혁하고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할 일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하려면 누구의 것인지부터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몸입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 기록할

때마다 교회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분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몸에 생명을 공급해준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에 대해 공부하면서 건물이나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 공부하면서 강조해야 할 것은 그 구성원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중요한 진리를 간과하게 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으로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위에 영광을 돌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주님이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엡 1:3-6)

우리는 오늘 이 구절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모두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 중 어느 것도 물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적인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물질적인 복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3절에서 “**영적인 복**”이라고 하시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또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님의 자녀로 입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건물과 인간의 조직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핵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구속(redeem)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들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영적인 복들로 충만해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좋은 차를 타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고 인기를 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은 영적인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으며 물질적인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

**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7-12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인해 구원받고 죄를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매우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친절이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자비가 충만하신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양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다고 해서 사람을 높이고 찬양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자신의 목사를 자랑하거나 회원들을 자랑하거나 자신들의 사역을 자랑하거나 건물이나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겉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서 텅 비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쓸모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13-14절)**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진리를 믿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제가 영광 중에 상속 받을 때까지 저를 인치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몸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연 누가 찬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

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분이십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회원들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주님이십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단 한가지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즉, 존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서 헌금을 걷고 계속해서 장소를 유지하는 게 많은 교회들의 존재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단순히 멋진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나 설교자나 성경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시키고 붙들어 주는 것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해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15-18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은행잔고가 가득 차게 해 주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만사형통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곳에서 상속받을 것을 기대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 목사들은 열심히 믿으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고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만사형통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교회에 게 그러한 것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거짓 목사들은 사람들의 그런 속성을 이용해서 마치 부자가 되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인 양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19-2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습니다. 어떠한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도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인간 지도자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에게 영광을 돌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고 누군가를 찬양하고 싶거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거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주님

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지도자나 배우나 가수나 운동선수를 자랑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하거나 영향력을 자랑하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은 일시적인 것들과 유한한 인간을 자랑하라고 하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자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나 정치인이나 운동 선수에 대해서는 능숙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나 배우나 운동선수나 정치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22-23절)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습니다. 교황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집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회중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단 총회장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십니다.

손이 자신을 머리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무릎이 자신을 머리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 머리가 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아닌 단체에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교



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여러분은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단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날 모여서 모임을 갖는 모임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건물에서 모이는 모임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단체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저의 몸도 아니고 여러분의 몸도 아닌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규칙을 만드시고 교리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므로 몸인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디에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정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형상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충만이 채운 것을 드러내 주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인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밝히 드러내어 보여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몸인 교회도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어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어떠한 분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1:14).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죄인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 7:26).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요 8:29).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노닥거리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제 사업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교 모임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역 사회에 참여하여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거룩한 삶을 사셨고 복음을 전하셨으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진리를 전파하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학교 선생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을 교육하거나 개혁하거나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외의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교회의 본분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 외의 다른 일은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나 단체가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과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

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엡 5:22-24)

불행하게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내들은 자신이 왜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는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께 복종할 수 없는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오늘날 교회는 아내들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만일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에베소서 5장을 인용하면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아내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교회도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25-26절)

다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게 하시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계속해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런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점”은 많은 죄가 아닌 하나의 작은 죄일 것입니다. “주름”은 크게 구겨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작은 죄입니다. 옷 중에는 “링클 프리” 섬유로 된 옷들이 있습니다. 구겨지지 않는 소재로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름진 것이나 흠이 없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옷이나 육체에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점과 흠과 주름으로 가득한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이나 옷이나 집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만 영적인 삶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성공하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것에는 관심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위선자가 아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위선자나 세상을 더럽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교회로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에 교회에 실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타협해 버렸습니다.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었고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진리에 대해 증언하지 못하게 되자 세상과 타협해 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구원자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정결하게 하는 피로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주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 교회를 사신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며 주님께 속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28-29절)

사람은 자신의 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해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자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을 해치는 것은 마귀이며 마귀에게 지배당한 사람이 자해를 합니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양육하고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30-31절)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4:26에서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자기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셨으며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32-33절)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창 1:26-28)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존귀하고 높은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창 2:7-9, 15-18)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나서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

시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보시니 그가 혼자 있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으셨던 겁니다.

모든 동물들은 적당한 짝이 있었지만 아담에게는 적당한 짝이 없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살아 있는 모든 창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를 찾지 못하였더라.”(19-20절)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21-24절)

첫 사람인 아담은 죄도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자신을 위한 조력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화장대 앞에 앉아 있거나 잡지를 보게 하기 위해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도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어 남자를 사랑하게 하셨고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의 생명을 취해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여자의 생명은 남자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나눈 교제는 깨지지 않는 완벽한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불리는 새 예루살렘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의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신부를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력자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선물로 받았지만 동시에 주님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행복한 동반자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시고 거기서 생명을 취하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셨습니다. 아담이 본 이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었습니다. 이브는 완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진 것도 없고 죄도 없는 존재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합니까?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은 이브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그 후에도 이브와 함께 살면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웠습니다. 이브가 죄를 지은 후에도 아담과의 관계가 끝나거나 그들의 연합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제 안에 계십니다. 저는 성령님으로 인쳐졌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살 중의 살이고 뼈 중에 뼈입니다. 저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은 저의 머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핏값으로 신부를 구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특별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아내는 집이나 지키고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고용주가 되고 아내가 피고용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돈이나 재산이나 재물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은 친밀한 관계와 교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4-7)

자신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신 목적은 사람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선물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제어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시다. 그것이 바로 선물의 목적입니다.

제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다면 저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낸다면 저는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쓴뿌리를 갖고 있다면 저는 어떤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을 세상이 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게 목적입니다.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니라.”(고전 12:12-14, 27-28)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몇 사람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

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교회 안으로 들어 온 게 아닙니다.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은 여러분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 들어가고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교회로 넣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가 침례에 의해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이 주는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받는 침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침례입니다(13절).

27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침례교회나 카톨릭이나 교황이나 개신교나 감리교에 속한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계 2:1) 에베소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버가모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18절) 두아디라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데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3:1) 사데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7절) 필라델피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14절)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앞의 여섯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앞의 여섯

교회는 모두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예베소에 있는 주님의 교회이고, 버가모에 있는 주님의 교회이며, 사데와 두아디라와 필라델피아에 있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네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15-17절)

**“나는 부자라”**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던 교회였습니다.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이 교회는 물질적인 재산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 교회는 부흥도 회개도 진리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도 신실함도 복음증거도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던 교회였습니다.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네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18절) 저는 앞서 창세기 2장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절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더라.”** 아담의 신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나서 의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 교회를 보시고 의복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와 교회들이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열

마나 대단한지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듣기 싫어하는 성경의 진리들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19-20절)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앉아 만찬을 먹고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문을 열어 주님을 환영하기 원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신부이며 주님의 몸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합니다. 말로만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위선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성령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부유하고 재산이 많고 웅장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온유와 절제와 선함과 믿음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의를 성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부담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인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보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가 제 각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는 것은 고통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인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 요약

1.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고 몸입니다.
2.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엡 1장).
3.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4.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머리로 두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엡 5장).
5.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6.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7.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도와서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시어 남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창1,2장).
8. 교회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9. 자신의 신부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자신의 피 값으로 신부를 구속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바라셨을까요?
10.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고전 12장).
11.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우리 스스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우리를 교회로 넣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 제2장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는 오늘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13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이것은 매우 쉬운 질문입니다. 마치 “2더하기 2는 4인데 둘에 둘을 더하면 몇이 되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질문에는 답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인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답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의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14-18절)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선언한 것입니다. 17절에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이 선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아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도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선언한 “예수 그



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바로 그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건축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건축자 이십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기초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석이십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로 소유자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교회를 세우셨으나 베드로 위에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날 수십억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진리를 믿지 않으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기초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교회와 주님의 관계는 바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나 사역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도 아니고 회중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인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교단에 속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저는 교황이나 사제나 목사나 랍비에게 속하기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는 분의 것이고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주목해 볼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교회의 건축자도 예

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물론 우리 중에는 영적인 망치를 들고 주님을 돕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삽을 들고 주님을 돕습니다. 영적인 벽돌과 내장재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는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돕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건축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없으면 아무리 돕는 자가 많아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 누구도 교회에 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교회로부터 빼 버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교회를 제 마음대로 건축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옥의 문이라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가장 작은 지체 하나라도 떼어낼 수 없고 반대로 주님의 몸 안으로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몸에 누군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마귀도 할 수 없고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로 인해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때문에 교회에 회의적인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빼내거나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한 자극이 되고 좋은 동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주님께 나아가는 데 제가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는 없고 여러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건축자는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건물의 크기를 늘리는 데에만 몰두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를 세웠는지 자랑합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을 어느 교회에 회원으로 넣어줄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인간도 누군가를 회원으로 넣거나 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교회의 건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소유하시고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권리로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행 20:28)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든 상관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최종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흘린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진 것은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죄가 없는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만일 그 곳에서 흘린 것이 인간의 피였다면 여러분은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젖값이 치러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흘린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자신의 교회를 사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왜 단지 거짓 교리일 뿐만 아

니라 신성모독적인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여러분의 행위를 더하는 것은 주님의 대속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이마에 물을 뿌리거나 사람을 물 속에 집어 넣거나 아니면 무엇인가를 고백하게 하거나 강단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한 그 무엇을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외한 어떠한 것이라도 구원의 요소로 넣는 것은 주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했다면 주님의 대속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주님의 대속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말입니다.

지상에 있는 어떠한 단체나 교회에 가입한다고 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이 털끝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다른 무엇을 더하려는 시도는 모두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주님의 희생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피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회를 위해 치르신 것처럼 엄청난 대가를 치를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엡 5:25)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것이 가능했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일 다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의 혼을 위한 값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값을 치러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행 따위로는 결코 혼을 위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혼의 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을 위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밖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혼을 값을 최고로 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혼의 값을 치러야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치르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아무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간의 혼을 위해 전 우주에서 가장 큰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18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

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은과 금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로 들고 있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금과 은)이 하나님께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마 16:26) 여러분의 혼은 하늘나라의 시장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혼을 위한 값을 치르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값으로 주셨고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18에서 말씀하시는 **“헛된 행실”**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이 종교에는 훌륭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수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전통은 사람의 값을 치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의 면전으로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하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가서 자신들의 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대속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어디에도 죄의 값을 치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제물도 인간의 혼을 위한 진정한 값을 치러줄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어떤 언약이나 경륜도 인간의 혼의 값을 치러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나사르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던 것은 아직 혼을 위한 죄의 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을 위한 값이 치러지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땅 밑에 있는 낙원에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해 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도 의로운 것으로 여기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혼을 위한 값이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는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혼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혼을 구속할 수 있는 것, 혼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경우도 나올 게 없습니다. 기독교 이전에 이방인이 소유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제물로 드리거나 돌이나 나무나 짐승을 섬기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이방 신들을 위한 날을 만들어 섬기는 게 다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러기를 바랄 뿐입니다.

니다. 그러나 혼을 위한 정당한 값을 치르기 전에는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일을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선행이 주님의 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나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종교행위도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 12:12-13)

한 성령에 의해 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 온 것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초월한 것이고 이방인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통해,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수술을 통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와 성령님의 영적 수술이 여러분을 그분의 교회의 회원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침례교회의 전통을 더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해악을 가져옵니다. 침례교회든 천주교회든 어떤 시스템을 통해 유익을 얻는 사람은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회원이 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지매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일으키셨으니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 수 없었기 때문이라.”(행 2:22-24) 베드로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에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30-33절)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찢려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

들로 증언하며 격려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니라.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36-41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증언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어디에 더해졌다는 말일까요? 지역교회에 더해졌다는 말일까요? 47절을 보면 어디에 더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47절)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더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더해졌습니다. 누가 사람들을 교회에 더했습니까? 주님께서 더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교회에 넣어주심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들을 교회에 넣어주셨습니까? 성령 침례의 방법으로 교회에 넣어주셨습니다. 언제 그들은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헛된 전통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종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인해 혼을 위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교회에 더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은 영적이기보다는 인본주의적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와 교단과 이름과 회원제도 등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스스로가 육신적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자만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의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사랑 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러한 것이 교회의 이름입니다. 왜 자신들의 교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신들의 교회의 역사를 강조하고 자신들이 나온 학교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38-39절)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38을 들어 믿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침례(혹은 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때까지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분명하게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 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한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보고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성경이 침례에 대해 말씀하시는 모든 구절들을 종합해 보고 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 한 구절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문맥을 살펴보고 참조구절을 찾으십시오.

요한복음 7:38-39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있을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나면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침례는 성령 침례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것이지 물침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물침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요 16:7)**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모두 교회를 세우는 데 특정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 값을 치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변영하리이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사 53:10-11)**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의 육체 위에 온 세상의 죄를 두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고통을 아들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에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시거나 후회하시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담당하실 때,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될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헌물로 삼으실 때”** 즉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 힘들어 죽겠네” 하고 불평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신부가 되고 자신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쁨가운데 사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대속으로 탄생하게 될 교회를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유익을 위해 모든 고통을 참은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 같은 고통과 고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신 보상과 같은 보상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참으셨고 교회, 즉 여러분과 저를 얻으셨습니다.

영화는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 주님께서 고통 중에 얼굴을 찡그리셨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얻게 될 신부인 교회를 생각하시

며 미소를 짓고 계셨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주님의 이러한 태도가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았을까요? 백부장도 이러한 주님을 보고 강한 인상을 받은 게 아닐까요?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마귀는 낙담하지 않았을까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참으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리이다.”**(욥 2:4) 이것이 마귀의 행동을 지배했던 그의 모토였습니다. 마귀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도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나 구원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마 27:40)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 놓은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에는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대속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혼을 위한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낙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저를 생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즐거운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즐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로부

터 침뱀음을 당하신 걸 즐기시거나 폭행 당하신 것을 즐기신 게 아닙니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즐기신 게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얻게 될 교회를 생각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을까요?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을 무엇인가를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돈을 버느라 당한 고통보다 더 귀중한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게 번 돈을 무엇인가를 위해 사용합니다. “얼마인가요?” “2만원입니다.” “비싸네요. 사지 않겠습니다.” “얼마인가요?” “4백 만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왜 4백 만원을 지불하였나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불하였을 겁니다. 왜 내일 아침에도 일어나서 직장에 나가 일해야 합니까? 그렇게 매일 일하면 받게 되는 월급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 직장으로 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은 십자가에 달림으로 얻게 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얻게 될 것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셨기에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정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혼의 가치를 매우 높게 계산하시고 그 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영원을 바라보시고 순간을 참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시 22:1) 시편 22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고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30-31절)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진노를 온 몸으로 받았지만 영원을 바라보니 수 천만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자녀들이고 사랑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생각하시고 모든 고통을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계속 전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22:31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옳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손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옳았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침례교인이나 감리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개신교인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만들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사람들을 초대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진노를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교회는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른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 요약

1.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한 신앙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마 16:13-18).
2.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의 건축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의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4. 오직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누군가를 교회에 더할 수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5.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행 20:28).
6.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 교리일 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적인 말입니다. 구원에 인간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필요했다면 주님의 대속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7. 교회는 전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8.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엡 5:25).
9. 여러분의 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마 16:26). 이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의 혼을 위한 값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값을 치러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벧전 1:18-19).
10. 사도행전 2:22-47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더해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11.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을 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요 8:37-39).
12.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사 53:10-11, 히 12:2, 시 22편 참고)

13.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교회는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른 바 되었습니  
다.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  
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 제3장 교회의 기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정의와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즉 교회의 기원에 대해 성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회와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교회가 아담과 함께 시작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도 일종의 교회였으며 지금의 교회가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계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믿는 자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자신들의 교리를 지지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은 침례교 형제들이 교회의 시작을 침례인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침례인(baptist, 침례교인)”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침례교회의 시작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문제는 침례인 요한은 거듭난 사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인 요한을 교회의 기초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침례교회의 기초가 요한이라는 것은 자칫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께도 침례를 주었는데 그러면 요한이 세운 교회에 예수님께서 회원으로 들어가신 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침례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라면 요한이 예수님을 교회로 넣어준 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벌린저(E. W. Bullinger)와 그의 추종자들 같은 일부 침례교인들은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바울이 언제 구원받았

고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았으며 언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그만두었는지에 대해 자기들끼리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단순하듯이 교회의 기원도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오류와는 다르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다면 교회의 기원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항상 그러하듯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것을 믿고 전파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경적 진리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은 모든 교단과 영향력 있는 단체와 기독교의 주류 그룹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뛰어난을 주장하기 위해 들고나오는 교리를 성경이 증거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단체만 옳다고 주장하는 어떤 특정한 단체를 위해 성경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전 10:32) 이 구절은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많은 교리들이 이 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그들의 육신적인 자손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자손인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만 제외하고 모두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새로운 출생, 두 번째 출생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이방인들을 실족시키지도 말고 교회도 실족시키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약교회가 실행할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매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행 15:13-17)

본문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주님께서 한 백성을 불러 모아 교회라고 하신 후에는 다시 다윗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다루실 것이고 또 다른 백성들인 이방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성경이 명백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오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회가 유대인들을 계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또 다른 오류는 이방인들을 교회와 혼합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그리스도인이고 버락 오바마도 그리스도인이며 존 F. 케네디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 놓으신 일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기독교와 친숙한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이슬람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고 힌두교 신자도 아니기에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인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2)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갓난 아기가 젖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사모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와 성경교사와 주일학교 교사들과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염려하고 교회에 잘 나오도록 도와줄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갓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아기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젖을 먹으려 하지 않는 아기는 매우 크게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크게 잘못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으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매우 아픈 것이며 큰 영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3-4절)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을 거부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5절) 성경은 교회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질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 희생물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성경 기록에도,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들어 있느니라.”(6절)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율법을 지키는 문제나 안식일이나 다른 명절을 지키는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7절) 침례인 요한은 머릿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결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되 순종하지 아니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 그리되었나니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

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8-9절)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백성”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regenerated) 새로운 세대(generation)가 된 것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10절)

지나간 때에 유대인들은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은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백성이었습니까? 그들도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때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민족도 아니었고 백성도 아니었고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 과거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들은 새로운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영적인 사람들이며 교회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성경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무시하는 개혁주의 신학이나 개신교



신학은 성경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거짓 교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계승했다고 가르치는 교황추종자들의 거짓 교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버전업”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며 기독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하늘나라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개신교나 천주교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지미 카터나 빌 클린턴이나 조지 부시나 바바라 부시가 교회에 다닌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시고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들을 들으라.”(겔 37:1-4)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질문하실 때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답은 “주께서 아시나이다.”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너희를 살갓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이에 내가 명령 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더라.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며 그것들 위에 살갓이 덮였으나 그것들 속에 숨은 없더라.”(5-8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만드셨습니다. 뼈 위에 힘줄과 살을 덮으며 몸을 만드셨습니다. 골짜기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만드신 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들 가운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들은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숨아, 네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 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그 때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 나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9-11절)

몸이 형성되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시자 생명이 없던 몸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생명을 받게 되는 모습입니다. 대환란때 이스라엘은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일순간에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몸은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를 돌았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일부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생명이 없는 몸일 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좀비(zombie)”와 같습니다. 걸어 다니기는 하지만 생명은 없고 살아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장과 39장에서는 아마게돈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하기 전,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창 2:7a) 아담은 점도 없고 흙도 없고 죄도 없고 죄악된 본성도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습니다. 아담의 몸은 온전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수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숨이 들어가기 전에는 생명이 없는 몸일 뿐이었습니다. 완벽한 발을 가졌지만 걷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손을 가졌지만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눈을 가졌지만 무엇도 볼 수 없었고 온전한 혀를 가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몸이었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창 2:7b)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 있었지만 생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자 살아 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민족적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민족적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만드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살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

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등의 12제자이며, 70명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자신의 몸을 이룰 교회를 모으신 것입니다. 다락방에는 120명의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오백여 형제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어떠한 위로 없이, 주님 없이 거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저는 저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가 가르치는 모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의해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똑같이 생각하고 모든 것에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여전히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는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자신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

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때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께서서는 올리브산 위에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다락방에 있던 믿는 자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모든 형제들은 교회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서 탄생했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믿는 자들은 7일 동안 위로자 없이 지낸 것이 됩니다.<sup>1</sup>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신 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승천으로부터 오순절까지 사이의 7일간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신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승천과 성령을 받는 것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그 사이에 믿는 자들은 위로 없이 지내게 되고 주님의 약속은 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처음 받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4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엡 5:18)는 말씀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이미 받아서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러한 제 입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sup>1</sup> “7일 동안 위로자 없이 지낸 것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7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삼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나야 합니다. 유월절 다음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날이 초실절입니다. 사도행전 1:3에서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은 것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7일 동안 주님 없이 지낸 게 됩니다. -역주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요 20:19) 제자들은 지금 모여있습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지금 그 장소 안에는 믿는 자들이 모여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예, 그들은 주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자기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주를 보고 반가워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20-22절)

사복음서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는 삼 년 반 동안 몸 된 교회를 모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방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즉 생명의 숨을 사람들에게 내쉬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 민족으로서의 유대인이 생명을 받게 되는 모습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참된 생명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이 아닌 요한복음 20장일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찾으면 바로 요한복음 20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거듭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침례인 요한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기초를 거둬나지 못한 사람 위에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은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왕국을 전파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교인 같은 부류의 “좋은 사람”이었지만 신약적인 의미에서 거둬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훌륭한 랍비였는지는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둬나지 않은 사람이 신약교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일어나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모인 사람들은 나중에 성령님을 받게 될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고 성령님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닙니다. 침례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참된 생명인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도 성령님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요한복음 20장에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탄생이 어디였는지 그 지점을 꼽는다면 요한복음 20장을 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마 28:20), 그들이 위로 없이 홀로 있게 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며 위로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생명을 얻는 것과 동일한 방법, 즉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통해 교회도 참된

생명을 받게 되었다고 믿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sup>2</sup>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23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며 사람들의 죄가 용서 받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누가 교회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는 베드로나 야고보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것은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에는 분명하게 복수형인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성경에서 단수인 “thee”와 복수인 “you”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원어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며 독자들이 성경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성경들은 이러한 구분 없이 2인칭 단복수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you”라고 함으로 이해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새로운 성경이 킹제임스성경 보다 이해하기 쉽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킹제임스성경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20:19-23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을 모두 복수인 “너희(you)”와 “그들(them)”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의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교회의 회원이고 예수

<sup>2</sup> 주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이미 신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성령님을 주셨다는 저자의 주장이 마태복음 28:20이나 요한복음 14:16-18의 주님의 약속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역주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며 복음을 알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셨나요?”라고 물으니 “그게 무슨 말이죠?”라고 대답한다면 일단 상대방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라고 하니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한다면 의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니 “잘 모르지만 그러길 바래요.”라고 한다면 의심은 확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인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니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집에 모인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23은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정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대방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확한 성경적 용어를 모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선행 때문에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는 모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지에 대해 제가 믿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에게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망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잘못된 교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를 망치는 첫째 부류는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령하지 않으면 교회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sup>3</sup>

교회를 망치는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킹제임스성경 유일주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킹제임스성경을 믿고 가르치는 훌륭한 목사와 성경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모두 100% 다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정죄를 합니다. 이들은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킹제임스성경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쫓아내고 갈라지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옳은 것을 주장할 때도 있지만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 믿는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는 쪼개집니다.

교회를 망치는 셋째 부류는 벌린저와 스템과 같은 극단적 세대주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향상된 계사를 알고 있고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무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간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

<sup>3</sup> 칼빈주의의 핵심인 예정론은 이중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예정이란 구원받을 사람도 모두 정해져 있고 지옥에 갈 사람도 모두 정해져 있다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무엇을 하건, 무엇을 믿건 상관없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교리가 아닌 이교 철학에서 나온 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자의 “칼빈주의 비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역주

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려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과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엡 3:1-5)

5절에서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라고 하신 부분을 보면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외에 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 받은 계시를 기록하는 임무를 맡았을 뿐이지 그 계시를 받은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관한 계시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그분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6-11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믿는 자들을 택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연합한 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모형과 상징과 비유를 통해 구약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계시되거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신약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회를 계시해 주셨고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스코필드(C. I. Scofield)와 라킨(Clarence Larkin)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었지만 세대를 구분하는 것으로 인해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를 나눔으로 인해 마치 새로운 세대가 열렸고 모든 게 바뀐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경륜(dispense, 세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경륜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셨고 명령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은혜와 교회에 관한 신비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사도들과 대언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인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을 받았습니다. 즉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교회에 관한 신비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사도 바울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제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알지 못하니까 제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제 주머니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제 주머니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한 신비를 계시해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있는 것이 신비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롬 16: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누군가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시작하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인 벌린저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들은 교회가 두 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오순절에 탄생한 유대인 교회와 사도 바울과 함께 탄생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사도 바울이 속해있던 교회는 바울이 속하기 전에 누군가 먼저 속해있던 교회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전 15:3-4절) 이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이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전한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오백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의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나는 사도들 중

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못하되”(고전 15:5-9)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은 것을 핍박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었다면 교회는 사도행전 28장이나 15장이나 12장이나 8장에서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려면 적어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가 이미 존재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존재해 있던 교회에 관한 신비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가 교회에 관한 신비를 드러내기 전에도 이미 교회는 존재했으며 신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녀들의 어미인 신비의 바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계시되며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 신비의 바빌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했으며 지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종교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바빌론에 대한 신비가 대환란의 중간에 완전히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신비의 바빌론이 대환란의 중간에 드러났다고 해서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때가 되어 계시해 주실 뿐입니다.

다른 예를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갈 1:11-14)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핍박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

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빌린저는 옥중서신 4권만이 신약 교회의 교리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것은 명백한 오류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였고…”**(빌 3:6) 여기서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 주더라.”**(행 8:3) 여기서도 분명히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말하는 교회를 9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행 9:1) 8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는데 9장에서는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건물을 철거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강대상을 부수고 계시판을 박살내고 의자를 부수고 지붕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9장에서는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때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셨습니까? 사도행전 9:5를 보겠습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매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행 9:4-5)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시어 왜 자신을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말한 자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셨지만 믿는 자들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는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기 이전에도 존재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신비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을 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고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 이전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또 다른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회원으로 들어가게 된 교회는 이전에 그가 핍박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몸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는 교회가 시작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했습니다.



## 요약

1. 교회가 아담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주장이나 이스라엘을 계승했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2. 교회가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거나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했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3.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셨습니다(고전 10:32, 행 15:13-17).
4. 유대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신적인 혈통을 따른 자손들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5. 교회는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새롭게 백성이 된 민족입니다(벧전 2:1-10). 베드로가 서신을 기록하기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6.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면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생명을 받게 됩니다(겔 37:1-11). 에스겔서 37장의 본문은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7.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시므로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창 2:7).
8.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28:20). 또 믿는 자들이 위로자이신 성령님 없이 지내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요 14:16-18).
9. 만일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한 것이라면 믿는 자들은 적어도 7일 이상은 위로자 없이 지낸 것이 됩니다.
10.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행 2장, 엡 5:18).
1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요 20:19-22).

12. 어떤 특정한 교리를 내세우면서 그것을 믿지 않으면 정죄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짓입니다.
13. 교회의 신비에 대한 계시를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엡 3:1-11).
14. 경륜(세대)라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15.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는 존재했습니다(롬 16:7, 고전 15:5-9, 갈 1:11-14, 빌 3:6, 행 8:3, 행 9:1-5).
16.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는 교회를 박해한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한 것입니다.
17.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됐습니다.



## 제4장 교회의 연합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번 과의 주제는 교회의 연합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다른 많은 주제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상태와 일시적인 상태 두 가지 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깨지지 않는 형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깨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법적 지위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상태는 함께 섬기고 연합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믿는 자들이 연합을 이루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죄에 종노릇하고 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우리의 위치이고 후자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전자는 우리의 영원한 위치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우리의 일시적인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육신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언젠가 나의 몸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영원한 지위이며 상태이고 몸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일시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질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 주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 나아가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4:1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간히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겹

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화평의 때는 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 4:1-3) 이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4-6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진심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단순히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매주 “피 없는 제사”<sup>4</sup>를 드려야 한다고 믿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합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과 물침례나 유아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믿는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연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리버티침례교회, 믿음침례교회, 템플침례교회, 그리고 은혜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강조하는 게 약간씩 다르고 사역의 방향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전파하기에 이들 중 누구도 저의 원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들 중 누구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들은

---

<sup>4</sup> “피 없는 제사”는 천주교의 미사를 의미합니다.-역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인한 대속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 대해 비방하는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불신자들에게 하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이 다니던 교회를 옮기고 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에 다니던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은 복음 전파를 막는 일입니다.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은 다르지만 모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 비방하는 것이나 다른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쪼개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은 마귀가 하도록 내버려 두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일을 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성도들을 세워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워주

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경찰관이 법을 어기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속이는 가게 주인을 보고 싶은 고객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2절에서는 “**겸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다른 형제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겸손 다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온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유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아에 지배당한 사람은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서로 참아 주며**” 우리는 서로 참아 주어야 합니다. 저 때문에 여러분이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으로 인해 저도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과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도는 서로 다른 행동을 나오게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의도와 동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이나 교회의 이익이나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만일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움을 받고 다른 지체들이 세움을 받게 하는 게 여러분의 동기라면 여러분의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사나

사업가나 가정 주부나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동일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직업은 다 다를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고 주님과 다른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연합의 핵심 사항은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것은 같은 종류의 찬송가를 사용해서도 아니고 같은 음식을 먹어서도 아니며 같은 건물 안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면에 있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와 모든 면에 있어서 같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4-6절에 나온 것은 같아야 합니다.

모든 개인과 교회와 교단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합의 기준대신 자신들이 정한 연합의 기준을 내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기준을 내세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한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빵이나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천주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침례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신들의 모임만이 유일한 무엇인가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임만이 유일하게 바른 모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면 자신들의 모임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것

입니다.

성경은 “**한 몸과 한 성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선물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연합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따로 있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 따로 있다면 결코 서로 하나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하다면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섬기는 게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선물이 다를지 몰라도 모두 같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가 교제의 기초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연합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환란을 잘 통과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끝까지 잘 견디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이 정권을 잡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며 우리가 그분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할 수 없을 겁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 이외의 다른 모든 소망은 교회의 연합의 장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 위에 우리가 함께 모이고 교제를 나누며 일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한 분 이신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각 교회의 머리이시며 각 가정의 머리이시며 각 개인의 머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투고 있으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있어도 서로 화합하고 연합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와 다투고 있는 사람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 않고 저와 다투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와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찾아보고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불화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 교회 내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서 서로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얼굴도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이 주님이고 자신의 의견이 주님이고 자신의 생각이 주님이기 때문에 다른 구원받은 사람과 화해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하게 다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자신과 의견이 다른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경을 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서로 다투는 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한 분의 주님과 “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습니다. 저는 단순히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그 누구도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를 여러 번 받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뒤로 눕히는 방식으로 침례를 주고 어떤 교회에서는 앞으로 눕히는 방식으로 침례를 줍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이렇게 세 번의 침례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를 줍니다. 침례가 죽음과 묻힘과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세례는 성도들이 흠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각 교회마다 침례를 주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침례의 방식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침

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물침례에 대한 관점이나 물침례를 주는 방식은 교제와 연합의 기초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침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침례이며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기초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면, 또 성령님을 통해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어느 지역 교회에 속했느냐의 문제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 교회에 속했느냐가 교제의 기초가 아닙니다.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교제를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 나온 6개가 바로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한 분 주님을 믿고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다면 성경적 의미의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한 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듬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엡 2:14-18)

이 구절이 기록될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방

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미워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미국인이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양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그러한 인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출생에 기초한 교제만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생에 기초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백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영적이고 경건한 흑인과 교제를 나누기 보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백인과의 교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첫째 출생으로 인한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둘째 출생으로 인한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유산과는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영적 유산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냐 스구디아인이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골 3:10-11)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요 17:20-21)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연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비방하고 욕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 12:13)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이며 동일하게 받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런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롬 8:20-25)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이

가 일류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도서 2:13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복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사람과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나름대로 “복된” 소망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한 소망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한 분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겸손한 마음은 교제의 좋은 기초가 됩니다. 동일한 한 분 주님을 시인한다면 교제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믿음입니다.

과거에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에게 매를 든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매를 드는 것은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들도 아이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고 훈계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현대의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거짓된 교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연합을 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류를 바로잡고 거짓 교리를 바로 잡는 것은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베드로가 오류를 범했을 때 바울이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형제로서 서로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책망했고 베드로도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입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오류를 바로잡음으로 연합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알아야 될 사실은 부모가 책망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멋대로 인생을 망치는 걸 두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도 성도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엡 4:4-6) 이것은 지역교

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정한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은 제한이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몰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더 많은 헌금을 내도록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기 싫은데 억지로 헌금을 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할 만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 3:26-28)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연합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있고 항공기 조종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면 이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의 집안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전 1:12-16)

목회를 하다 보면 이상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책임을 목사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



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에 대한 불만으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이는 목적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모입니다. 목사의 설교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지 않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한다면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침례와 한 분 주님과 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서로 동의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수백만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게 많을 지라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침례와 한 분 주님과 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에 대해 동의한다면 우리는 교제를 나눌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느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그들은 왔다가 가버리고 있는 듯하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 요약

1.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깨지지 않는 형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2. 에베소서 4:1-3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4-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 그리스도인은 다른 그리스도인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5. 많은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겸손과 온유의 부족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6.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7.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닌 자신들이 정한 교제를 기준을 내세우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8.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9. 성경은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 5절에서는 한 분이신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11. 왜 교회 내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2. 성경은 한 분의 주님과 “**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성경은 “**한 침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침례를 주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동일하게 성령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14. 에베소서 4장 4절과 5절에 나온 6개가 바로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한 몸 안에서 한 성령을 가지고 있고 한 분 주님을 믿고 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면 누구라 할지라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15. 우리는 새로운 출생에 기초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골 3:10-11).
16. 그리스도인은 한 몸 안에 있습니다(요 17:20-21).
17. 고린도전서 12:13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받은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18.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롬 8:20-25)
19. 한 분 주님(빌 2:9-11), 한 믿음(엡 2:8-9)
20. 에베소서 4:4-6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21.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어떠한 제약이 없습니다(갈 3:26-28).
22. 우리가 서로 동의하지 않는 게 많을지라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몸과 한 성령과 한 침례와 한 분 주님과 한 믿음과 한 분 하나님에 대해 동의한다면 우리는 교제를 나눌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3.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됩니다.



## 제5장 교회의 모형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정의”,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의 기원” 그리고 “교회의 연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세 가지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형들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형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형 그 자체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 드린 것처럼 성경은 미국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21세기 북미대륙에 살고 있는 백인들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미국인들만을 위한 것인 양 읽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현대 미국인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건물을 교회의 모형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국의 건축가와 2천년 전 소아시아의 건축가가 건물에 대한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은 성경이 정의하는 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현대인의 감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현대인의 감각으로 잘못 해석하는 전형적인 경우가 예언

을 해석할 때 주로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헬리콥터나 탱크나 핵폭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 않음이 자명합니다. 5백 년 전에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말은 말이고 활은 활이고 창은 창이고 화살은 화살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이 있는 칼이 나온다면 문자 그대로 그런 것이지 주님께서 바추카포를 들고 재림하시는 게 아닙니다. 50년 전에는 바추카포가 최선의 무기였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구식 무기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게틀링건이라 해도 언젠가는 구식 무기가 됩니다. 성경이 칼이라고 말씀하시면 과거에도 칼을 의미했고 지금도 칼을 의미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뜯어 고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 할 때마다 현대의 과학기술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현대의 과학기술도 시간이 지나면 옛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교회의 모형은 바로 건물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이 구절은 몇 가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구절은 교회가 시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바로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부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진리를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진리입니다. 물침례를 받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지역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둘째, 이 구절은 교회의 건축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 교회의 영적 설계자가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몸 안으로 넣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2천년 동안 믿는 자들을 몸 안으로 넣어주시고 하나의 건물로 딱 들어맞게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벧전 2:4-5)

**“그분께 나아와”** 우리는 어떤 교리나 건물 앞으로 나아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습니다.

**“살아 있는 돌들로서”**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는 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살아 있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돌은 돌인데 살아 있는 돌입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건물 안에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건물은 교회 건물

이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어떤 건물을 이루고 있고 그 건물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시작이 있고 초석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 초석에 기초하고 있고 그 초석을 중심으로 있습니다. 이 건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돌들은 건물 전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씩 적절한 장소에 놓여졌습니다. 이 건물을 이루는 모든 돌들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위해 건물의 미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모두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적절한 곳에 놓였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모형인 실제 건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건물의 재료인 시멘트와 벽돌은 누군가를 찬양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철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건물을 이룬다는 점에서 실제 건물과 유사하지만 살아있다는 점에서는 다릅니다.

저는 10년이 넘게 우리 교회 건물에 출입했지만 단 한 번도 건물이 건축자를 찬양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도 이 건물이 목수에게 감사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어느 부분도 자신을 만든 자를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 있는 돌들로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넣어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건물로서 건축자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건물을 이루고 있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건물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모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전초나 짚을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3:9-16)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건물을 세우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른 믿는 자들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건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도 건축자가 그저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지은 게 없습니다. 건물의 모든 공사는 착공부터 완공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미리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지혜로운 주건축자는 건물을 세우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계획대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감독합니다. 어떠한 일꾼도 계획을 어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건물의 주건축자로서 자신의 마음대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계획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건물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세우는데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누구나 원한다면 이 건물을 세우고 층을 꾸미고 방을 꾸미고 장식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건물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건물의 설계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설계도를 따라서 건축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 설계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도를



무시하고 건축을 하면 현명한 건축자가 아닙니다. 계획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하면 결국 건물 전체의 조화를 깨고 부실공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설계도 대로 공사를 하기보다는 그저 크게 짓고 빨리 짓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을 빨리 짓고 크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짓는 것입니다.

건물을 설계도대로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언젠가 허리케인이 불어올 수도 있고 토네이도나 강한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도를 따라 지어야 합니다. 설계도에 대해 불평하거나 설계도를 고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맡은 일을 수행하면 됩니다. 설계도에 대해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그것을 하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 출애굽기의 마지막 10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 부분을 읽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듯이 읽지는 않을 겁니다. 출애굽기의 뒷부분에는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을 지겨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안쪽에 있는 부분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그러한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설계를 직접 그리신 분께는 상관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부분을 보면 누군가는 고리를 만들고 누군가는 휘장을 만들고 누군가는 기둥을 만듭니다. 아무도 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질문하지 않고 설계도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고 각자 자신의 일을 마치고 성막이 완성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그곳을 채웠습니다. 설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데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설계도를 비평하기 보다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걸 즐기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회가 완성되고 나면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곳의 건설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잡일을 했는데 주로 작업이 끝난 후에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그저 쓰레기와 남은 자재를 치우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지극히 단순한 일이었지만 저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저에게 맡긴 일을 하였고 결국 샅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데이토나 비치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택을 건설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름다운 주택을 건설하는 일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영원이 시작된 후 어느 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놀랄 때 저는 그들에게 제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비록 제가 작은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행 2:47)

교회에 사람들을 넣어준 게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하거나 교회에 넣어 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엡 2:19-22)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의 모형일 뿐입니다. 교회와 건물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건물인 교회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실제적인 건물에 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남침례교단이나 독립침례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사님이 대표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집에 모였습니다.”라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에만 주님의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제 밤에도 주님의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잠에서 일어났을 때에도 저는 여전히 주님의 집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거리에 있을 때에도 저는 주님의 집 안에 있고 차에 탔을 때도 주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건물 밖으로 나가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로 모아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게 하시어 하나의 영적인 건물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면 교회는 마치 지진이 나서 건물에 금이 간 것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  
 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한 지역에 하나만 있는 지역 교회를 의미하지 않  
 습니다. 마치 한 지역에 단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면 성경은 엉망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지역에 단 하나의 교회만 그리  
 스도인의 몸이라면 이사를 가게 되면 다른 지역 교회로 옮겨 가게 되는데 그  
 령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가 나와서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  
 가는 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 지역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건물은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전체가 그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의 건  
 물로 짜 맞춰졌습니다. 한 번 이 건물 안에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습니  
 다. 다니던 지역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이 건물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건물인 교회는 지역 교회와는 관련  
 이 없습니다. 지역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어느 지역 교회를 다니건 상관  
 없이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요 건물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모형으로 건물을 제시하십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의 모형  
 으로 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엡  
 4:4)**

고린도전서 12장도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전 12:12)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면서 마치 우리의 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하나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의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의 몸이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각 도시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도시에 있건, 어느 교회에 다니건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13-14절) 성경이 교회의 모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나 한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다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여러분은 하나인 것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

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으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15-24절)

여러분의 몸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대로 각자 고유한 위치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눈과 하나의 코와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를 가진 아기를 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복음 증거나 기도나 성경공부나 심방이나 구령이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나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모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만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지체가 서로 다른 일을 해야 하고 모두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하나의 지체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체 몸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하나의 지체가 온전해질 때까지 전체 몸은 다른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에 샘을 내거나 다른 지체보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지체를 무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

게 하려 하심이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25-27절) 다른 지체에 샘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체 몸을 생각한다면 다른 지체를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40~50년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교회에 데리고 나갔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나왔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주일 학교 교사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었고 설교자가 마음에 찔림을 주고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그날 아침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전날 오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전도지를 전해주고 복음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기도회 모임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눠주는 전도지를 사람들이 받고 읽어보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을 그 사람이 듣고 복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누군가 그를 교회에 초대했고 그가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대해주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 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모를지 모르지만 단 한 사람의 사역

으로 누군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누군가를 구령했다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그저 거둬들이는 일만 한 것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자신이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할 때 그 리스도의 전체 몸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움직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기 때문입니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다 른 그리스도인을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그리 스도인은 몸의 다른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모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모든 일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여러 분이 하는 일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다른 지 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시키신 일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같은 일을 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일이 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한다면 모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 니다.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 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엡 4:15-16)

만일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다 른 지체를 위해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급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원활한 교제



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사이가 나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섬겨야 하고 저는 여러분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물로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섬기고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몸의 기능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는 심장, 간, 콩팥, 신장, 대장, 소장 등과 같은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서로 결합되어 있으면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서로 다르게 생겼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한 몸에 연결되어 있으면서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신경계 하나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영원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정의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셋째 모형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셋째 모형은 바로 신부(bridge)입니다. 신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근에 결혼한 여자
- (2) 결혼하기로 정해진 여자
- (3) 결혼하기 직전의 여자
- (4) 결혼한 직후의 여자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서 신부라는 단어를 볼 때 그것은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거나 약혼한 여자를 의미하거나 결혼하기 바로 직전의 여자를 의미하거나 결혼한 바로 직후의 여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 다 성경은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bride”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웨일즈 지방에서 유래한 말인데 “적절하게 들어맞는”이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an help meet)”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딱 들어맞는다는 의미입니다. 신부는 단순히 신랑에게 맞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결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적절하게 결혼을 해야 합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단순히 아내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적절한 아내를 얻어야 합니다. 자매님들, 여러분은 단순히 남편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남편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적절한 배우자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준을 이것보다 낮춰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여자가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적절한 짝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남자가 그리스도인 자매들의 적절한 짝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짝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적절한 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배우자를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제 신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랑의 정의도 신부의 정의와 유사합니다. 신랑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최근에 결혼한 남자
- (2) 결혼하기로 정해진 남자
- (3) 결혼하기 직전의 남자
- (4) 결혼한 직후의 남자

아내의 정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정의는 “합법적으로 남자와 혼인 관계를 맺는 여자”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모두 해당됩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과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되는 것들은 모두 관계에 대한 것들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18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뱀 것이 드러나매” 마리아는 요셉의 신부였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으며 신부였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고후 11:1-2)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정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요셉은 마리아가 처녀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법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정혼한 관계를 파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라는 놀라운 소식을 하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버리지 않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며 인류 역사상 전 우주에서 단 한 번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마리아의 상태를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나옵니다.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배어 배가 불렀더라.”(눅 2:1-5)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가 되도록 정혼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정혼한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법적인 부부는 아니지만 다른 어느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속했음을 의미합니다. 요셉도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없고 오직 마리아만을 아내로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엡 5:22-25, 28, 31-32)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마 1:20)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정결한 여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따라서 아내로 취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실제

로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아내를 대하듯이 그녀를 보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혼인하시기 전인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아내로 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고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전 우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9편과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것들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하나 그것들의 줄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가고 그것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분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들 안에 장막을 세우셨으므로 해는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려는 힘센 자 같이 기뻐하는도다.”(시 19:1-5)

신랑은 신부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자기 침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일 합법적으로 결혼하기 전에 침소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게 됩니다. 신랑이 자기 침소에서 나오는 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재림 이전에 들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게 됩니다. 어린양의 혼인식은 재림 직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상이 아닌 하늘에서 재림 전에 열리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더라.”(계 19:1-3)

마귀가 이 세상에서 사악한 여인을 신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는 순결한 여인을 신부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사악한 여인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사악한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 됩니까? 사악한 도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묘사됩니까? 거룩한 도시로 묘사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와 대칭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음녀와 대칭이 됩니다. 신비의 바빌론이 땅의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인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바빌론은 타락한 도시이고 교회는 거룩한 도시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며 그 자체로 도시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스물네 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동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4-7절)

7절을 보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이며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마리아를 요셉의 아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결혼하기 이전의 신부를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8-9절)

성경은 정혼한 신부를 아직 결혼하기 전임에도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도 왕비로 간택되고 나서 1년 동안 정결해지기 위한 기간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한 사람씩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에 알맞게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양의 혼인식이 열리게 되었을 때 모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공중에서 어린양의 혼인식이 있고 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재림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혼인잔치는 천년 동안 지속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이것에 대해 무엇이 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늘왕국에서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는데 그 중에는 잔치에 들어오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어린양의 혼인식에서는 아무도 지옥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양의 혼인식은 공중에서 재림 전에 열리지만 혼인잔치는 재림 후에 이 땅에서 열리게 됩니다. 어린양의 혼인식에는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혼인잔치에는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는 지상에서 천년 동안 이뤄집니다.

마태복음 25장도 보겠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찾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마 25:1) 여기서는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혼인하기 위해” 신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신랑을 만나러(to meet)” 나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랑은 어딘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것은 시편 19편에 의하면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것을 혼인식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 중의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신랑이 더디 오므로 그들이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 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2-6절)

신랑은 혼인식을 끝내고 신부와 함께 지상으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전 세계는 대환란이 끝난 직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 일부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일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준비가 되어 있던 말건 상관없이 대환란 전에 들림 받아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7-13절) 주님께서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과 25장과 계시록의 대부분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왕



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말씀이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계 21:1-2) 신부가 단장하는 이유는 신랑을 위해서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3절)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물이고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도시가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 도시는 어린양의 피로 씻음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심판석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 아십니까?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 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말 3:17)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석을 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보석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도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야,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겔 28:12) 본문에서 말씀하

시는 대상은 예수님이거나 아담이거나 이브이거나 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아담과 이브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13절) 사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걸어 다니는 장식 그 자체였습니다.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높아졌으며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17절) 사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 보석 그 자체였고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마귀는 주님의 보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창조한 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름다운 보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8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 의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는 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 위에 있는 에봇의 정교한 허리띠는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에봇과 같은 것으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 실로 만들지니라. 너는 줄마노 두 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다른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띠들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위한 기념 보석이 되게 하되 아론이 주 앞에서 자기의 두 어깨에 그들의 이름들을 매어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출 28:8-12)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보석으로 삼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분께서 거대한 도시 전체를 보석으로 만드실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우신 분이라면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믿고 믿음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건물과 몸과 신부를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요약

1. 모형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2.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교회의 모형은 바로 건물입니다(마 16:18, 벰전 2:4-5).
3. 성경은 믿는 자들이 어떤 건물을 이루고 있고 그 건물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살아있는 건물을 이루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모두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고 또 서로 간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고전 3:9-16).

5.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의 모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 거하십니다.
6. 성경은 교회의 모형으로 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엡 4:4, 고전 12:12).
7. 우리 몸의 지체가 모두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도 모두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시기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8. 성경은 교회의 모형으로 신부( bride)를 제시합니다(고후 11:1-2).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9. 어린양의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서로 같은 게 아닙니다(시 19:1-5, 계 19:1-3).
10.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고 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으로 재림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11.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말 3:17, 겔 28:8-12).
12. 성경은 건물과 몸과 신부를 교회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제6장 교회의 머리

우리는 교회의 정의,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교회의 기원, 교회의 연합 그리고 교회의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머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sup>5</sup>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을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셨으며 또 그때에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시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19-23)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살펴볼수록 더욱 분명해 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 있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 14:33,40).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sup>1</sup> 이 장은 제임스 닉스 형제가 강의한 게 아니라 부목사인 데이빗 브라운(David A. Brown) 형제가 강의한 것입니다.-역주

선택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남자에게 가족을 인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비단 성경에서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위를 둘러봐도 모든 가정과 사회와 정부와 군대와 학교와 회사와 그 밖에 모든 기관은 인도하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를 거부하면 혼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것을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동등하게 태어났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한 주장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보일지라도 똑같은 환경에서 동등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권위에 순종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왜 법을 지켜야 하냐고 묻습니다. 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까? 누가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들 위에 권위를 행사할 권세를 준 것입니까? 로마서 13장에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롬 13:1)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정에서도 머리가 되도록 남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1:3에서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못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1:3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의 질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질서 있는 단체로 만드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아이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인도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인도할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보살피는 것과 동시에 통치하고 지도하는 것도 주님의 임무입니다.

잠언 29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오른편에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들이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잠 29:2) 우리는 기뻐할 만한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그 분이 바로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흠이 없으시며 죄인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죄를 모르는 분이시며 그 안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완벽한 분이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며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권세를 잡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우신 분께서 권세를 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했고 3천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절름발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 사두개인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심문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 날 심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 4:8-12)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셨으나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의 모형으로서의 건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건물로서의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고 머릿돌과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교회라는 전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돌들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여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엡 4:15-16)

저는 의학지식은 없지만 뇌가 머리에 있다는 사실은 압니다. 머리에 있는 뇌는 신경을 통해 온 몸을 제어합니다. 몸의 지체는 신경을 통해 뇌로부터 전달되는 명령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머리로서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주님의 지체인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몸의 지체가 머리로부터 오는 명령을 거부하면 그 지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소홀히 하거나 말씀에 무지하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됨은 자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엡 5:23,25,29,31)**

우리는 가정의 머리로서 남자의 책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남자의 책임은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남자가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보호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 가운데 교회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게 이것이 있으니 곧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계 2:6)** 버가모 교회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계 2:15)**

**“니골라당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리코(정복하다)”와 “라오스(백성)”라는 두 단어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말로 “백성을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붙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급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러한 생각(교리)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고 특별한 계급인 성직자들 중에서도 또 계급을

나눠서 가장 높은 성직자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교회 안에 서로 다른 직분과 선물을 주셨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각 개인은 모두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중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부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집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나 추기경이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을 머리로 두고 있는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자신들만이 중요하고 자신들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성경을 교회의 지침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한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모두 각기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하는 일은 경중을 따질 수 없이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 위에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니콜라당의 교리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기서도 계시록 2장에서의 동일한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여, 랍비여,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오직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마 23:6-12)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거의 천 번 가까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7:1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은 문맥에 의해 의미가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3장도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에 대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종교적인 의미로 누군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 어느 누구도 랍비라고 부르거나 지도자라고 부르거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있는 누

군가를 “거룩한 아버지(Holy Father, 신부)”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1편에서는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자리를 탐내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위대하므로 그것들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그것들을 탐구하는도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니 그분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도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교도들의 유산을 주시려고 자신이 행한 일들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셨도다.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진실과 공의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은 확실하니 그것들은 영원무궁토록 굳게 서며 진실함과 곧바름 속에서 이루어졌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시 111:1-9)

9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holy and reverend is his name).”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지존하시다(reverend)”라는 단어는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음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단 위에 선 인간이 이 이름을 가로채버렸습니다. 목사를 “Reverend”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적인 짓입니다.<sup>6</sup>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아가야 할 칭호를 인간이 스스로

<sup>1</sup> 영어에서는 목사를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Pastor, Minister 등이 그것인데 Reverend도 일반적으로 목사를 의미합니다. -역주

에게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설교단에 선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창조자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지존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주의 침례교 형제들은 마태복음 23장을 인용하면서 인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며 천주교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래 놓고는 시편 111편에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도독질해서 목사들에게 줘버렸습니다. “Reverend”라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질 수 있는 칭호입니다. 저는 목사를 존경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권위를 가진 자를 존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지위를 인간에게 주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마 20:25)** 이것은 정치와 경제 어느 영역에서나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러한 원리와 다른 규범을 주셨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26절)**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과 동일한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흉내 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27-28절)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서로 권위를 행사하여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 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 참으로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골 2:18-23)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규칙과 법을 교회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왜 그러한 것들에 복종하느냐?”고 묻습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에 따르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며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주님의 제자들을 지적하는 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이 가르치는 바는 저녁을 먹을 때 손을 씻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사람이 정한 규칙이며 인간들의 전통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

나눔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전통을 내세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과 동일한 일일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한 규칙들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칙을 따라야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만든 이유는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지키면 영적인 사람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정죄하려고 규칙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규칙을 지키고 전통을 고수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공급을 받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것이지 인간들이 만든 규칙을 통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서 1장과 4장과 5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2장과 마태복음 23장과 시편 111편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리만을 알기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실행해야 할 것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 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엡 5:22-24)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와 몸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신비를 밝혀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머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고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태도와 말과 찬양과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머리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많은 개신교인들과

천주교인들과 이단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는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머리가 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1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12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서로를 섬기지 않으면, 서로를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서로 다투고 비평하고 무너뜨리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한 몸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자라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이 있을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

라.”(고전 14:12,26)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26절에 나와 있는 **“할지니라(let)”**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려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 드림으로 이 일은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과 관련해서 중요한 또 다른 단어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14절).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모두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세워주는커녕 오히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은 사랑 안에서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1에서도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을 우리의 힘과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

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진리를 이해한다면 제가 한 말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 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골 1:12-18)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이유는 그분께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교제와 예배와 찬양과 사역과 모든 활동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으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섬김의 중심이고 초점이며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드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이 더욱 번창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사가 명성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옮기신 분이시고 죄에서 건지신 분이시며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 요약

1. 하나님께서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4:33,40).
2.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행하시며 권위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 사람들은 왜 권위에 순종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법을 지켜야 하냐고 묻습니다(롬 13:1).
4. 하나님께서는 가정에서도 머리가 되도록 남자를 선택하셨습니다(고전 11:3).
5.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엡 4:15-16)
6.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는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계 2:6,15).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7. 종교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마 23:6-12).
8. 시편 111:9에 나온 “**지존하시다(reverend)**”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칭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9. 골로새서 2:18-23에서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적인 규칙과 전통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10.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우리의 머리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11. 하나님께서 교회의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섬기고 세

워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엡 4:12). 서로를 세워주는 일은 단순한 제안이 아닌 명령입니다(고전 14:26).

12.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엡 4:14).

13.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골 1:12-18).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십니까?



## 제7장 교회의 세 가지 정의

우리는 앞 과를 통해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를 세 가지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전체의 모임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는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습니다. 용어 자체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The Universal Church)”라고 부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고 그 교회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른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회나 교단이나 모임에 속하지 않으면 바른 교회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 우주적인 교회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 모임을 이루는 것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역시 용어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것을 “지역 교회(The Local Church)”라고 부릅니다. 지역 교회만이 바른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주적인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우주적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지역 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비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 모두 성경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는 어떤 경우에는 “우주적인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지역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개념 모두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성경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셋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 단 하나의 교회만 바른 교회가 아닌 여러 교회 모두가 바른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단 하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전체 교회 중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대형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교회 건물도 없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이든, 정부의 단속으로 지하에 숨은 교회이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대표하는 교회가 됩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행 8:1)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자 교회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이 산산조각났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각지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흩어진 것”을 “교회가 흩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것을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모일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교회가 “지역 교회”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즉



복수의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그들을 단수로 교회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 구절에 나온 교회는 지역 교회인 동시에 우주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었다가 탈퇴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모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교회의 일부였고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로 떠나게 된 성도들을 위해 추천서를 써주지도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유대에는 회원으로 가입할 지역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옮길 때에는 목사나 운영위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만이 정상적으로 교회를 옮긴 것이고 주의 만찬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간 사람들은 그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교회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일원인 구원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 중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 봅니다. 저는 둘 다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저의 믿음이 어떤 특정한 신학교의 입장과 다를 수 있고 교파나 교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1은 하나의 교회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 교회라는 두 가지 개념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도 보겠습니다. “**독실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옮겨 장사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2-3절) 사울이 어떻게 교회를 파괴했습니까? 그는 각 개인이 사는 집집마다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나 특정한 건물에 있던 사람

들을 체포한 게 아닙니다. 그가 믿는 자들 개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믿는 자들 개인을 핍박했는데 성경은 이것을 보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하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교회란,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에 있던 사마리아에 있던 집에 숨어있던 예루살렘에 있는 한 건물 안에 모여 있던 모두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부를 뿐입니다. 특정한 지역에 모인 모임은 전체 그리스도의 몸의 작은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행 11:22) 이 구절을 봐도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건물에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모인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다고 하니라.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23-24절)

사도행전 11장을 기억하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두 개의 용어를 어떻게 상호교환적으로 사용하심으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 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행 2:47)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주셨다”고 하고 11장에서는 “주께 더해주셨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디에 더해졌습니까? 주님께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더해진 것은 곧 교회에 더해진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믿는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정한 지역에서 함께 모입니다. 이것은 가시적인 교회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 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행 9:1) 교회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사울은 주님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매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2-4절)

사울이 핍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8장에서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9장 1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9장 4절에서는 사울이 핍박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 보이지 않는 전체 교회의 일부가 보이는 형태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나 혹은 지역 교회만을 믿는 이유는 자신들의 모임만이 유일하게 참된 교회라는 주장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단체에 속해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보다 못한 곳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 어떤 대단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이면 최상의 것의

일부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회원 주소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25-26절)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의하면 교회는 가르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행 13:1-2)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유일하게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역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지역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 교회 중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만일 지역 교회만이 올바른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떠날 때 지역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것입니까? 이들은 몇 년 동안 지역 교회의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것입니까? 이들은 수년에 걸쳐서 지역 교회가 없는 곳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따라서 지역 교회 모임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년 동안 “지역 교회의 목사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화를 해서 선교 보고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달 편지로 기도제목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고 배에서 시간을 보냈고 무인도에서 시간을 보냈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반드시 지역 교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교회 규약에 서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수년 동안 지역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목사의 권위 아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역 교회를 떠나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모임을 떠난 적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신들의 교회에만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의 이면에는 언제나 금전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 직장 문제로 잠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다니게 되면 “정식으로” 교회를 옮기기 전에는 주일학교 봉사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정식으로” 옮기지 않고 교회에 다니면서 봉사를 하거나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반역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는 교회를 “정식으로” 옮기지 않고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역에 참여를 해도 문제 삼지 않으면서 “일반” 회원의 경우는 문제를 삼는 게 정당한 일일까요? 이것은 위선적이며 이중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왜 교회를 “정식으로” 옮기는 문제에 민감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일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정식으로” 옮기지 않은 사람은 십일조를 자신이 속해 있는 본 교회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가 오

더라도 정식으로 자신들의 교회에 회원이 되게끔 해야 그 사람의 십일조를 다른 교회에 뺏기지 않고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항상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러한 것을 찾을 수 없다면, 그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는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 회원이 되기 전에는 찬양대나 주일학교나 설교단에서 절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도 외부에서 설교자를 초청해서 성경강연회나 부흥회를 합니다. 회원이 되기 전에는 설교단에 결코 설 수 없다고 하지만 회원도 아닌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설교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조에 철저히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할 뿐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교회 규칙이나 신조를 진리라고 믿는다면 부흥회의 강사로 초청한 목사도 자신들의 교회 회원이 되게 하고 나서 설교단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행 20:17) 에베소에는 믿는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로마서 16장도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중 우리의 자매 뵈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롬 16:1) 이 구절을 통해 두 가지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겐그레아라는 특정한 지역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과 현대의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교회의 중”이라는 표현을 “교회의 목사(minister of the church)”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서들 중에는 뵈베가 여자 목사였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개된 성서를 가지고는 왜 여자 목사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할 길이 없는 셈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겐그레아에 교회가 있었고 또 다른 교회가 누군가의 집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에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지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마에 있던 두 개의 지역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유일하고 참된” 지역 교회였을까요? 한 지역에는 하나의 교회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편지를 하면서 두 개의 지역 교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나니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지방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것들로 고난을 받았느니라.”**(살전 2:14)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따로 모이는 것을 성경은 복수 형태인 **“교회들”**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들 교회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참된 교회입니다. 한 지역에 다수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모두 참된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한 지역에 여러 개가 있다면 그 지역에는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야

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역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거듭나도 침례를 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만일 교회의 회원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게 물침례를 통해 가능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물침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나 있지만 그들이 아무리 침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전 16:1) 갈라디아에는 하나 이상의 교회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참된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여러 지역 교회들이 각자 모임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9절도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이 구절에는 적어도 3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회는 여러 개 있지만 그 지역 교회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 지역 교회 중에 하나만이 바른 교회가 아니라 모두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31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교회의 회원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의 목사는 회원들을 통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를 통제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시 “회원의 권한” 같은



것을 미끼로 성도들을 통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역 교회  
의 목사에 의해 통제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고전 1:2).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여  
러 형제들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먼 지역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패  
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  
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 12:12-13)

바울은 소아시아에 있던 자신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한 몸의 지  
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먼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 함  
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각자 그리스  
도의 몸의 일부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만난 적조차 없다  
할지라도 한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  
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  
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  
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  
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엡 4:12-16)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도 못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를 떠난 지 오래 되었고 언제 다시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먼 지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자신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모여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지역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란 보이지 않는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의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지역에 믿는 자들의 모임이 두 개 있다면 어느 것이 참된 교회입니까? 둘 다 참된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된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만일 지역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미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한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이 지역 교회의 회원이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성도들은 더 이상 지역 교회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지역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없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십일조를 내야만 지역 교회 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지역 교회

의 회원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십일조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지역 교회의 회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도 되지 못한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교회에 출석하는 문제나 십일조를 내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문제와는 완전히 별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 교회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 지역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의 권위 아래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히 12:22-23)**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평생 속해있던 바로 그 교회의 일원입니다. 다만 그가 속한 지역 교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지상에 있는 지역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서 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플로리다의 달랜드나 영국의 런던이나 미네소타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모이게 됩니다. 죽었다고 해서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교회는 영원히 교회이며 영원히 모임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모이는 장소가 지상에 있는 지역의 교회가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바뀔 뿐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에서는 **“처음 난 자들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누구나 그 교회의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어느 지역 교회에 다니든지 상관없이 모두 같은 몸 안에 속해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참되고 유일한 단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이 모두 참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모두 같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잘못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지역 교회라고 부르는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또 다른 일부인 믿는 자들과 함께 모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지역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요약

1.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적인 교회(The Universal Church)”라고 부릅니다.
2. 성경은 믿는 자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 모임을 이루는 것도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지역 교회(The Local Church)”라고 부릅니다.

3. 성경은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4. 성경은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1에 나온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인 동시에 “지역 교회”였습니다.
5. 성경에 의하면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인 것입니다.
6. 성경은 교회에 더해지는 게 주님께 더해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행 11:24, 행 2:47).
7.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믿는 자들’ 이고(행 9:1) ‘그리스도의 몸’ 입니다(행 9:2-4).
8. 만일 지역 교회만이 올바른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라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떠날 때 그리스도의 몸을 떠난 것이 됩니다.
9. 한 지역에 단 하나의 지역 교회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잘못된 것입니다(롬 16:1, 5, 살전 2:14).
10. 모든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따로 모이는 것을 성경은 복수 형태인 “교회들”이라고 부릅니다.
11. 서로 다른 지역 교회로 모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안에 있으며 하나의 참된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엡 4:12-16).
12. 그리스도인은 살아 있으나 죽으나 모두 동일한 교회의 일부입니다(히 12:22-23).



## 제8장 교회의 목적1: 가르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모였을 때 해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입니다. 셋째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이 세 가지 일은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먼저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교리가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기도는 엉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이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행 2:41-42) 믿는 자들은 성경을 배웠으며 함께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한 일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나온 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교리, Doctrine)”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지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행 6:1)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불평을 감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

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2-4절)

지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면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많은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위에 복을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르침과 삶과 사역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중심이 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숙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고 모든 시스템이 자신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거에서도 사회 전체가 아닌 자신들만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은 국가 전체야 어떻게 되었든 당장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자아 중심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신자들은 목사가 자신들만을 챙겨주기 원합니다. 자신들의 불평을 해소해주고 자신들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그들에게 휘말리면 결국 교회는 밤낮 불평만 해 대는 거대한 아기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요구에 대해 목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한 것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사적인 요구까지 다 해결해 주는 것은 목사의 임무가 아닙니다. 목사의 임무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일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sup>7</sup> 이상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sup>7</sup> 이것은 주일 오전 설교, 오후 성경 공부, 그리고 주중에 모이는 기도회 성경 공부를 말하는 것입니다.-역주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나온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누군가가 자신들이 교회에서 더 큰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 과부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배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섬기지 않는지에 관해 불평합니다. 자신들이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에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섬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는 자들이 사도들의 교리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교회에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일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다른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목사에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에 대한 불만에 답하고 그것을 처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심리학자나 유치원 교사나 엄마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목사는 불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 불평하기 시작하면 결코 불평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서로를 섬기는 작은 교회가 불평으로 가득 찬 대형 교회보다 주님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원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 성경공부, 오전 예배, 오후 성경공부, 목요 기도회, 그리고 신학원과 각종 모임을 통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임에는 제대로 참석하지 않으면서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새로운” 모임을 요구합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새로운” 모임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코 대형 교회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는 그러한 “소망”을 오래 전에 버렸습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행 6:4) 목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사용해야지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을 듣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은 목사의 사역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불평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서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

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행 11:25-26)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열심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안디옥의 믿는 자들은 일년 동안 집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안디옥에서 믿는 자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려고 함께 오니”(행 20:7a)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자들은 모여서 항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왜 항상 식사하는 모습이 나올까요? 그들의 모인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만나서 한 두 시간만 함께 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식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여기서 “빵을 떼었다”고 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계속해서 한밤중까지 말을 하니라”(행 20:7b) 한밤중은 꽤나 늦은 시간입니다. 바울은 매우 긴 시간 동안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두고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유두고라 하는 어떤 젊은이가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깊은 잠에 빠지니라. 바울이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졸다가 삼층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은 채 일으켜지니라.”(8-

9절)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은 창가에 앉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두고가 떨어져 죽으므로 바울의 설교는 중단되었을 겁니다.

설교시간에 자는 사람들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다가 깜짝 놀라며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앞에 있는 자리에서 졸다가 그만 넘어져 설교단 앞에 엎드린 사람도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설교를 듣고 주님께 나아와 헌신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졸다가 넘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이르되, 그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하고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처럼 떠나니라. 그들이 살아난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10-12절)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빵을 떼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나서 또 다시 주의 만찬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식사(저녁)를 했고 오랜 시간 성경을 공부하다가 다시 식사 시간이 되어 식사(아침)를 했을 뿐입니다. 이들은 모임을 주의 만찬으로 시작해서 주의 만찬으로 끝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긴 시간 동안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 원했기 때문에 바울은 긴 시간 동안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면 그들 중 믿는 자들

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인 장소가 불편하기 짝이 없어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도 계속해서 더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선교사는 이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쉬려고 하자 말씀을 듣던 원주민들이 왜 쉬려고 하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를 동안 말씀을 전했으니 좀 쉬어야지요.”라고 하자 원주민들은 “당신은 은퇴하고 고국에 돌아가면 쉴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벌써 쉬려고 합니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성경을 주신 이유를 열거하는 목록의 첫째 자리에 오는 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성경은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 집에 비치해 두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데나 읽고 싶은 부분을 읽으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읽고 싶은 부분을 읽고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주신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나눠서 정확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보다 훨씬 더 위험한 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반항하는 아이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러한 본문을 읽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고 율법을 자신들에게 문자

적으로 적용하면 잘못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미국에서 율법에 순종하여 반항하는 아이를 돌로 쳐 죽이면 감옥에 가게 될 뿐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이 율법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율법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신약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많은 것들은 무시하고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에서 읽고 싶은 것만을 읽거나 지키고 싶은 것만을 멋대로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알라딘의 램프처럼 사용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성경의 모든 책과 모든 장과 모든 절을 문맥에 맞게 연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문맥에 맞게 하나 하나 연구하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지키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가르쳐야 하고 서로 섬겨야 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엡 4:11)**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는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목회 사역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목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단어 뒤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단어 뒤에도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복음전도자 뒤에도 세미콜론이 있

습니다. 그런데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있으므로 교사 뒤에 세미 콜론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사역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는 모두 소중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립침례교회들은 오직 한 사람만이 성경을 다루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안수 받은 목사만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가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둘로 찢어서 한쪽의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는 전체 목사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춘 목사가 채 10%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성도를 섬기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기는 하지만 교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집사나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선하고 경건하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면 결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결국 교회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될 뿐입니다. 교회가 성경을 모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교회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댄스 파티를 열거나 사교 모임만을 갖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을 받은 목사가 없으면 항상 교회에 와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물을 열거하면서 표적을 행하는 선물이 빠진 것에 주목하십시오. 소위 말하는 “방언”의 선물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고침의 선물” 역시 아무도 바르게 세워주지 못합니다. 기적을 행하는 선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13절) 건전한 교리 없이는 어떠한 연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진정한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성경적 가르침 없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합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늘날 미국 교회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달콤하지 않으면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성경을 인용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애기합니다.

만약 설교단에 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게 바른 교리이며 어떤 게 잘못된 교리인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설교단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교단에 선 사람이 여러분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는 결코 설교단에 서서는 안 됩니다. 설교단에 선 사람이 선물주의나 이단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이 행하는 간교한 술수와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교리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다면 결코 설교단에 서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리가 무엇인지,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와 기독교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들이 왜 대부분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없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설교나 책을 괜찮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성도들을 다룰 수 있는지에 관한 상담학과 심리학이 고작입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하는지가 전부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날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성경의 진리를 전하면 편협하다거나 잔인하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방법으



로는 지옥에만 갈 뿐이라고 하면 잔인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편협하고 잔인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큰 교회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보다 다음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목회에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와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 꼭 그렇지 만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16절)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말해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되 진리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진리를 말해주게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면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경을 가르쳐야 할까요? 일년 내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밤새도록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울수록 그만큼 더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 방법은 이처럼 간단한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 기울이리라 하셨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딤후 4:1-3) 성경에 의하면 육식을 금하거나 초식만 해야

한다는 주장은 마귀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더러운 영에 미혹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히 구별되었느니라. 네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4-6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 교리들과 마귀의 교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마귀의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 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거짓 교리를 지적해 준다면 여러분은 선한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믿는 잘못된 교리를 지적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나쁜 사역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만일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사람들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이 꾸며 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 세상에 진리가 아닌 꾸며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할로윈을 기념합니다. 아이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

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코릿이나 사탕을 구걸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것이 단지 어린 시절의 추억이거나 재미로 하는 일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마귀적인 일일 뿐입니다. 할로윈은 처음부터 마귀적인 의도로 시작되었고 지금도 마귀적인 일일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이것은 여러분이 목회나 선교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교회를 목회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매년 교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한 길로 걸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를 대적해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적 진리를 전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성경적 진리를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성경적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반대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며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 성경적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떠나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원칙 안에 거하십시오. 사람들이 떠난다고 해서 그 원칙을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매년 교회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1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아들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전한 자가 되고”** 은혜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강건해

야 합니다. 은혜 밖에서 강건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연약해서도 안 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2절)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신약 교회가 계속해서 신약 교회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신약 교회의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리와 운동이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2천 년 동안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도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때에 맞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복 주신 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운동을 벌이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과 올리버 그린(Oliver Greene)과 웨슬리(John Wesley)나 카트라이트(Peter Cartwright)는 모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 항상 가장 효과적인 일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다른 일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딤후 6:1) 우리는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리를 모독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알아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혜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2-5절)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의 교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생기는 것이 바로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과 마음의 부패와 비뚤어진 언쟁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번 과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을 강건한 교회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사도들의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거짓 교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성경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 요약

1.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목적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행 2:41-42, 6:1-4).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는지 알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목사의 임무는 교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외의 일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4.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나서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행 11:25-26).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5.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행 20:7-12).
6. 성경을 주신 첫째 목적은 교리를 위해서입니다(딤후 3:16-17).
7.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엡 4:11).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8.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엡 4:12-13).
9.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아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엡 4:14-15).
10. 성경을 가르치되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엡 4:16).
11. 거짓 교리와 마귀의 교리도 있습니다(딤후 4:1-7).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 지적해야 합니다.

12. 성경을 가르치고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딤후 2:2).

13. 우리가 잘못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가 모독을 당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딤후전 6:1-5).



## 제9장 교회의 목적2: 경배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요 4:20)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자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조상들은 경배하였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단지 찬송가를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적입니다. 단순히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녀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다.”고 말했을 뿐 조상들이 누구를 경배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러 교회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게 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저 경배만 하고 집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21절) 단순히 경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경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22절) 오늘날 종교인들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편협한 말일 것입니다. 이런 말은 상처를 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경배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너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목적도 모른 채 헛된 일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마치 총을 쏘지만 어디로 쏘는지도 모른 채 쏘는 것과 같구나.”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23a절) 참된 경배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참된 경배자는 자신들이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23b절) 성경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24절) “영(spirit)과 진리로”에서 영은 소문자 s로 되어 있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께서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신들의 예배를 주관해 주신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방언”과 “신유” 같은 성령의 선물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통제 아래 있는 자신의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극히 지적인 상태에서 자원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특별한 상황이 오고 특별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냉장고로 가서 무엇인가를 마실 때와 같이 여러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딘가를 갈 때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통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 오십시오. 무엇인가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 경배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아무런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픈 욕구가 강하게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것이 와서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 주면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초자연적인 경험 없이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정말 교회에 가기 싫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을 때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기 싫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기 싫을 때에도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경배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때문에 경배합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다닌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방언을 하고 춤추고 뛰노는 은사주의 교회가 전부라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경배가 무엇인지 모를 겁니다.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순진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춤추고 뛰노는 게 경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러한 사람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배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경배는 육신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는 반드시 진리에 따라 진리로 드려야 합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진리로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땅바닥에 쓰러져서 데굴데굴 구르는 것은 진리로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이마를 쳐 쓰러뜨리는 것은 진리로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하면서 방방 뛰는 것은 “하늘의 언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천사와 같아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께 진리로 경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경배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우리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경배해도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육신

적인 방법으로 경배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도 서글픈 일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배하는 자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단순히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경배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요 5:23)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자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을 사랑하시는 분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가버리자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섬기기 원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요셉이나 마리아의 형상 앞에 나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배는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등장해서 형상과 동상과 모형과 촛불과 성수와 거룩해 보이는 특별한 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온 것처럼 그러한 종교를 인도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보다는 자신들을 공경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천년간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 보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성직자 계급이 평신도를 지배하는 행위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아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천주교 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유일한 문제는 그가 속한 교회는 그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해서 천주교회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주교회에 다닙니다. 그런데 천주교회가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을 놓았기 때문에 그가 참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잘못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도 찾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우상과 종교적인 행위와 거짓으로 하나님을 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섬기면서 중

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일이 천주교회나 개신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침례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준과 전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아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마 15:1-2) 이것은 엄마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하면 말대답할 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3절) 이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6-9절)

만일 우리가 경배를 하지만 하나님께 경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경배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의 가장 큰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상한 방법으로 경배하게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종교에 대해

끔찍한 말씀을 하신 이유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마귀를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 아침에 말끔하게 차려 입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걸 막고 있습니까? 바로 종교적인 행위와 인간의 전통과 어리석음과 “록 앤드 롤” 음악을 연주하는 찬양대와 인본주의를 믿는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면 어떤 자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거짓 교리로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경배를 받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경배, 참된 경배란 무엇입니까? 참된 경배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나 인간의 전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선정 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4-5,9)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출애굽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사막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서 산 앞에 진을 쳤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네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출 19:1-6)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양이나 산비둘기나 고운 가루와 같은 눈에 보이는 희생제물을 주님 앞으로 가져 왔습니다. 물질적인 땅을 약속 받은 육신적인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도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은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동물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운 가루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한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희생제물이시며 모든 값을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주님 앞에 노래와 찬양과 자기 부인과 영광과 공경과 찬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고 영광 진리로 경배하는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요셉상이나 마리아상을 우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우상이 아니라 경배를 돕는 기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것들은 우상일 뿐이며 결코 경배를 돕지도 못합니다. 경배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는 마음이 경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경배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모든 일이 경배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마리아상은 경배를 도울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다면 인간이 만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히 13:15)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영적 희생제물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일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가게 될 하늘에 있는 집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모든 일로 인해 고마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영적 희생제물이며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희생제물은 무엇입니까? 16

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누어 준다(to communicate)”는 것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 주신 일에 대해 주님께 말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경배는 투자가 아닙니다. 경배는 복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경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배로 갚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그 속박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마리 양을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유 중에 양 한 마리가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양 한 마리를 드리고 집에 가보니 양 열 마리를 새로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으면 그 하나만큼 내 소유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미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을 이미 약속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나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기 위해 나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시고 소망이시며 구원자이시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러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배는 우리의 감정에 달린 게 아니라 사실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변함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희생제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선하게 대해주셨고 앞으로도 항상 선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든 간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에게 해 주신 일로 인해 매년 유월절을 지키고 주님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주 주님 앞에 나아와 성도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

이 나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신약성경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핍박을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은 옳은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데도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를 드리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감옥에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희생제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 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고전 11:23-25)

여러분은 빵을 떼는 것과 잔을 마시는 것의 의미를 알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배반당하시는 그 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할 자가 그 자리에 있는 데도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희생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자신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해서 자신들은 미사마다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자신들이 실제적인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전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

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26절)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하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신 일로 인해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모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자주 규칙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자주 모이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함께 모여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연습을 하고 모여 있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요약

1. 교회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2. 단순히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

니다(요 4:20-21).

3. 단순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러야 합니다(요 4:23).

4.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고 할 때, 영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육신이나 인간의 전통이나 교리로 경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진리로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거나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경배입니다.

6. 오늘날 많은 거짓 종교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종교는 하나님께 경배하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상한 방법으로 경배하게 함으로써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7. 구약의 이스라엘은 육신에 따른 백성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출 19:1-6).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영적인 희생제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벧전 2:4-5,9).

8. 우상이나 형상이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9.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바로 영적인 희생제물입니다(히 13:15-16).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린다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희생제물을 볼 수 있습니다(고전 11:23-26).

10. 경배는 투자가 아닙니다. 경배는 복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경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1.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함께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있는 연습을 하고 모여 있는 것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히 10:24-25).



## 제10장 교회의 목적3: 기도 모임

우리는 지난 두 시간에 걸쳐 교회의 목적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 모임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딤후 2:1-8)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목록은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 차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1은 즐거운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

도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형제를 미워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형제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다시는 안 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 줍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바르게 됩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바르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됩니다. 바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바른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부정을 행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제대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저의 기도가 영적인 기도라면, 즉 제가 무엇인가를 구하려는데 저의 의도가 영적인 데 있다면, 누가 권력을 잡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동안 우리 나라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느 누가 권력을 잡고 있던 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은 자가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면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데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제



대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행 4:23-24a) 그들은 교회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행 12:5) 믿는 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고 베드로를 위해 중보를 했습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이제야 내가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나를 해롯의 손과 유대인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건지신 줄 확실히 아노라, 하며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11-12절)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고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사람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가 풀려나게 해 달라고 구한 것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느니 빨리 하늘나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구했는데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보다 훨씬 큰 것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와 함께 기도하니”**(행 20:36) 이렇게 믿는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왜 기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120명이 모여있습니다. 그들은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의 직을 담당할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맛디아를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 주사”**(행 1:24)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기도로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하기는 해야 했는데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

을 낮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행 4:24a,29-30)

믿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핍박과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설교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아뢰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모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31절) 그들은 종교인들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바른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귀찮다고 합니다. 귀찮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로 구해도 극복할 수 없다면 교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30분 이상 얘기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지친 기색이나 싫은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의 일부만 끄집어 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상 문맥에 맞게 인용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어찌 네가 드리는 감사에, 아멘, 하리요?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 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언어들을 더 많이 말하므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고전 14:15-19)

바울은 지금 일상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함께 모였을 때 자신이 받은 “방언”의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방언(타언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가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장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리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아 듣고 “아멘”으로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기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그리고 바울이 하는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의도에 대한 말씀입니다(마 6:5).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 앞에서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 교회에 오면 성경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칩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에 다녔지만 기도문을 적은 책이 없으면 혼자서는 기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표 기도는 회중에게 설교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함으로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표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드리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드러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회중 앞에서 찬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노래를 잘 하는지 드러내기 위해 찬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헌금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찬양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상태와 그 의도에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든 찬양이든 헌금이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해야 합니다.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은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

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른 마음으로 헌금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헌금을 하든 반드시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바른 마음과 동기와 의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드러내려는 의도라면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든, 조용하게 속으로 기도하든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질러야만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르다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 동기와 마음이라면 그렇게 기도해도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바른 마음과 동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세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목소리로 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몇 분 동안 기도하든지 혹은 큰 소리나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적으로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피아노 반주를 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잘못입니까? 그러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설교하는 중에도 설교에 맞춰 반주를 하는 교회도 본 적이 있습니

다.

이제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 4:1-3)

잘못된 기도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도는 목소리 크기나 손이나 몸의 동작이나 고개를 숙이는 것이나 드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잘못된 동기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하는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육체의 유익만을 위해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 중 단 하나의 기도만 빼고 모든 기도가 자신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 중 바울이 자신의 몸에서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구한 것 외에는 모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온 기도 중에 유일하게 응답 받지 못한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곳에서 모든 기도를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씩이나 간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 주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세 번째 간구합니...” “아니!”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할 때는 모든 기도가 응답 받았는데 자신을 위

해 할 때만 유일하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 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약 5:13-14) 이것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누군가 병들면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15절) 성경은 “주께서 그를 고쳐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중 어떤 사람이 병들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어떤 사람이 병들면 고쳐 주지 않고 질병을 그대로 지고 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라는 표현은 질병이 반드시 죄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죄와 질병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16절) 새국제역본(NIV)이나 새미국표준역본(NASV) 같은 경우 “잘못들”을 “죄들(sins)”이라고 고침으로 이 구절이 번개시켰습니다.

죄(sins)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죄를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은 우리가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목적 중에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리고 둘째는 경배이며 셋째가 기도입니다. 이 순서대로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니고 경배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께 경배한다 해도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리가 첫째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으면 바르게 경배하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배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 5:14-15)

우리가 응답 받으리라는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이웃집 남자가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현관에서 넘어지도록”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도록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지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충만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엡 3:14-21).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에 반대되는 것을 구하면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전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었다는 경험을 한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만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돌을 달라고 해도 빵으로 주실 것입니다(마 7:9).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무리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해도 엄마는 세끼 식사를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으로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면서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달라고 할 때마다 초콜릿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독특하

고 놀라운 방법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전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히 7:25)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롬 8:26)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함께 모여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데 저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면 저는 가장 위대한 파트너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다른 형제를 대적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님의 자녀 중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쁜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복을 받고 주님께 쓰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들을 구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워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귀는 그 형제를 정죄하고 고소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에 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일 성령님께서 어떤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 형제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여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싫어하는 형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니다. 그 형제와 여러분을 모두 파괴하고자 하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형제가 행한 잘못을 하나님께 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된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고 그를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를 도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될 것입니다.

## 요약

1.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딤후 2:1-8). 디모데전서 2:1은 즐거운 교회 생활의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게 됩니다.
2.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 줍니다. 바르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도 바르게 됩니다.
3.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행 4장, 12장, 20장).
4. 대표 기도를 하는 것에 “아멘”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고전 14:15-19).
5. 기도나 찬양이나 헌금이나 그 무슨 일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6. 새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모임을 통해 교제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7. 기도든 찬양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8. 성경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목소리와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9. 잘못된 기도는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기도입니다(약 4:1-3).
10. 신약성경에 나온 모든 기도는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위한 기도는 유일하게 응답 받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11.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요

일 5:14-15).

12.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3. 예수님과 성령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히 7:25, 롬 8:26).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는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 제11장 영적인 선물1

오늘은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선물”라고 부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약 1:17)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사람들은 서로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목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영적인 선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끌림을 받는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1-7)

각 선물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로부터 선물을 받았

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받은 것입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성령님께서로부터 받았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서로를 위해 사용하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7절의 앞부분에서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선물을 사용함으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성품, 육신은 자아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새사람, 새성품, 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는 것은 찬양을 기가막히게 잘 해서도 아니고 설교를 감동적으로 잘 해서도 아니며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해서도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선물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믿는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신이 받은 선물을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섬긴다면 성령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성령의 선물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자신들만을 위



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찾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잘 대해주기만을 바랍니다. 교회가 항상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구원 받지 않은 사람들과 구원받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4절에서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같은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다 똑같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절에서는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선물도 다르고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6절에서는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같은 비중을 두고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식으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비난하고 싸울 게 아니라 각자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대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일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결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라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본성에 속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담의 본성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관하시도록 한다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소심한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며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던 사람은 선교사역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본성으로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리면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똑같아지게 하기 위해 성령님을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같은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님 안에는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 다양함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양한 방법과 선물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지만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구절을 인용하고 같은 표정과 목소리와 방식으로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구절을 인용하고 다른 방법으로 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저런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프로그램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핵심 교리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대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은사주의자”라는 말은 “은사(선물)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의에 따르면 저는 “은사주의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도 “은사주의자”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된 의미로 “은사주의자”라는 말을 사용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모두 선물(은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구원받았다면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니다.

구원이나 침례나 선물(은사)이나 예언은 모두 성경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성경과는 다르게 전혀 엉뚱한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 준다고 하면서 점쟁이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은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다르고 상관도 없는 것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2:8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은 “제멋대로 지어낸 것”이나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아무거나 마음 내키는 대로 이야기하고서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견이나 부패함이나 혼란 없이 지혜와 지식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은 로또를 살 때 어떤 수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거나, 무슨 색의 차를 사거나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을 사라고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의 말씀**”이나 예언(prophecy)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바른 지식으로 가르침으로 회중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은사)을 받은 목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들을 비평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의 말씀**”을 선물로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실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연구하라는 명

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주시어 성경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에스겔서와 에베소서와 차이점을 알아야 하고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서와 요한복음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모든 관련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고 듣는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배우는 사람이 열등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은사)을 몇 사람들에게 주셨을 뿐입니다.

저는 가끔 기독교 방송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식의 선물(은사)”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큼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기는 하지만 전혀 가르치는 선물(은사)이 없는 사람은 성경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레스터 롤로프(Rester Roloff)는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고아들과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바른 길로 인도했지만 성경의 어려운 부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성경의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버논 메기(J. Vernon McGee)는 훌륭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문맥에 따라 분별하고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강의를 들으면 이전에는 모르던 것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지식의 말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아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받은 선물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롤로프와 메기 중 누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누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롤로프도 자신이 받은 선물을 사용했고 메기도 자신이 받은 선물을 사용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에서 “**말씀**”은 항상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은 사주의 설교자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중에는 심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5천명이 모인 집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는 해당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중 몇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9a절)** 우리는 모두 믿고 구원받았기에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믿음(faith)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 하신 말씀이나 하늘나라와 지옥에 대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몇 사람들에게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어떤 형제에게 가고 기도 부탁할 게 있으면 다른 형제에게 갑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선물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선지서를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17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1억원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선물(은사)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도 붙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선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매주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 중에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고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도움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몰아가거나 억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고 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9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병 고치는 선물들을”**(9b절)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선물들(gifts)”**이라고 복수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병 고치는 선물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주의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자신의 몸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up>8</sup>

교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어진 관계를 치료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진 마음과 생각과 삶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을 고치는 선물(은사)을 몇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고치는 선물(healing)”은 병 고치는 선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고치는 선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운증후군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대머리의 머리를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병 고치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정말로 병을 고칠 수

<sup>8</sup> 우리말 성경에는 “병 고치는”이라고 된 부분이 영어로는 “of heal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고치는 선물”을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는 선물”에 국한된 게 아닌 그것을 포함한 깨어지고 상한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주



있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저에게 그러한 선물이 있다면 모두 무료로 고쳐줄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환자가 믿음이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아무런 믿음도 없지만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죽었기에 아무런 믿음도 없었습니다. 유두고도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믿음이 없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기에 아무런 믿음도 없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선물(은사)을 가지고 있다면 환자의 믿음 유무와 상관없이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고친다”고 하면 사람들은 육체를 고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육체보다 영과 마음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마음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잘못된 마음을 고치고 믿음 없는 마음을 고치고 상한 마음을 고치고 깨진 인생과 가정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구원받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고침을 받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몇 사람들에게 깨어진 것을 고칠 수 있는 선물(은사)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목사가 모든 선물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려 그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언어들을, 다른 사람에게는 타언어들 통역함을 주셨으나”**(고전 12:10) **“대언(예언)”**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들 분별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만 분별하고 자신의 영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기적”, “대언”, “영들 분별”, “타언어들”, “통역”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 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끄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엡 4:7-8,12-13)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은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물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며 장성한 사람의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제가 고린도전서 12:10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왜 에베소서 4장에서는 “기적”이나 “대언”이나 “영들 분별”이나 “타언어들”이나 “통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선물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만 “기적”이나 “대언”이나 “영들 분별”이나 “타언어들”이나 “통역”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나 “대언”이나 “영들 분별”이나 “타언어들”이나 “통역”은 섬기는 일을 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나 표적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는 인도해 주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 육신적이고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인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주지 못하는 것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선물은 에베소서 4:11에 나온 선물입니다.

“타언어”를 할 수 있는 선물이 영적 성장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선물”이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교회는 그러한 것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은사주의자들이 모두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번영에 대한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로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질적인 것들이나 건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말을 방언이랍시고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갖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갖지는 아니하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4-8)

여기서는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그러한 것이 필요 없고 오직 세워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4-8에 나온 것들은 모두 신약 교회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언(예언)도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고전 14:3) 여기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언(대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미래의 운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 주식 시장이 붕괴할 것이니 오늘 주식을 다 팔아버리라고 하거나 어떤 숫자가 행운의 숫자이니 복권을 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계시록을 끝으로 모든 예언을 끝내셨습니다. 누구라도 그 말씀에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계 22:18-19). 주님께서서는 계시록 외에 예언을 더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형제들이 예언한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987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예언한 형제도 있고 1994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예언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텍스 마 형제는 2004년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루미네이트 비밀 조직에 대해 조사해 보다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예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예언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오늘밤에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저는 주님께서 오늘밤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밤에 오지 않으시면 내일 밤에는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환상 중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고전 12:28-30)

본문에서는 여러 질문이 나옵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도나 대언자나 교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선물이나 타언어들로 말하는 선물이나 통역하는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유독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겠느냐?”**는 질문에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계속 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고전 12:31) 여기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들”이 무엇일까요?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은 누구를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성령의 선물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저는 은사주의자들은 자아중심적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타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차라리 대언하기를 원하노니 타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나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타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고전 14:5-6)

계속해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이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고전 14:12,19) 더 나은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받은 선물로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선물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선물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약

1. “영적인 은사”란 성령님께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2. 모든 선하고 완전한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약 1:17).

3.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는 자신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즉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고전 12:1-7).
4.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성령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5. 성령의 은사는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 중심이 되게 해 줍니다.
6.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모두 같은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과 다른 일을 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그리스도인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7. “**지혜의 말씀**”은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성경을 정확하게 연구하고 아는 은사입니다.
8. 한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보다 월등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9.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 그것을 붙들고 다른 사람들도 붙들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10.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healing”은 육체를 고치는 것 이상의,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11. 에베소서 4:11에 나오는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는 은사들입니다(롬 12:4-8 참고).
12.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언(대언)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개인의 미래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고전 14:3).



## 제12장 영적인 선물2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은사)을 받은 진정한 “은사주의자”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성령님께서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물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은 다른 선물보다 나은 것도 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선물은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데 다른 선물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어떤 선물은 교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고 다른 선물은 자신에게만 유익을 끼치기도 합니다. 또 초대교회 시기에만 존재했던 선물이 있고 교회사 전체에 걸쳐 계속 지속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네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선물”과 “대언자라는 선물”과 “복음 전도자라는 선물”,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네 가지 선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도의 직분을 하도록 하는 영적인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대언자의 직분을 하는 영적인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하도록 영적인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서로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 서로를 섬기고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은사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네 가지 직분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거듭난 모든 사람이 이 네 가지 영적인 선물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딤후 2:7)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신약성경의 복음 선포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한 바울은 교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교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도는 반드시 복음 전도자나 교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 교사나 복음 전도자도 사도는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 가지 직분을 선물로 받았고 그 일을 하도록 임명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정하여졌느니라.”**(딤후 1:11) “임명했다(ordained)”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해졌다(appointed)”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사도가 복음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복음 선포자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가 성경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사도가 성경 교사도 아닙니다. 사도와 복음 선포자와 교사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직분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직분을 말도록 정해졌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하여 해야 하는 4가지 일이 나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백**

이십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 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그들이 돌을 지명하니 곧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맞디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 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죄를 지음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맞디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행 1:15-17, 21-26) 24절에서 나오는 “선택했다(chosen)”라는 단어도 앞에서 나왔던 “임명했다”나 “정해졌다”와 같은 것입니다.

백이십 명의 사람들은 모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는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도는 제자였지만 모든 제자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함께한 백이십 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로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행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침례인 요한 시절부터 함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사도들은 신약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약성경의 교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약성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들을 감독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독할 교회들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 년 반 동안 지상사역을 하실 때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침례인 요한 시절부터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 결코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 두 사도를 임명하셨던 것처럼 사도의 사역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 열 두 명의 사도만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칠십 명의 제자들도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보내심을 받았지만 오직 열 두 명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서가에는 초대 교회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관한 기록들도 있는데 그때 이미 유아세례나 니콜라당의 교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비성경적인 일들이 이미 초대 교회 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 실행의 기준은 제자들이 아니라 신약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저작들 중에는 유익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저작들이 신약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들이기는 했지만 사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면대로 사도들의 사역

과 교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매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행 4:31-33) 모인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와 권능을 받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몇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도들이 더 성령 충만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도들이 더 복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사도들이 더 특별한 구원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머릿돌이시며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특별한 사역과 기독교의 기틀을 놓기 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특별한 영적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대선에 나온 사람들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 것을 기억하고 실행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모방한다고 해서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합니다. 물론교인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

닙니다. 여호와와 증인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기록하여 신약성경으로 남겼습니다. 따라서 신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선 게 아닙니다.

사도들의 사역과 기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선포했지만 사도들만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교회의 기초가 되게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목격자인 그들이 신약성경을 기록하여 교회의 기초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어떤 사상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이건, 어떤 단체이건 상관없이 사도들의 사역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직 신약성경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는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확증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을 확증해줄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사람을 통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민족적으로 부르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기적은 여호수아까지 이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오랫동안 표적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대언자(선지자)를 주실 때 다시 엘리야를 통해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엘리야까지 표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적은 한 세대까지 지속되어 엘리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이후에 기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부터 엘리야까지는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고 엘리사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대언자(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대언자의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사도들을 통해 한 세대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졌습니다.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다시는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2천년 동안 어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 다. 다만 자신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이 거짓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륜도 바꾸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경륜도 바뀌지 않았으므로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역사상 세 번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고 주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자신들이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경륜이나 프로그램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거짓 기적과 표적은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있었고”(행 5:12) 사도들은 모두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습니다. 왜 사도들에게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아직 신약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는 말과 가르치는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말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들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과 초기의 믿는 자들은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표적으로 인해 사도들의 기록인 신약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 말년에는 목사인 디모테의 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사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 왜 병을 고쳐줄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제는 신약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

다. 이미 사도들의 표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입증된 신약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적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사역이나 메시지를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된 신약성경과 비교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이 기록되고 나서는 더 이상 표적이나 기적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자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거니와 너희가 억지로 나를 시켰느니라. 내가 너희에게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무슨 일에서나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결코 뒤지지 아니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고후 12:11) 표적과 기적은 사도들에게 속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나 목사와 교사는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사도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신들을 사도라고 하려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신약성경의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다른 목사나 복음 전도자들 위로 권위를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환자에게서 돈을 받거나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조건에서도 병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병 고치는 능력(선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사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병을 고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선물)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도의 표적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신약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아직 하나님의 경륜이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도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떠한 표적이나 기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믿어야 할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할 표적이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믿어야 할 것은 이미 모두 확증된 것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주장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믿고 확증한 것에서 떠나 새로운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것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래 전에 기록되고 확증된 옛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믿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의 진리를 계속 믿으면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적으로 자신들의 증언과 기록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 되시나니 그 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엡 2:19-21)

만일 사도들이 기초를 놓은 것이라면, 마태복음나 누가복음나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 등의 신약성경이 신약교회의 기초라면,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은 교회들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믿고 실행하는 게 신약성경에 나온 것인지 비교해 보고 확인해 본다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유아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아세례가 성경에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주장하지만 결코 신약성경 위에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그 교회는 신약성경 위에 세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주 미사를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매 주 미사를 하면서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회는 신약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신들이 믿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교리가 신약성경에 기초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교회도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실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서로의 의견이나 교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경 기록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유익을 얻고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의 기초 위에 서지 않았다면 결코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증언과 기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록한 신약성경은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도들을 주셔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약성경이 주어졌고 신약교회의 교리가 확  
 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또 다른 사도가 나타나서 다른 것을 말한다면 믿  
 는 자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더 이상 교회에 주실 교리가 없  
 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것을 믿고  
 같은 진리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리가  
 계속 바뀐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  
 도들을 데려가시고 나서 다시는 사도들을 교회에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하이오 주에는 아미쉬<sup>9</sup>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아미쉬 마을에 방문  
 했을 때 남자들은 모두 흰 셔츠를 입고 있었고 여자들은 모두 검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아미쉬 마을에 갔을 때 청색 셔츠를 입고  
 있는 아미쉬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왜 같은 아미쉬인데 마을마다 복장이  
 다른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미쉬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아  
 미쉬 마을마다 사도가 있는데 그가 규칙을 정합니다. 그러다 그가 죽고 나면  
 새로운 사도가 나와서 다시 새로운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규칙을  
 가진 아미쉬 집단 간에는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 질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교  
 리가 다르면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을 끝으로 사도의 직분이 끝나게 되었을 때 신약성경도 완성되  
 었습니다. 더 이상 사도가 없기 때문에 신약성경도 더 이상 기록될 수 없었습  
 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신약성경에 새롭게 더하거나 빼  
 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계 22:18-19). 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한 것일까  
 요? 진리가 확정되어야 그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계속  
 바뀐다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sup>9</sup> 아미쉬(Amish)는 유럽에서 핍박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와 18세기부터 미국 오하이오 주에 거  
 주하는 기독교 종파입니다. 이들은 21세기에도 18세기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  
 다. 아미쉬 마을은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촌과 비슷한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역주

것과 같습니다. 만일 계속해서 사도들이 존재하고 신약성경이 추가적으로 기록된다면 계속 새로운 교리가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약교회는 새워질 수 없게 됩니다. 기초가 완성되지 않으면 그 위에 건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미쉬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만든 규칙을 따릅니다. 어떤 지도자가 자동차를 타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자동차를 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마을에 있는 아미쉬 지도자는 라디오가 없는 자동차는 탈 수 있다고 하면 그 마을의 아미쉬들은 라디오가 없는 자동차는 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정도를 벗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아닌 자신들의 지도자를 따를 때 오류에 빠지고 곁길로 가게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언제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약성경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오류에 빠지고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된 길 안에서만 걷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것이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미 기록되어 완성된 신약성경의 지침을 따르는 게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대언자(선지자, 예언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들을 특별히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대언자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대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 외의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sup>10</sup>

예레미야서에 나온 대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예언이 아닌 진리의 선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언자가 하는

일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일도 포함합니다. 엘리야는 대언자였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했습니다. 호세아에도 예언에 대한 것보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도 분명히 대언서(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니”(고전 14:1-3)**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유익을 끼치도록 그러한 능력을 성령의 선물로 받지 않았습니

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22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sup>10</sup>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prophecy”는 주로 미래에 대한 예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리를 선포하는 대언의 개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주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타언어들(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적인 선물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세워주는 선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언은 믿는 자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대언은 믿는 자들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23-25절)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개인의 운명을 점쳐주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상에 대해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31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고 위로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다 한 사람씩 대언해야 하느니라.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만나니”(31-32절) 대언을 하는 것은 무질서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 아래 질서 있게 하는 일입니다.

3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언  
 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우리는 타언어들(방언)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대로된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을 금할 뿐입  
 니다.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므로 믿는 자들 앞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에는 타언어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키스를 금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아닌 사람들이 입맞추는 것을 금할 뿐입니다. 타언어로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대기상 2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  
 해 주는 게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다윗과 군대의 대장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아들들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매 그들이 하프와 비파와  
 심벌즈로 연주하며 대언을 하였는데 일하는 자들의 수가 그들의 섬기는 일에  
 따라 이러하니라.”(대상 25:1)

사람들은 하프와 여러 악기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sup>11</sup>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  
 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대언이라고 부르고 있습  
 니다. 이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지도 않았지만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대언이 반드시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심  
 지어 말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sup>11</sup> 이들은 악기로 연주하며 대언을 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prophesy with harps...”라고 되  
 었습니다. 이것은 악기를 연주함으로 대언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기로 대언하는(위로하는) 일이 가능  
 합니다.-역주

이제 복음 전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1장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울의 일행인 우리가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사람 중의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니라.”**(행 21:8) 빌립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네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딤후 4:5)

복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음 설교를 하거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거나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을 능숙하게 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 전도자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 선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신약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영적인 선물을 받기 원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는 자주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이 받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선물을 활용해서 주님을 섬기고 받은 선물을 누리기 바랍니다.

다시 사도 바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선교사였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선교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사명(mission)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며칠이나 몇 개월 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잠비아나 파라과이에 가서 몇 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몇 주 동안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행한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만나매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일 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행 11:26)

계속해서 사도행전 18:11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행전 19:10도 보겠습니다.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사도행전 20:31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의 일은 부흥사의 일이 아니라 선교사의 일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서 한 도시에 일년을 머물기도 했고 일년 반을 머물기도 했고 삼 년을 머물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몇 주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위로해 주고 권면하

는 것은 며칠 만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 정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몇 사람을 택하여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적이라거나 더 성령충만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선물을 받았습니

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엡 4:11) 주님께서 왜 이러한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단지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

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12-16절)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사도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대언자는 성도들이 기초에 계속 거하도록 독려합니다. 목사와 교사는 그 기초 위에 선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 주님의 신성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과 완벽하심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며 그 안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목사와 교사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뿐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목사와 교사의 존재 목적은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심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선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네 가지 은사(선물)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영적 선물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 요약

1.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네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선물”과 “대언자라는 선물”과 “복음 전도자라는 선물”, 그리고 “목사와 교사라는 선물”입니

다.

2.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복음 선포자로 임명하셨습니다(딤후 2:7, 딤후 1:11).
3. 사도들은 신약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행 1장). 이들은 신약성경을 기록함으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엡 2:19-21).
4. 사도들은 교회의 머릿돌이시며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특별한 사역과 기독교의 기틀을 놓기 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 특별한 영적인 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5. 아직 신약성경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는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확증해 줄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사람을 통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사도들의 표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고후 12:11).
6.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들을 특별히 대언자로 부르셨습니다. 대언(예언)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7.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개인의 운명을 점쳐주는 게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언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8. 복음 전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딤후 4:5, 행 21:8).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웁니다(행 11:26, 18:11, 19:10, 20:31).
9. 목사와 교사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엡 4:11-16).



### 제13장 영적인 선물3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고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답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답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10을 보겠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But when that which is perfect is come, then that which is in part shall be done away.)”** 이 구절의 의미에 대해 어떤 목사님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은 방언(타언어)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구절은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더 이상 방언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으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예, 성경은 최초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을 때에는 완전했지요. 지금의 성경은 오류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완전하지 않으니 방언이 없어진 게 아니겠군요.”<sup>12</sup> 완전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문맥과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 대해 다른 목사님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이런

<sup>12</sup> 미국의 대부분의 근본주의자들은 단 하나의 오류도 없는 무오한 성경이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방언(타언어)도 지금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역주

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완전한 성경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것은 신구약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성경 전체가 있어도 그 안에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부분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완전한 것 안에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완전한 것은 성경 전체고 부분적인 것은 성경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으로 완성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사라지고 온전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10이 의미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을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을 봐야 합니다.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의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맏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면 이런 이유로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그것들이 다 한 지체라면 몸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 그것들이 많은 지체이나 그럼에도 오직 한 몸이라. 눈이 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며 또 머리가 발에게 이르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욱 더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더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그 부분에게 더욱 귀한 것을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12-25)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선물(은사)을 인간의 몸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서로 다른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 발, 팔꿈치, 허벅지, 배 등 수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개개의 지체들은 한 몸의 “부분(part)”입니다. 손이나 발은 모두 몸의 한 부분입니다. 12장에서 손, 발, 귀, 눈 등과 같은 몸의 한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의 문맥을 보면 몸의 어떤 부분은 매우 중요해 보이고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몸의 모든 부분은 모두 중요합니다. 몸의 작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몸 전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눈은 손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손이 작은 못에 찔리면 눈에서는 눈물이 납니다. 서로 관계가 없어 보여도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몸에 아픈 곳이 없어도 한 부분이 아프면 전체가 고통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모든 부분이 중요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시간에 목사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자신은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이 별로 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없어도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며 잘못된 생

각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면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가 중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 더 중요하고 나중에 온 사람은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고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서로의 섬김을 필요로 합니다.

한 몸에 속한 지체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다리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뇌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가 신경을 통해 필요한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다리가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뇌와 다리가 서로 분열을 일으킨다면 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와 찬양이 좋아도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체들의 교제를 막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체들 간에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가 좋고 다른 것이 좋아도 교회가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좋은 손과 발과 귀와 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연결해서 상호 작용하게 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바르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겠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니라.”**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자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



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몸의 한 부분이 훌륭한 일을 하면 몸 전체가 영광을 받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27절) “개별적인 지체”라는 것은 우리 각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몸에 속해서 특정한 부분에서 특정한 선물(은사)을 받아 특정한 일을 하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과 여러 가지 타언어들이니라. 모두 사도이겠느냐? 모두 대언자이겠느냐? 모두 교사이겠느냐? 모두 기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 병 고치는 선물들을 가지겠느냐?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겠느냐? 모두 통역하겠느냐?”**(28-30절)

사도나 대언자나 교사는 모두 한 몸 안에서 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히 하나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도와 대언자와 교사는 그 부분 중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열거된 선물(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전체가 아닌 부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한 몸에 속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특정한 일을 하기 위해 특정한 은사를 받은 특정한 부분입니다.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31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특정한 선물을 받았고 특정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뛰어난 길이 있습니다. 몸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

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고전 13:1-3)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12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12장의 내용과 다음에 나올 것을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서는 두 번에 걸쳐 “내(I)”가 나옵니다. 2절에서는 네 번에 걸쳐 나오고 3절에서도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sup>13</sup>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선물(은사)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몸의 중요한 부분입니까?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선물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내 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선물(은사)이나 희생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과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른 설교자를 시기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찬양대나 다른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나 혹은 집사의 일을

<sup>13</sup>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성경을 기준으로 횡수를 센 것입니다.-역주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쭐대면서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일하거나 다른 사역자를 시기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중심에 있으면 그 일을 시기하고 자랑하고 우쭐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5절)**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내고 선교사를 도우면서도 무례히 행동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고 쉽게 성내고 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동기와 태도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6-8절)** 우리 주위에는 사랑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다면 말씀을 전하는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가장 좋은 것”과 “더욱 뛰어난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물의 목적,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의 목적은 몸 전체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을 잘한다는 칭찬을 받으면 그 손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기뻐합니다. 손은 손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한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같으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9절)**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의 문맥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

니다. 몸의 지체를 다른 말로 하면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대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체를 위해 일한다면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도 기뻐할 것입니다. 전체를 위해 일한다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속한 그 부분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은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몸 전체의 머리가 되십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십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10절) 사랑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전체의 유익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개인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사랑 가운데 완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10을 기억하면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도 문맥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엡 4:8,11)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의 문맥도 영적인 선물(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28-29과 에베소서 4:11은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은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11에서는 교회의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 선물

을 열거하면서 그 선물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12-13절)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문맥은 먼저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물의 종류(사도, 대언자, 교사 등)에 대해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12절에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3:10과 비교해 보면 결국 두 본문의 문맥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본문은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3:10에 나오는 “완전한 것(Which is perfect)”은 에베소서 4:13의 표현대로 하면, “완전한 사람(a perfect ma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모든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게 됩니다. 우리 각자 개인으로서, 부분으로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 모든 사람이 성장하게 되면 모든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완전한 것이 되어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서 4:13에서는 우리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성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개인적인 영적 성장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

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영적으로 성장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여 하나의 몸으로,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속한 하나의 지체라면 저 혼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전체 몸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몸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아이(a child)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a man)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11절)

고린도전서 13장과 에베소서 4장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11을 에베소서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a perfect man)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children)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엡 4:13-15)

모든 부분은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부분도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전체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인 우리가 모두 하나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분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배가 고프면 모든 사람이 잠든 한밤중에도 크게 소리 내어 우는 게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깨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배가 고프면 소리 내어 읊니다. 어린아이는 이기적입니다.

구원받은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신이 대접을 받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이 교회에서는 왜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이런 것을 해주지 않지?” 하고 화를 내고 다른 교회로 떠나 버립니다. 거기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신경 써 주지 않는다고 빼치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한다면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겨야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행복한 교회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영적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영적 성장이 아닌 믿는 사람 전체의 영적 성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를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전체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엡 4:16) 사랑 안에서 섬길 때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하고 세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뛰어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에베소서 4장은 서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앞부분에서(1-3절) “나(I)”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에 반해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와 “온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사랑일 때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닌 전체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는 “**더욱 뛰어난 길**”인 것입니다(고전 12:31).

다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의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12-13절) 왜 사랑이 가장 큰 것입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랑의 동기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



하라...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1,3-4절)

만일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문맥은 12장, 13장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전체를 위한 영적 선물들과 그것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10에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완전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맥을 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문맥에 의하면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부여하신 사랑으로 섬기고 그로 인해 영적으로 성장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부분(part)”은 우리 각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완전한 사람이 되면 각자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의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면 모든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우리 개인 만의 영적 성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선물(은사)을 받았습니다. 영적 은사가 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것도 자랑할 일이 되지 못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섬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성장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 완전한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위해 교회를 찾고 자신을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에 오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욱 뛰어난 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면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를 위해 사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교회는 서로를 위해 모이는 교회입니다. 자신을 위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 요약

1. 고린도전서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선물(은사)을 인간의 몸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사도나 대언자나 교사와 같은 영적인 선물들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의 부

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일을 위해 특정한 능력을 받은 특정한 “부분(part)”입니다.

3.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동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개인의 목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몸의 한 부분의 목적은 몸 전체입니다.

5.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10절) 사랑은 개인의 유익을 넘어서서 전체의 유익을 가져오게 합니다.

6. 고린도전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의 문맥도 영적인 선물(은사)에 대한 것입니다.

7.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의 문맥은 먼저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에 대해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물의 종류(사도, 대언자, 교사 등)에 대해 열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적을 말씀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12절에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 따라서 고린도전서 13:10에 나오는 “완전한 것(Which is perfect)”은 에베소서 4:13의 표현대로 하면, “완전한 사람(a perfect ma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면 모든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10.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속한 하나의 지체라면 저 혼자 영적 성장하는 것으로는 결코 전체 몸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영적 성장하는 것으로도 전체 몸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 제14장 목사와 감독과 집사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 교리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감독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sup>14</sup>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과 에베소서 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천주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온 교회들은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너무 많은 권위를 두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권위를 두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특별하게 높여서 교황이라고 하거나 신성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교회를 인도하거나 지도하거나 가르치게 하지 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교회에서 인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다면 한 사람은 인도하는 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를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세우실 때 특정한 사람을 그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제사장 제도를 만드실 때도 특정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실 때도 특정한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 지상에 왕국을 세우실 때에도 특정한 사람들이 왕국을 인도하도록 세우실 것입니다.

<sup>14</sup> 이 장의 내용은 전통적인 침례교회의 견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목사와 감독과 장로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저자는 목사와 감독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입장과 저자의 주장이 다를 지라도 일단 이 장을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장의 내용과 다른 것을 믿고 실행한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라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장의 내용을 통해 목사와 감독에 대한 성경적인 연구가 더욱 진척되기를 바라며 이 장의 내용이 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역주

저는 지금 신약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더 좋은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엡 4:8,11)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디모테전서와 디도서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하는 문제와 자격 조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은사(선물)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자격과 관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테전서와 디도서에서 말씀하시는 자격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디모테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남자가 목사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딤후 3:1)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 있는 직분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끗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2절)

만일 감독이 목사고 목사가 감독이라면 목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많은 침례교회에서 이것을 목사는 결코 이혼한 적이 없는 사

람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오직 한번만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 한 아내를 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디모데전서 3:2을 목사의 자격이라고 한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자나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남자는 결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모두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독과 목사가 같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저는 감독과 목사가 같다고 믿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2은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지 목사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3:2을 목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목사는 거기서 열거하는 모든 자격에 맞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2에는 맞지 않지만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디모데전서 3:2의 자격과 일치한다면 감독으로 세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목사와 교사로만 세워야 합니다.

감독의 직분은 자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목사의 직분은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2에서 말씀하시는 자격이 없더라도 은사가 있으면 목사가 될 수 있고 은사가 없더라도 자격이 있으면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2에서 말씀하시는 자격 요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must)”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3:7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실 때의 “반드시”와 같은 것입니다. “반드시”라는 것은 선택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7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디모데전서 3:2도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디모데전서 3:2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격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pastor)와 감독(bishop)은 서로 다릅니다. 철자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목사의 직분은 은사로 받는 것이고 감독의 직분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킴으로 얻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3-5절)**

문맥을 보면 더욱 분명합니다. 감독은 교회를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감독이 되려고 한다면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도력을 입증하는 방법은 바로 가정을 통한 것입니다. 앞에서 감독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자녀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은 아내와 복수의 자녀가 포함된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정을 잘 인도해야 감독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가 반드시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목사와 감독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만일 디모데전서 3장이 목사에 대한 말씀이라면 목사는 반드시 적어도 둘 이상의 자녀를 두어야 한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자녀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두 자녀를 두고 있어도 순종하는 자녀들이 아니라면 목사의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는 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는 은사이므로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자신이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감독은 자신의 가정을 잘 인도하므로 자신이 교회를 인도할 지도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격과 관련 있는 것은 감독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결혼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적어도 둘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목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 않고 감독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감독에 대해 말씀하면서 “다스린다(rule)”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절에서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보는 것(take care of)”입니다. 왕국을 다스리는 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왕국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강단에 서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감독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와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인도하고 돌볼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가정도 잘 인도하고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잘 인도하고 돌봄으로 자신이 교회를 잘 인도하고 돌볼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잘 인도함으로 그 지도력을 충분히 입증한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성공적으로 인도한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에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을 신실하게 양육한 사람이 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결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는 은사(선물)를 받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만이 성경이 결혼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적도 없고 아이들을 양육해본 적이 없어도 성경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지옥에 가보지 않아도 지옥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목사가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감독입니다. 감독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며 그렇게 입증된 사람만이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성도들이 실제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감독은 목사가 가르친 진리를 실행함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교회를 인도합니다. 감독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목사를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목사)과 그것을 실행하여 본을 보이는 일(감독) 모두 교회에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감독은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6-7절)

감독은 초신자여서는 안 되며 반드시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경우는 다릅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추고 나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2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형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당장 감독은 될 수 없지만 목사는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면 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살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줄 감독이 필요합니다. 감독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지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을 바르게 인도한 사람이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돌봅니다. 이런 교회는 굉장히 튼튼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집사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 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험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8-12절)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습니다.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여집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사들은 “자기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는 모든 사람의 아이를 잘 다스

려야 하는 게 아닙니다. 집사는 자신의 아이들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돌본다는 것입니다. 돌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은사(선물)를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잘 돌본 “하나님 같은(Godly)” 사람이어야 합니다.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신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단 한 사람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교회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감독과 목사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일을 해주는 집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디도서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단 한 사람이 지역 교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교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목사로 세웠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디모데를 목사로 세웠고 크레테 섬에서는 디도를 목사로 세웠습니다. 이것에 관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테 섬에서 목사의 일을 하도록 한 디도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했습니다. 디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 둔 목적은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appointed) 같이 각 도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ordain) 하려 함이니”(딤후 1:5)

디도는 어떻게 크레테 교회의 목사가 되었습니까? 크레테에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목사로 지정해서 세운(appointed) 것입니다. 성경은 디도

를 목사로 세우기 위해 성도들이 투표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최악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다수가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크레테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디도를 목사로 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를 지정하여(appointed) 목사로 세웠습니다.

미국인들은 투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영적인 일을 하거나 인도자를 세울 때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의 회원이 100명이고 그중 70명이 초신자인데 그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고 누군가를 교회의 인도자로 세울 때 투표를 통해서 한다면 육신적인 사람을 세우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성숙한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단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인도자를 회원의 투표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투표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선거를 생각해 봅시다. 가정을 파멸로 이끈 알코올중독자도 한 표를 행사하고 사회에 유익을 끼친 훌륭한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합니다. 아내를 저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고 아이들을 신실하게 양육한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합니다. 이것을 두고 최선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문제는 이런 선거 방식을 교회에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가끔가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한 표를 행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교회에 참여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일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집사를 선출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해서 영적인 일을 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투표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고 결정을 내리려 하고 인도자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을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면 어떤 일을 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걸까요? 작은 물품을 구입할 때도 투표해야 할까요? 큰 일을 결정할 때만 투표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전체 성도들이 투표를 해야 할 만큼 큰 일은 어느 정도로 큰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작은 일은 알아서 처리하고 큰 일은 전체 투표를 통해 처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한 교회에 목사가 반드시 복수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인도자들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장로들”을 임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6장을 통해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지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니라. 이에 열두 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look out).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appoint)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행 6:1-4)

성경에서는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세울 때 항상 여러 명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교회의 인도자로 세울 때 사도들만이 결정해서 세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적당한 사람을 찾아내서(look out) 추

천을 하면 그 중에서 사도들이 지정해서(appoint)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추천을 하지만 지정하여 세우는 것은 사도들이 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를 택하여(chose)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laid hands).”(행 6:5-6) 성도들이 선택했고 사도들이 세웠습니다. 어디에도 투표를 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데 필요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은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명이 인도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인도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복수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행 20:17) 여기서 “장로들”은 복수로 되어있지만 “교회”는 단수입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습니다. 하나의 교회에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와 감독과 장로는 같은 게 아닙니다. 만일 이들이 같은 것이라면 목사는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하고 아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지 오랜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의 목사들이 있어야 하는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침례교회들이 목사와 장로와 감독이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교회에는 단 한 명의 목사만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빌립보서 1장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빌 1:1) 이 당시에 빌립보 지역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습니다. 바울이 쓴 하나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 교회에 보내는 것

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 안에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영적인 은사(선물)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은사(선물)를 받은 사람을 목사라고 부릅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에 이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을 대여섯 명씩 두지는 않으십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는 열명 이상의 목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목사가 필요한데 한 교회에만 열명씩이나 되는 목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한 교회에는 한 사람의 목사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교회에 많은 목사가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선물)를 받은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돌보고 전체 사역을 감독할 영적인 감독과 집사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모든 필요를 감독과 집사가 맡아서 하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분이십니다(롬 12:1, 사 1:18). 이것은 질서 있는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4:40, 살후 3:6).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분과 자격은 분명합니다. 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가 몇 명인지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복수라는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를 안수하거나 임명하는 것은 성도들의 투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을 세울 때는 성도들이 입증하고 추천한 사람을 목사가 선택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투표로 목사나 집사를 세우는 게 아니며 또한 투표로 목사

를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범죄한 목사나 집사나 교회의 인도자가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 사람을 쫓아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 즉, 목사, 감독, 집사와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spoken)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히 13:7) 성경은 단수인 한 사람만을 기억하고 따르라고 하지 않고 복수인 여러 사람을 기억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교회의 인도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들과 관련하여 성도들이 지켜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는가입니다. 그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옷을 잘입는지 못입는지 잘 웃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 주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그의 행실을 봐야 합니다.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지 봐야 합니다. 그가 성경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봐야 합니다. 셋째,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봐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의 삶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삶을 통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는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계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으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감독과 집사는 교회를 돌보고 목사를 돕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TV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목사가 좋은 말만 하고 자신의 삶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혼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자녀 양육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 and 인생과 시간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 회계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 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벧전 5:1-2)

성경은 “너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고”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가운데 있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다른 성도들 위

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감독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 하나님께 더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감독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도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가능하면 필요한 만큼의 돈을 사역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목사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월급을 받기 위해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 강단은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러한 짓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 떼에게 본이 되라.”**(3절)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 왕이나 된 것인 양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교회의 왕이 아닙니다. 목사는 양떼 가운데 있는 양일 뿐입니다. 목사는 교회를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본을 보이면 양떼는 그대로 행합니다. 성도들을 헐박하고 몰아가는 것은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돈을 병원비로 쓰게 될 것이라고 헐박하는 것은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도들이 따를 수 있도록 본을 보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목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몰아가지 말고 인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들을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다른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목사가 바르게 성경을 가르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목사가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지 봐야 합니다. 목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봐야 합니다. 목사가 돈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멋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지 않는다고 여러분은 잘못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교회의 인도자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살전 5:11-13)

교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은 수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침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

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동선수나 영화배우나 가수를 귀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한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목사와 감독과 집사는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이들은 다른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성도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 요약

1. 신약성경에 의하면 목사와 감독과 집사는 교회에서 인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2. 목사와 교사는 은사(선물)이지만(엡 4:8,11) 감독과 장로와 집사는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3.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현재 한 사람의 아내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5. “만드시(must)” 디모데전서 3:2의 자격 요건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6. 목사(pastor)와 감독(bishop)은 서로 다릅니다. 목사의 직분은 은사로 받는 것이고 감독의 직분은 자격 요건을 충족시킴으로 얻는 것입니다. 목사는 은사이므로 자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7. 감독이 되려면 자신의 가정을 잘 인도함으로 지도력을 입증해야 합니다(딤후 3:3-5).
8. “다스린다(rule)”는 것은 “돌보는 것(take care of)”입니다.
9.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와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목사가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감독입니다.
10. 집사도 감독과 마찬가지로 자격이 있습니다.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의하면 여집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8-12절).
11.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에는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딤후 1:5, 행 20:17, 빌 1:1).
12. 신약성경에서는 목사나 감독이나 집사를 세우기 위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13. 신약성경에서 교회의 인도자를 세우는 방법은 성도들이 적당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입증하고 추천을 하면 목사가 지정하여(appointed) 세우는 것입니다(행 6:1-6).
14. 목사와 감독과 집사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히 13:7, 벧전 5:1-3).
15.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살전 5:11-13).



## 제15장 교회와 징계

우리는 교회에 관한 성경적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임이고 서로가 세워주고 가르치기 위한 모임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이기 위해 교회를 사교 모임으로 만드는 것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입니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교회 입구에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문구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기에도 성경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거나 방문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거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 주신 지침 중에는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었다는 말 일까요?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거기서 사람과 만나셨을 때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맞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우 자세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고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해야 했습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

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나 금하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구실로 심리학적인 기법을 동원하거나 비성경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명목으로 교회를 사교모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교회를 타락으로 끌어내릴 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책을 쓰셨고 거룩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모여 거룩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성경에는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더 이상 교재를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징계해야 하는지 그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징계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그들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막을 뿐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이 싫거나 미워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부가 부패하여 전체로 퍼져나가려고 한다면 전체의 보존을 위해 일부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

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 하였느니라.”(고전 5:1-2)

음행은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은 술집과 나이트클럽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속한 행위가 아닙니다. 음행과 교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음행을 하는 사람을 쫓아낸다고 해서 교회나 목사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음행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교회는 음행을 하는 남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딸들을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교회는 음행을 하는 여자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잠언 1장부터 8장에서 경고하는 사악한 여인으로부터 우리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이라는 폭풍의 바다를 향해하려거든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의무는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모이게 하기 위해 잘못된 옷차림에 대해 전혀 지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왜 올바른 옷차림 규범(dress codes)을 가르치느냐고 묻습니다. 잘못된 옷차림은 음행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옷을 정숙하게 입거나 단정하게 입는 것은 중요합니다.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는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음행을 조장하는 잘못된 옷차림일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옷차림은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TV나 세상



의 친구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교회는 유혹과 타락으로부터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교리든 의복이든 교회에 그러한 것을 가져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자동차나 컴퓨터나 사회 생활에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였노라.” 죄를 지적하면 “판단하지 말라”는 말로 응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4-5절) 우리는 각자 집에서 무엇을 하든 그것을 통제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다릅니다. 교회에 죄를 가지고 오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6-8절) 성경은 분명하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을 죽이라거나 폭행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누룩을 전체 덩어리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더 이상

교회에서 누룩을 퍼뜨리지 못하게 쫓아낼 뿐입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썼으나”(9절) 여기에서 우리 시대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교회가 음행하는 사람과 간음하는 사람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징계하면 그 교회와 목사가 잔인하다고 비난하면서 교회를 떠나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그러한 죄를 받아주는 교회로 옮기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이 단지 실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수란 길을 잘못 들어갔거나 토마토를 사야 하는데 감자를 사오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음행은 실수이며 그러한 실수를 한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을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성경적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을 올바른 방법으로 사랑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음행을 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을 반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 친한 사람일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다면 아무도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나 부모가 전혀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음행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행을 해도 교회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부모도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음행에 대한 징계가 없으면 결국 교회는 음행과 간음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성경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음행을 한 사람은 이미 사탄과 어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음행을 하는 사람이 6일 동안 사탄과 어울리고 나머지 하루 주일만 하

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교회로 누룩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망치는 것을 막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다. 다만 음행을 버리지 않는다면 계속 교회에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 년 전에는 모든 설교자들이 음행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혼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아동 포르노나 아동 유괴도 거의 없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잔인한 게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는 게 오히려 잔인한 겁니다. 오늘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람들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악을 피할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회 내에 죄를 지은 사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몸집을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10절) 우리의 임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도 아닐뿐더러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11절)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

문입니다.

**“술 취하는 자이거나”**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술 취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합니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지만 교회 내에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잘못을 해도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12-13절) 성경은 죄를 지은 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누룩을 떼어내야 합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히 13:4) 구약성경에 보면 아간이 죄를 짓고 회중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회중 전체 위에 임했습니다. 아간을 회중 가운데서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회중이 아닌 아간 개인에게만 임했습니다(수 7장). 기브야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에 임했습니다(삿 20장). 역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제거했을 때 전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체 회중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용납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전체 회중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심판도 그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내쫓는 것입니다.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고 죄를 용납하면 결국 전체 회중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mark) 그들을 피하라.”**(롬 16:17) 성경은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표시하라(mark)”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가인에게 표시를 하셨습니다(창 4:15, set a mark upon Cain).

**“피하라(avoid, a-void)”**는 것은 “비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서 그 사람의 자리가 비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 주에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교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오래된 사람도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를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환영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국제역본(NIV)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새국제역본을 가져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현관에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오는지 검사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새국제역본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해도 절대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에 계속 나오면 왜 새국제역본이 잘못된 성경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국제역본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을 쫓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자신이 믿는 게 다르다면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목사와 집사 같은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방법이고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믿음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먼저 제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중 가운데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나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합세해서 교회를 뒤집어엎으려는 것은 결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은밀히 모임을 만들어 교회를 뒤집어엎으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서 내쫓으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징계하고 내쫓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태도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모임을 만들어 교회 내에 있는 불만 세력을 모으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망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해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18절)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전하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교회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꺾어내어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한 짓을 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다면 교회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갈 1:6) 우리가 왜 죄와 거짓 교리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리로부터 돌아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도다. 그러나 우리가 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7-9절) 거짓 교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단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장에서도 교회 내로 몰래 들어와 거짓 교리를 전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갈 2:3-5)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들이라, 하리라, 하시니라.”(마 13:24-30) 여기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모두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37-38절) 마태복음 13장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교회가 아닌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교회의 지침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고 징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잡고 순수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징계하지는 않지만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징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돌보는 일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 목사와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돌보지 않고 죄를 범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다면 교회도 이 세상에 있는 하나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징계를 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쫓아낼 만한 죄는 무엇일까요? 음행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전체 회중으로부터 반드시 분리시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아직 교회가 존재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실행할 지침에 대해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아직 교회가 존재하기 전이지만 교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만일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 주라.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었느니라.”**(마 18:15)

성경은 **“네 형제가 네게 범법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 내에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전체 회중에게 알리지 말고 양 당사자 간에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16절) 왜 두세 증인이 필요할까요? 두세 명을 데리고 가서 상대방에게 압력을 가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가 말을 지어내어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두세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고후 13:1)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17절)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리스도인으로서 교재를 나누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교회의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가서 허물을 일러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셋째 단계까지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모두 첫째 단계나 둘째 단계에서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나 두세 사람이 경고하는 단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언젠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난 사람의 모든 잘못을 회중 앞에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난 후에 온갖 거짓말을 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쫓겨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의 잘못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채 평생을 보내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죄를 짓고 우리 교회를 떠나거나 쫓겨난 사람의 죄를 공개하거나 떠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교회 게시판에 자세히 게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게시판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을 게시하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교회 내에서 죄를 지은 자를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들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고 트레일러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더니 몰래 팔아먹고 도주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형제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가 교회를 떠났다면 그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형제로서의 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양 당사자가 교회 내에 있을 때의 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형제를 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떠남으로 교회 내에 있을 때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고소하는 게 잘못된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체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쪽이 교회를 떠난다면 더 이상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은 양 당사자가 모두 교회 내에 있을 때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죄짓는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딤후 5:19-20)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전(장로) 갓 구원받은 사람이전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중에 후**

메내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딤후 1:20) 사도 바울은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게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빌 4:2) 여기서도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들의 죄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바로잡음입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공개적으로 알려진 죄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엡 5:3-4)

음행을 하거나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의 이름과 그들의 행위를 자세히 광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교단에서 회중에게 그들의 행위를 자세히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러운 행위를 했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전혀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으로 근심한 것 바로 이것을 보라.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조심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너희 자신을 해명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갈망하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참으로 얼마나 징계하게 하였는가! 너희 자신이 이 일에서 결백함을 너희가 모든 일에서 입증하

였느니라.”(고후 7:10-11)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이 나옵니다. 이들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죄에 대한 세상의 근심은 자신의 죄가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억울해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이 행한 죄를 후회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한 것은 세상의 근심이었습니다. 에서가 한 것도 세상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근심하고 후회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슬퍼했을 뿐입니다.

한번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징계할 수 없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징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일치단결하여 옳은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죄에 대항해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영원히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 요약

1. 교회에 와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거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징계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를 순수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 5:6-8).
2. 음행을 해도 교회에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부모도 징계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음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상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게 할 것입니다.
3.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잘못을 해도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전체 회중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용납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전체 회중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심판도 그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5. 거짓 교리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짓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한다면 교회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 교회에서 쫓아낼 만한 죄는 무엇일까요? 음행과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과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은 전체 회중으로부터 반드시 분리시켜야 합니다.
7. 마태복음 18장은 죄를 지은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말하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말하고 마지막으로

막으로 교회가 말하는 것입니다(마 18:15-17).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8.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양 당사자가 교회 내에 있을 때의 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형제를 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교회를 떠남으로 교회 내에 있을 때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고소하는 게 잘못된 아니라는 것입니다.

9.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책망해야 합니다(딤후 5:19-20).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딤후 1:20, 빌 4:2).

10. 징계의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을 영원히 교회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 제16장 교회와 헌금

우리는 예전에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3가지를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가정의 현재 필요를 위해 돈을 사용합니다. 둘째는 가정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헌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입니다. 공급해 주는 사람과 공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후에 영원을 보내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기적이었던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그들을 그저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려고 하는 사람과 항상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옳고 게으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옳지만 받으려 고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헌금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올바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여 그들이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bounty) 곧 전에 너희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그리하면 바로 그 일이 후한 선물(bounty)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고후 9:5)<sup>15</sup>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아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고  
후 9:1). 바울은 지금 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일에 인색  
하게 하지 말고 풍성하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  
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인색하게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이 거짓된 신에게 풍성하게 바친다면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 풍성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  
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  
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많은 거짓 목사들이 이 구절을 남용하지만 여기  
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 그대로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  
은 여기서는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  
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  
시느니라.”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  
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약성경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각자  
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정한 액수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  
일 수입의 10%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1%를 드리고자 한다면

<sup>15</sup>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서는 “후한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영어 King James Bible에서는  
“boun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주

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15%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얼마를 드려야 하느냐를 놓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마음 속으로 얼마를 드릴지 정하면 됩니다. 다만 성경은 얼마를 드리는지 정하는 것으로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입의 10%나 드리는 것은 너무 많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화를 내거나 불평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10%를 내든 1%를 내든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를 내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에게 선물을 주면서 돈이 많이 들었다고 아까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얼마의 돈을 써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돈을 사용하고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저주를 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중하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얼마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지는 전적으로 각자 개인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입증해 보이기를 원하실 뿐입니다.

“저마다(Every man)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이 구절은 현금을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Every man)이 현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는 금액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주님께 현금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Every man)”이 드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짜로 주신 구원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주님께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금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돈이 필요 없으실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것도 필요 없으십니다. 누군가의 돈도 필요 없고 그 누군가도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드러내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닌가요?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어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정해진 금액을 헌금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의 돈을 내라는 의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고 전혀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래야만 하는 의무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

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물질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나와 바나바만은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느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 떼를 먹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사람으로서 이것들을 말하느냐? 율법도 같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너는 곡식을 밟는 소의 입에 마개를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위해 염려하시느냐?”(고전 9:6-9)

이것은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지 않을 구절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동물보다 사람을 생각하시고 염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동물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동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시느냐?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나니 밭을 가는 자는 소망 중에 갈며 소망 중에 타작하는 자는 자기의 소망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일이냐? 다른 이들이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거든 하

물며 우리는 어떠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 속한 것들로 사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헌물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10-14절)

17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노라.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나?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 이로다.”(17-18절)

현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일 아무도 돈을 주지 않으면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사역을 하지 마십시오. 사역자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사업이 아닌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특정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을 위해 물질을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이러한 규범이 여러 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영적인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에게 물질로 공급해야 함에 대해 한 장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는 돈을 위해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역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 상관없이

그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일 뿐입니다. 사역자가 돈을 벌기 위해 사역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기 위해 헌신 하는데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돈을 사랑 하는 것이고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양방향으로 드러납니다. 사역자가 돈을 위해 사역한다면 그가 탐욕이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사역 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회중이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제사장과 신약성경의 사역자는 같지는 않지만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개인적으로 제사장이나 사역자를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는 그러한 짓을 하려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역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으로 경찰을 고용하거나 소방 관을 고용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나 군인을 고용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해 세금을 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를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에 그들도 항상 자신들이 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게 적다고 느끼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자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사역자에게서 개인적으로 얻는 게 없다고 느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진정한 사역자라면 그리스 도의 몸인 전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전체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 우리는 사역자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

사역자 여러분, 돈을 위해 사역하지 마십시오. 회중 여러분, 사역자에게 필요한 돈을 주십시오. 사역자의 책임은 영적인 것을 회중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고 회중의 책임은 사역자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단지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사역을 위해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자신의 취미나 입맛이나 만족을 위해서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아까워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랍스터를 먹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생활을 할 돈은 있으면서 선교사와 사역자를 지원할 돈은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취미와 입맛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선교사를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돈을 주기보다는 기도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자신의 취미와 입맛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는 돈을 주는 건 어떨까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돈은 모두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선교사를 위해서는 기도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전 16:1)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헌금을 해야 합니다. 얼마를 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every one of you)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의 첫날에 헌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의 첫날에 정기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every one of you)”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거듭난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

어온 모든 사람은 매주 첫째 날(일요일)에 모여서 헌금을 거두고 그것을 모아 야 합니다.

“내가 가면 너희가 너희의 편지로 인정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내가 그들 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너희의 너그러운 선물(liberality)을 가지고 가게 하 리라. 또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거든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3-4 절) 헌금은 자유롭게 드리는 것입니다.<sup>16</sup> 우리는 교리는 보수적으로 믿어야 하 지만 헌금은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3:23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 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6:23도 보겠습니다. “죄의 삯 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 명이니라.”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로마서 8:28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 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로마서 10:13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이제 로마서 15:26-27을 보겠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 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빛진 자들이니 만일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하였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도 좋아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 한 집을 마련해 두셨다는 말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

<sup>16</sup>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서는 “너그러운 선물”이라고 한 것을 영어 King James Bible에서는 “liber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역주



해 말씀하시는 것은 눈여겨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두 지불할 테니 생계를 위해 하던 일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다니던 직장은 그만두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필요한 돈은 모두 우리 교회에서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교회에게 먼저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저에게 제안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함게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 주리라. 너희가 쟁 때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눅 6:38)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친절함 마음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친절함 가운데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주면 억지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백 만개의 테이프와 도서와 성경을 세계 각지로 무료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값없이 나누어 주니 다른 사람들이 기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하나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을 드리십시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되 바른 동기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올바른 동기는 항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바른 동기로 바르게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동기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바른 동기로 드린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것은 바른 동기로 바르게 드린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네 빵을 물들 위에 던지라. 여러 날 뒤에 네가 그것을 찾으리라.”**(전 11:1) 이것은 음식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평양 한 가운데서 빵을 바다에 던집니다. 어떻게 여러 날 뒤에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사역을 위해 돈을 드립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면 우리가 사역을 위해 드린 모든 물질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면 태평양 한가운데서 던진 빵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뿌리 돈을 언젠가 모두 수확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일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주님의 기쁨과 복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마 6:21) 성경은 여러분의 재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질은 전혀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

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과 차와 여행과 취미와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거금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재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 너희여, 이 집이 궤폐하였거늘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렸을지라도 적게 거두며 먹을지라도 충분하지 아니하고 마실지라도 마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샅을 받는 자는 샅을 받아 구멍 난 자루에 넣느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되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어찌된 일이나? 내 집이 궤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달음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학 1:3-9)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을 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거짓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과 주님의 사역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만큼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판석에서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 주님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드릴 돈이 없다고 하면서 가구를 사는 데는 많은 돈을 쓴다면 우리는 그날에 주님께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의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사역을 위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수리하는 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수리하는 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내의 옷을 사는 데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씁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하면 가정을 위해 돈을 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 돈을 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든 게 다 나온 것은 아닙니다.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게 옳은지의 문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데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습니다. 장점은 이것입니다. 어머니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딸은 무엇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아들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을 신경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내는 금액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드리는 그 액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성경은 얼마를 드리라고 말

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 액수는 각자 마음속에 정하면 됩니다. 드리는 액수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 성막이 있던 시절에 어떤 사람들은 소를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양을 드렸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백 만원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를 헌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하려고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드리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람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니라.**”(창 14:18-20)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람은 의무감에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

를 드린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십일조를 드린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무감이 아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 요약

1.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인색하게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고후 9:5).
2. 주의할 것은 성경은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고후 9:6).
3.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고후 9:7). 신약성경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각자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한 액수대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헌금을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내라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Every man)이 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 고린도전서 9:6-18, 사역자는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돈을 위해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기 위해 헌신하는데 여러분이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탐욕이 가득한 것입니다.

5.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헌금을 해야 합니다(고전 16:1). 얼마를 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게 아니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헌금을 해야 합니다.

6.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주의 첫날에 헌금을 해야 합니다(고전 16:2).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의 첫날에 정기적으로 모여야 합니다.

7. 로마서 15:26-27, 누가복음 6:38, 갈라디아서 6:7, 전도서 11:1, 마태복음 6:21, 학개 1:3-9, 창세기 14:18-20 참고

8.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사용한 돈에 대해 주님께 설명해야 합니다.

#### 9. 헌금의 원칙 정리

- (1) 마음속에 정한 대로(고후 9:7)
- (2) 인색하지 않고 후하게(고후 9:6)
- (3)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고후 8:12)
- (4) 주님께서 복주신 대로(고전 16:2)
- (5) 주의 첫 날에(고전 16:2)
- (6) 사역자들을 위해서(고전 9:13-14, 딤후 6:17-18)
- (7) 약한 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행 20:35)



## 제17장 교회와 찬양

시편 100편을 보겠습니다.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시 110:1-2)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 찬 즐거움이 성대를 지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찬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풀밭의 양이로다.” 우리는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분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첫째 생명도 창조된 것이고 새로 받은 둘째 생명도 그분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생명과 둘째 생명 모두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설교자가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며 복음 전도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기쁘는지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약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엡 5:18-21) 제가 방금 읽은 구절들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sup>17</sup>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한 영에 의해 지배 받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마치 술 취한 자가 술에 의해 지배 받고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듯이 말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의 걸음 걸이나 말이나 행동 모두 알코올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술 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걸음과 행동과 모든 것이 성령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18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성경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자신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에게 말하곤 합니다.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할 때도 있고 그냥 속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논쟁이나 토론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 걷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일에 들은 설교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할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sup>17</sup> 영어 King James Bible에서는 에베소서 5:18-21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역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아버지가 될까, 어머니가 될까, 형제가 될까, 자매가 될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마음속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가수의 음악에 완전히 도취되어 가사에 마음이 완전히 녹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선율과 가사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수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진정한 찬양은 마음 속으로부터 우리 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찬양을 하는 자체를 즐기거나 청중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찬양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마 12:34)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말하고 전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20절에 있습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생의 일시적인 것들로 인해 성령 충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잃으면 주님께 찬양도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만일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쓴뿌리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제대로 된 찬양을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매맞고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주님께 대한 감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할만한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뭔가 엄청나게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psalm)”라는 말은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많은 고대 언어들에서 “시”

라는 단어는 무엇인가를 “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나 생각이 나 마음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드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통해 주님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닿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hymn)”의 의미는 좀 더 단순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이슬”과 같은 노래는 시(psalm)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좀 더 직접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왕관 다 가지고(면류관 가지고)” 같은 것이 찬송입니다.

“영적인 노래(spiritual song)”는 성경 구절에 곡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생활에 대한 것도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영적인 노래가 가득합니다. 모든 시편이 영적인 노래는 아닙니다. 어떤 시편은 찬송이고 어떤 시편은 영적인 노래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기록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골 3:12-16)

문맥을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바르게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 올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들과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께 바른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

에서 바르게 설수록 우리는 더욱 제대로 된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툼과 분열과 미움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제대로 된 찬양을 결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그리스도인의 음악과 세상의 음악을 구분 짓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가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음행을 조장하는 노래는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사람의 음악적 재능보다 그 사람의 마음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가’ 입니다.

어디선가 찬양이 들려오고 누가 찬양을 하는지 제가 모른다면 저는 그 찬양 자체를 감상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음행을 일삼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저는 그 찬양으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 할 때, 중요한 것은 음악적 재능보다 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찬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법과 음성으로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그것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노래하라(sing)”라는 말이 119번 나옵니다. 17번은 “주님께 노래하라(sing unto the Lord)”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30번은 “찬양을 노래하라(sing praises)”, 3번은 “시로 노래하라(sing psalm)”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50번은 어떻게 주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시편 51편에서는 “크게 노래하라(sing aloud)”고 합니다. 시편 67편에서는 “기쁘게 노래하라(sing for joy)”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서는 “기쁨으로 노래하라(sing with gladness)”고 합니다. 시편 147편에서는 “감사함으로 노래하라(sing with thanksgiving)”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해하면서 노래하라(sing with the understanding)”고 합니다. 성경은 7번에 걸쳐서 “크게 즐거운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sing with aloud and joyful noise)”고 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음악적 재능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보매, 보라, 왕이 입구에 있는 자기 기둥 옆에 섰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왕 옆에 섰으며 그 땅의 온 백성이 기뻐하여 나팔을 불고 또 노래하는 자들 곧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배운 자들은 악기로 연주하니라. 그때에 아달라가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대하 23:13)

성경에는 솔로도 나옵니다. “자기 아이들과 함께 직무를 수행한 자들은 이리하니라. 고탃 족속의 아들들 중에서 해만은 노래하는 자더라(Heman a singer).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스무엘의 아들이요,”(대상 6:33) 또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도 나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the chief singer)

에게 준 것이니라.”(합 3:19) 또 듀엣도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매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더니”(행 16:25) 이와 같이 성경에는 회중 전체가 부르는 노래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의 찬양이 나옵니다.<sup>18</sup>

성경에는 찬양에 대한 관련 구절이 271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에 반해 “선포”라는 말과 관련된 구절은 122번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보다 두 배 이상에 걸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따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spirit)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spirit)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고전 14:15) 여기서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영”은 모두 인간의 영(영어에서는 소문자 s로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회중 전체가 부르는 찬양이든 솔로나 듀엣으로 부르는 찬양이든 모두 그 가사를 이해하면서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가사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신앙 고백은 반드시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라고 하면서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양에 가사를 붙인 사람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붙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가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전혀 믿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으면서 단지 입술로 가사만 지껄이는 것은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sup>18</sup>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중에는 교회에서의 찬양은 항상 회중 전체가 부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그러한 주장이 비성경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주

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목회를 하게 될 형제들을 위해서 이제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멜로디나 박자에 대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저도 제 생각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좀 더 실제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었다고 입증된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걸 추천합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통적으로 부르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을 부르는 걸 추천합니다. 좋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양을 부름으로 성경의 교리를 배울 수 있으며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특별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찬양집이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똑같은 찬송을 담고 있는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보다 본질적인 것을 붙들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분란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위해 싸우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나 선호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위해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피아노나 키보드나 하는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고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솔로나 특별찬송과 관련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 그 사람



자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그의 음악적 재능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하는 사람의 음악적 재능보다 마음의 상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음악적 재능을 뽑내기 위해 찬양을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잔뜩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sup>19</sup> 성경에는 “음악(musick)”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음악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곳에서는 춤과 관련하여 나왔습니다(삼상 18:6). 신약성경에도 음악이 춤과 관련하여 나오며 문맥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눅 15:25). 다만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하지 춤을 추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춤을 좋지 않게 여긴다고 해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다만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음악으로 사울에게 붙은 악령을 쫓아냈지만(삼상 16:15-18, 23)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신약성경의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일이라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새로운 찬양은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새로운 노래(new song)”이라는 표현이 9번 나옵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것은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sup>19</sup> 이 부분을 포함한 다섯 문단은 저자의 The Lost Cause Series중 Chapter 5: What the Bible Says About Music의 내용을 역자가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역주

교회에서는 타악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모두 등장하며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시 150:4). 악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지 도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일종의 도구입니다.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죄를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특정한 악기를 금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멜로디나 박자나 템포에 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멜로디를 좋아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바른 것이라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가르치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계시록 15장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있는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계 15:1-3)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할 일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 요약

1.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갈지이다.”(시 110:1-2)
2.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엡 5:18-21)
3. 진정한 찬양은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4.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할만한 환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시(psalm)”라는 말은 성경에 10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는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hymn)”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노래(spiritual song)”은 성경 구절에 곡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생활에 대한 것도 “영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지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골 3:12-16 참고).
7. 성경에는 어떻게 노래해야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시 51, 67, 렘 31, 시 147, 고전 14 참고) 찬양을 배우고 연습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대하 23:13).
8.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spirit)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

하며 내가 영(spirit)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고전 14:15)

찬양은 반드시 이해하며 불러야 합니다.

9. 성경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멜로디나 박자에 대한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좋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찬양을 부름으로 성경의 교리를 배울 수 있으며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10.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 할 일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계 15:1-3).



## 제18장 교회와 간증

우리는 교회와 관련된 실행적인 교리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헌금과 찬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간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교훈이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이 세움을 받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이 그렇듯이 간증도 바른 방법대로 바른 때에 바른 장소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모두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문맥을 무시하면 전혀 엉뚱한 것도 교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씀도 있습니다(고전 7:1). 물론 이것은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마 27:5)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눅 10:37)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요 13:27)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한다면 비성경적인 이상한 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간증은 마음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한다면 잘못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찬양하는 사람의 재능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간증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간증하는 사람 자신을 높이거나 드러내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간증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이제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이 학문 없는 무식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으므로 이상히 여기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게 되고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므로 그것을 반박할 말을 전혀 하지 못하더라…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므로 그들이 백성으로 인해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그들을 더 위협하고 가게 하니 이는 이 병 고침의 기적이 나타난 사람이 마흔 살이 넘었기 때문이더라.”(행 4:1-3, 13-14, 21-22)

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고 병 고침의 기적을 행한 사람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니 그들이 그것을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23-24절)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회원들 중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중이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세움을 받았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계속해서 믿음 안에 굳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간증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주말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고 그것으로 인해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는 알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을 받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을 간증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령했는지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합니다. 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간증은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간증만이 우리의 마음에 복을 주며 도전을 주고 바르게 세워 줍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간증의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혼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44-45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시매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심히 놀라니”

베드로가 간증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더라.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네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행 11:1-4, 18)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교회의 인도자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아직 유아기를 거치는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교회의 회원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베드로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비판했고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간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랑을 하거나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혹은 자기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간증을 들은 교회는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한지 칭찬하지 않았습니 다. 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감탄하지도 않았습니 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 간증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에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비시디아를 두루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은 버가에서 선포하고 앓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을 향해 떠나니라. 이곳은 그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다.”(행 14:19-26)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27-28절)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에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해 주셨으며, 어떻게 사역을 인도해 주셨고 사역지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이야기하면 그것을 들은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27절에서 바울이 간증한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신 것을” 믿음의 문을 연 것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과 함께 일했을 뿐입니다. 이방인들을 구령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여서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하고 듣기 위함입니다.

요한삼서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형제들에게나 낯선 자들에게나 무엇을 행하든지 신실하게 행하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네 사랑을 증언

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그들의 여행을 후원하면 잘하리라. 그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나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요삼 5-7)

이것도 전형적인 성경적 간증 중 하나입니다. 만일 간증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바르다면 회중 앞에서 특정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는 선한 형제이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회중 앞에서 특정한 사람이나 가족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증언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을 본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은 어떤 가정을 본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 사역자들은 누가 바른 동기와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역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가 성경과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랑하거나 사람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마 25:21)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군가 일을 잘 하는 사람에게 잘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신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롬 13:7)고 하셨다면 존경을 받아 마땅한 자를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40년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큼 훌륭한 가정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성경대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인지 교회 앞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누가 바른 본인지 회중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바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위선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한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위선자가 아닌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시편 111편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내가 곧바른 자들의 집회와 회중 가운데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시 111:1) 여기에는 집회로 모인 회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을 찬양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간증을 통해 회중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도 보겠습니다.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와 주의 집의 뜰에서와, 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하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시 116:14, 18-19)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게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일을

해 주셨다면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회중 가운데 알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신 놀라운 일을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알리고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젊은 사역자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네다섯 명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면 향후 이삼 년간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네다섯 명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간증 시간을 갖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회중의 수가 이렇게 작을 경우 목사는 회중 개개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증 시간에도 누군가 이상한 간증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40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고 합시다.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면 개개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이상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간증을 한다고 하면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겠다고 해서 회중 앞에서 간증을 하게 했더니 그는 간증을 하는 중에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주셨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sup>20</sup> 만일 제가 목사로서 그 사람이 말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면 그는 회중 앞에서 창피를 당하게 되고 어쩌면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반대로 목사가 그 사람의 비성경적인 간증을 바로잡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 일부 성도들은 그 사람의 비성경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sup>20</sup>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방언”을 주셨다고 간증하거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누구와 결혼하라고 하셨다는 등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인 양 간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간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저에게 불 침례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간증을 라디오에서 종종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비록 성경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류의 간증을 바로잡지 않고 넘어가면 영적으로 어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간증한 사람의 오류에 동참해서 “불 침례”를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간증한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지적해 줍니다. “형제님, 지금 성경을 잘 모르셔서 잘못된 것을 구하고 계시는군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사람은 이미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불 침례를 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형제님에게 불 침례를 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고전 14:33-34)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만이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류는 파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다스리게 하셨고 여자는 남자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배울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을 배워서 자신과 가정을 바로 세우게 됩니다.

성경은 남자가 마귀에게 속은 게 아니라 여자가 속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더 악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속성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구원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일을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여자를 머리로 삼지 않으시고 남자를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자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카락이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딤후 2:9-10)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외모보다는 영적인 것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가 외모에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는 화장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삼십 분 동안 화장을 하면서 오분간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5장에서 삽비라가 아나니아보다 세시간이나 늦게 교회에 온 것은 화장을 하느라 그랬다고 합니다(행 5:1-11).<sup>21</sup>

계속해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sup>21</sup>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역주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한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 이라.”(11-14절)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게 하시기 위해 이러한 질서를 규정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리더십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십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리더십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를 망쳐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거나 남자가 우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 거기에 동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이 다 한쪽으로 몰려가도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옳고 언제나 최선입니다.

오늘날 모계중심 사회는 모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남미와 아프리카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하나님을 최종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성모 마리아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신 분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셨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매가 간증하는 게 옳은지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자매가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문맥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형제들은 제가 너무 멀리 나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자매가 간증은 할 수 있게 하되 가르치지는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실행하는 교회나 목사를 정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과 간증의 경계가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간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매가 간증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형제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중지시킨다면 회중 앞에서 자매에게 창피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잘못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그러나 모두가 대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나 배우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자기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므로 그가 얼굴을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진실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전하리라.”(고전 14:3, 24-25)

고린도전서 14장을 히브리서 4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짐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별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 4:12-13)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



씀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는 자들이 자신들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아무도 죄를 깨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찬양이나 간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설교자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덕을 세우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간증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회중 전체가 모인 가운데 할 수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증은 반드시 회중 전체를 앞에 두고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사람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해준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 큰 변화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의무감에서 오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해주신 일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려고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해 주신 일 중에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한 일을 다른 지체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대화가 이 세상의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해주신 위대한 일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 주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선한 일을 해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에는 하나

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일을 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요약

1. 간증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교훈이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이 세움을 받고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2. 간증은 우리가 모였을 때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간증의 좋은 예가 나옵니다(행 4:1-3, 13-14, 21-24).
3. 간증을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4. 사도행전 11장에는 간증의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행 11:1-4, 18). 주님께서는 당시에 간증을 통해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5. 사도행전 14장에도 간증의 예가 나옵니다(행 14:19-28) 간증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6. 간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요삼 5-7, 마 25:21, 롬 13:7).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7.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증하는 사람의 동기입니다. 간증은 찬양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시 111:1, 116:14, 18-19).

8. 간혹 잘못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  
는 잘못된 비성경적인 간증을 하는 사람을 바로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9. 교회 내에서 자매가 간증하는 문제에 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고전  
14:33-34, 딤후 2:9-14).
10.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  
습니다. 다만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를 이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1. 간증하는 사람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을 높일 때 성도들이 세움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됩니  
다(고전 14:3, 24-25, 히 4:12-13).



## 제19장 교회와 세상1: 전도

이번 시간에는 교회와 세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것입니다.<sup>22</sup>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교회가 지역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는 우리 교회의 복음 전도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교회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 감사 드립니다. 저는 제임스 닉스 형제가 여러분에게 사역에 동참하라고 강단에서 부탁하거나 구걸하거나 강요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매우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본연의 임무입니다. 교회는 그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특정 한 지역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전하는 메시지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구원받은 지 오래 되지 않은 새신자일 것입니다. 아니면 구원받은 지는 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sup>22</sup> 이 장은 제임스 닉스 형제가 강의한 게 아니라 부목사인 데이빗 브라운(David A. Brown) 형제가 강의한 것입니다.-역주

전해야 한다는 교리를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메시지를 듣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워서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유야 어쨌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삶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엡 1:12)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13-14절)

이 구절들은 우리에게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복음인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누군가로부터 전도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나 직장동료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구원받은 방법을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나서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믿고 구원받은 경우도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 믿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을 듣자마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 받았지만 모두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데 일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 가족이 기도를 해서 구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을 듣고 어느 순간 믿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 되었느니라.”**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봉인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봉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몸도 온전히 변화 받고 구속될 때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주시기 위해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봉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몸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저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 된 인간의 몸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로마서 7:18의 말씀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신 안에 거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구속의 날까지 저를 성령으로 봉인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저의 몸이 온전히 구원받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봉인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봉인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인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롬 10:13-15)

하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

도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복음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누구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지 않습니다. 천둥과 같은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시 세상에 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8에서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교회의 임무이자 책임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교회의 목적은, 첫째 교리를 가르치고, 둘째 하나님께 경배하고, 셋째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믿고 모인 회중들에게 복음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친구를 교회로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로 오라고 초청하시고 교회에게는 그들이 오면 구령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들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교회가 필요한 것은 복음보다는 성경을 배우는 일입니다. 목사가 설교단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복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복음은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임무는 교회에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세상으로 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이것은 주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경은 **“나가서...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집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뉘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고 서로 섬겨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떤 인도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믿는 자들은 그저 주저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 줘야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막 16:15)

킹제임스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의 변개된 성경들과는 다릅니다. 킹제임스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킹제임스성경에서 **“너희는(ye)”**이라고 하는 것은 단수가 아닌 복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킹제임스성경에서 2인칭 대명사 중 thou, thy, thee처럼 “t”로 시작하는 것은 단수형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ye, you, your처럼 “y”로 시작하는 것은 복수형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집사나 주일 학교 교사나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과 설교자와 사업가와 회사원과 교사와 가정주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목적 중 하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모든 교리를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교회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것

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한 죄만을 반대하고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술을 마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옥에 가고 술을 마셔도 지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다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우리가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 각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님으로 봉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믿는 사람들 모두가 같은 영적 몸 안으로 들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7:38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성령님 안으로 들어갔고 동시에 성령님을 받았습니 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풀려나매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다 전하니...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을 보시고 또 주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말하게 하시며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행 4:23, 29-31)

여기서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른 성도들 앞에서 간증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임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의 임무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지니라. 독실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옮겨 장사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하니라.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니라.”(행 8:1-4)

나가서 모든 곳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한 게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목사나 교회의 인도자들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5:17-21)

여러분이 ‘믿는 사람’ 이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18절에 의하면 그 사역은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선물들(은사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선물(은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

적 선물은 서로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영적 선물의 목적은 선물을 받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 선물의 목적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줄 때에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사역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어느 때든, 어디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의 일이고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사도 바울만큼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세 가지 것을 배우고 본보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빛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롬 1:14-16)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이 **“빛진 자”**라고 합니다. 15절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16절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빛진 자인데 갇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은 빛진 자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울은 그리스

인과 바바리인과 지혜 있는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에게 자신이 빛을 쬔다고 합니다. 금전적인 빛을 지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의무는 마치 빛진 자에게 빛을 갚아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우리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합니까?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갚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진리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빛진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빛을 떼어 먹는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택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딤후 2:3-6)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누군가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강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할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은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증언입니다.

이런 증언을 언제 해야 할까요? “**정해진 때(in due time)**”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26에서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에스겔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 망루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파수꾼의 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고를 해야 사람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고 목소리를 높여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진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엡 6:10-15)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형제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입니까?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갑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15은 이사야 52:7을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 3:15-16)

이 구절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대는 핑계 중에 하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만큼 성경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질문할 것이 걱정되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만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알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

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면 자신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결국 불 호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복음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복음이 단순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사가 될 필요도 없고 신학자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계속 주제에 머무르면 결국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눈먼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훔으로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에 매우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사람들이 물어본다고 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먼 자였지만 지금은 볼 수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증언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을 전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전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딤후 2:15).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벧전 3:15). 그러나 아직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닙

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욱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1에서는 “이것은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 비방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얹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 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떨치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 모든 수치를 참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따를 본이 나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

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벧전 2:21)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군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해야 할 같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들이 떨며 심히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매...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고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열한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았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박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막 16:8, 10, 13-14)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고 애곡하고 슬피 울던 자들이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15절) 두려워하고 애곡하고 슬피 울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함과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 요약

1. 한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특정한 지역에 있는 목적입니다.
2.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습니다(엡 1:12-14).
3.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4.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롬 10:13-15).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5. 교회의 목적은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막 16:15).
6.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나 교회의 인도자들만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가진 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행 1:8).
7.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행 4:23, 29-31, 8:1-4).
8.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켜야 합니다(고후 5:17-21).
9.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롬 1:14-16).
  - (1) 자신이 빛진 자라고 하고
  - (2)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 (3)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증언해야 합니다(딤후 2:3-6). 증언하는 것은 간증하는 것입니다.
11.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벧전 3:15-16).
12. 두려워하고 애곡하고 슬피 울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막 16:8, 10, 13-14). 주님께서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을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 제20장 교회와 세상2: 선교

오늘은 교회와 세상에 관한 둘째 시간입니다.<sup>23</sup> 교회는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전도를 해야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교회로 더해지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더해지고 지역 교회에 더해지게 됩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경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로서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관련을 맺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 주고 사신 그 소 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

<sup>23</sup> 이 장은 제임스 닉스 형제가 강의한 게 아니라 부목사인 데이빗 브라운(David A. Brown) 형제가 강의한 것입니다.-역주

**하게 하시느니라.”(엡 1:12-14)**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구속을 받고 우리를 하늘나라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이 세상에 남겨 두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습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구원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 겻세마네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 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요 17:14-15)**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남겨두시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믿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6-18절)

예수님께서서는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봉인되고 거룩하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19-20절)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교회의 지체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으며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 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21-2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신 목적, 자신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 결과는 모두 같은 것으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를 완전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로 연합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온 세상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였습

니다.

우리가 “대 사명(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는 명령이 성경에는 다섯 번에 걸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마 28:18-20)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눅 24:46-47)

사도행전 1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행 1:4)

사도행전 1장에 모인 무리는 최초의 신약 지역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4절),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6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최초의 “지역교회”에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최초의 지역교회였던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직접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교회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교회가 있는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는 자신이 위치한 지역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지역교회,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인의 책임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지역을 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역교회가 자신의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한다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지역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있는 지역교회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교회는 자신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역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계시록 4:11에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11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9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8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리를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향해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고 바라는 마음은 그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을 일으키시고 한 무리의 믿는 자들을 구별하셔서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매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과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 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기록된바,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의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행 15:13-17)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을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다시 히브리인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역시 남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셔서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고 같은 목적과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교회도 참담하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분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을 창세기 12장과 갈라디아서 3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창 12:1-3)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갈 3:8,14)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을 방문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데리고 나

오셨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출애굽기 9장과 여호수아기 2장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서서 그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내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곧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출 9:13,16) 마지막 부분을 눈 여겨 보십시오. 이것은 로마서 9:17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왜 파라오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집트에 있는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셨습니까? 물론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기 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라합이 히브리인들을 숨겨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

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수 2:8-11)

“우리가 들었노라” 라합과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라합의 반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세우시고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온 것은 자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전체가 라합이 들은 것과 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라합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두 참된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참된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파라오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라합처럼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신명기 4장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법규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것은 너희가 들어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라. 이것이 민족들의 눈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명철이니라. 그 민족들이 이 모든 법규를 듣고 이르기



를, 이 큰 민족은 참으로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신 4:5-7)

율법의 핵심적이 목적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또 다른 목적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들의 빛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유대인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이방인들의 목적에서 그것이 그들의 지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편 96편을 보겠습니다.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주께 노래할지어다.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그분의 영광을 이교도들 가운데, 그분의 이적들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만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시 96:1-3,10)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계시를 거부했습니다. 자연을 통해 주신 계시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통해 주신 계시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네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사

43:1,21)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공물을 얻었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 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로 인해 그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벧전 2:7,9-1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의 씨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고 의롭게 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이 온 세상에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이방인들에게 참된 하나님을 증언하고 빛이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봉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사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있는 대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세상과 분리하시고 특별한 명령과 율법과 말씀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빌 2:12) 성경은 “구원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유하고 있는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13-16절)

“구원을 일하여 드러낸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5절에 의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역시 1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무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거나 혹은 다른 먼 지역에 있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이사야서 45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의로운 가운데 말이 나갔은즉 그것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한 사람이 말하기를, 분명히 주 안에서 내가 의와 힘을 소유하였으니 사람들은 바로 그분께 나아갈지로다. 그분을 대적하여 노하는 자는 다 부끄러움을 당하되**”(사 45:20-24)

여러분이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의 민족이나 언어와 상관없이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의가 없으니 구원받을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굴복할 것이고 모든 혀가 맹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빌립보서 2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

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8-11)

빌립보서 2장은 이사야 45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말씀은 단순히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주라고 시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심판의 날(큰 흰 왕좌 심판)”에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사야서 45장을 인용하고 있지만 단순히 심판의 날에 대한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참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참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항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부르시거나 특별히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바로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다른 모든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하셨습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 요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이나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심판에 대한)을 전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시고 생명의 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의 이러한 태도에 매우 놀라고 맙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인 자신과 이러한 대화를 나누는 자체가 평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구약성경에서 금지한 음식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28을 보면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유대인이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줄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속되다고 하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 것을 내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구약성경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구약성경 어

다에서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않은 말씀을 법으로 만들어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실패한 이유입니다.

이제 교회가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가치관이 똑같이 때문에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후 5:14-15)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만심으로 인해 실패했고 교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모든 지역교회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교회가 자신이 위치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먼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0:13-15은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둘 중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와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값없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나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 다.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이 성경을 배웠습니 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회고 특권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편안함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오.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으로 가십시오.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단 한번도 성경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고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요약

1. 교회는 특정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다른 먼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리기 위함입니다(엡 1:12-14).
3. 우리가 완전해 지고 하나로 연합하는 이유도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요 17:14-23).
4. 성경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마 28:18-20, 막 16:15, 눅 24:46-47).
5.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가까운 지역과 먼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행 1:4,6,8).
6. 지역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만일 지역교회가 자신의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한다면 지역교회가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7. 하나님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행15:13-18, 창12:1-3, 갈3:8,14, 출9:13,16, 롬 9:17, 수2:8-11, 신4:5-7).
8.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시96:1-3,10, 사43:1,21, 뱀전2:7,9-12).
9.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빌 2:12)? 그것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0.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시인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언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사45:20-24, 빌2:8-11).

11.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참된 하나님을 시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2. 이스라엘은 자만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고후 5:14-15).

13.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먼 지역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롬 10:13-15).



## 제21장 교회와 구제

성경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번에 걸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일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온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개념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자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부자가 어떻게 해야 하며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으며 서로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인종이나 교육 정도나 소유한 재산의 정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류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러한 구분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나누신 적이 없고 오히려 그러한 구분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의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 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

였느냐? 하니”(요 12:1-5)

성경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유다의 말은 어느 정도 정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이므로 돈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6절)

성경에 의하면 2천년 전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주님을 위한 일(사역)”에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하는 것은 바른 일입니다. 다만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 두어라. 나를 장사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7-8절)

저는 예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거짓말을 못 하십니다(딤후 1:2). 만일 요한복음 12:8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미국과 유럽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충분한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미

국과 유럽 국가들이 아무리 많은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난 수십 년간 아프리카 사람들은 기아로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재정 지원을 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의식주 및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했던 돈을 복음전파를 위해 사용했더라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사역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 아무리 풍요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더 이상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식량지원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훌륭합니다. 교육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지 않은 채 음식이나 교육이나 의료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고통만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에게 물질을 지원하는 것보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항상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고픈 채로 죽느냐 배부른 채로 죽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채로 죽느냐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느냐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지옥에 있는 부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가 지났을 때 나사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대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과 거지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인 것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사로는 부자이지만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사는 대신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부자로 사는 것 중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고르겠습니까?” 의심의 여지없이 부자는 당연히 구원받았지만 거지로 사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가난이 최악은 아닙니다. 가난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최악입니다. 부유한 게 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게 최선입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것, 즉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가난한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풍요로운 산물을 내는 땅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원수로부터의 안전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적당한 때에 비와 햇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복이 아닙니까?

신명기 15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에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이 일로 인하여 주 네 하나님께서 네 모든 일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에서 네 형제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넓게 펼치니라.”(신

15:10-11)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들어가게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땅에서도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제 제가 할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어떤 정치인도 결코 하지 않을 말입니다. 어떤 보수주의 주석가도 하지 않을 말입니다. 아마 어떤 목사도 이런 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엄청난 반발을 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10만원을 주면 그것을 20만원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는 반면, 오히려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엄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고장 난 문짝을 고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을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손재주가 없는 편입니다. 저는 전기가 나가면 기술자를 부릅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수리하는 데 매우 서툴습니다. 저는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보다 성경이 훨씬 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건을 잘 고치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지적 능력을 주신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운동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유지하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소유한 정도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결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해서



모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술과 유흥에 소비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가난한 땅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재산 증식 능력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돈을 전혀 간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상의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존재하고 부유한 사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향해 증오로 가득 차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모두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닐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차를 세차할 것입니다.

스바냐 3장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격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습 3:8) 이것은 아마겟돈과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흠어진 자들의 딸이 이디오피아의 강들 건너편에서부터 내게 헌물을 가져오리라. 그 날에는 네가 네 모든 행위로 인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들로 내게 죄를 지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네 한가운데서 네 교만을 기뻐하는 자들을 제거할 터이므로 네가 다시는 내 거룩한 산으로 인해 저만하지 아니하리

라.”(9-11절) 이것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또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한가운데 남겨 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12절) 이들의 죄는 모두 용서받았고 의 가운데 거하며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으며 주님께 헌물을 드리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합니다. 천년왕국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는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도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적절하게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가난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머지않아 그러한 것을 영원히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개의 도시를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 어떤 국가는 머리 국가가 될 것이고 다른 국가는 그 아래에 있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모든 국가가 다 평등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있고 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한 별의 영광이 다른 별의 영광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들의 영광이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전 15:41)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서로 다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행 2:44-47)

이것은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자원해서 행한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원해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 어디서도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복음서나 서신서에서도 이러한 것을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단 한번만 있었던 일이며 이것을 교회의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부유한 지역교회가 가난한 지역교회를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모두 자원해서 행한 일입니다. 부유한 지역교회가 반드시 가난한 지역교회를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유한 지역교회와 가난한 지역교회가 존재했던 이유는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던 것은 초대 교회에서 일시적으로 했던 일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그러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온 마음과 생각

과 힘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지역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시작하는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후서를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항상 한 교회 내의 부유한 사람이 같은 교회나 다른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준 돈으로 술을 마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니라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입니다.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말거머리에게, 다오. 다오, 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잠 30:15)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을 잃든지 건강을 잃든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야 합니다.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하지 않음으로 가난하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요 목적은 구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놔두고 구제에만 힘을 쏟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데 시간을 쓰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 시간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돕는 기관이 아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바른 일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교회가 그 선교사를 도울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돌아다니며 자신을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데에만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정한 금액이 모이자 않자 선교지에 가지 않고 15년 동안 지역교회를 돌며 모금 활동만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집회에 금 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약 2:1-4)

만일 어떤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옆에 앉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재산 정도로 교회에서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망치는 죄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결국 부자들로부터 큰 액수의 헌금을 받아내어 건물을 올리고 그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이지 결코 사역이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네 밭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네 수확물의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 돌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레 23:22)

이 구절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일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수확한 이후에 떨어진 것을 다시 가서 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없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헌금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사람도 헌금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항상 같은 식으로 답변합니다. 저는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빛이 없을 때에도 헌금을 했는지 물으면 대부분은 헌금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빛도 많고 여기 저기 돈을 써야 할 곳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어하고 헌금을 하지 않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헌금할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휴대전화나 TV나 인터넷 등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도 돈을 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은 이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한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기 위해 저에게 질문을 하지는 마십시오.

마가복음 12장과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실 때에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는데”**(막 12:41)

저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들도 그것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지켜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드릴 수 있는지도 아시고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는 와서 이 렵돈 곧 일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42-44절)

예수님께서서는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를 다 헌금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아무리 가진 게 적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의 과부 여인에게 명령하여 너를 돌보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도시의 성문에 이를 때에, 보라, 한 과부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주우므로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의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 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두 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 만 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

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왕상 17:8-16)

저는 여러분이 얼마를 헌금해야 하는지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헌금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굶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번영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모두 주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친구약성경의 예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보인 본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가진 게 얼마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돈을 헌금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 드리는 원칙과 예를 알려드릴 뿐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일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둬나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의 십분의 일을 주님께 드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상을 드리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십일조든 헌금이든 의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기로 드려야 합니다.

재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면 반드시



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반드시 수입의 10% 이상을 미래를 위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집은 구매할 수도 있고 세를 살 수도 있습니다. 돈을 다 지불하고 구매할 수도 있고 용자를 얻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면 수리비와 세금과 같은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점입니다. 그러나 세를 살면 세금 등 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면 생기는 장점은 집값이 오르거나 세(우리의 경우 월세나 전세보증금)가 오르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관한 계획을 세우십시오. 언제나 젊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 게 믿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 돈을 사용하십시오. 없어도 되는 것을 위해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힘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 요약

1.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에 맡겨진 일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요 12:1-8).
3. 가난한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일보다 더 급한 것은 그들에게 복

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4. 가난이 최악은 아닙니다. 가난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최악입니다. 부유한 게 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게 최선입니다.

5. 약속의 땅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신 15:10-11).

6. 모든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고전 15:41).

7. 성경은 주님께서 통치하실 천년왕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슥 3:8-12).

8. 사도행전 2장에서 재산을 공유했던 것은 초대 교회에서 한 번만 실행되었던 것이며 강제적으로나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행 2:44-47).

9. 신약성경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니라 교회 내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교회의 주요 목적은 구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11.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레 23:22).

12. 헌금과 관련된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막 12:41-44, 왕상 17:8-16).



## 제22장 교회 내의 이단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즐겁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쳐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건 언제나 저에게 큰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즐거운 주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다 보면 인간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녹음한 음성 설교와 강의는 대략 6000시간 정도 됩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칼빈 주의나 은사주의와 같은 잘못된 교리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 한번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근본주의자들이나 침례교인들을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것을 그들이 실행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내에 있는 이단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heresy)”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단은 결코 거짓 교리를 믿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용어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단(heresy)”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단(heresy)”이란 무엇일까요?

디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단인 자(A man that is an heretick)는 한 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네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딤후 3:10-11)

일반적으로 이단을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 혹은 “거짓 교사”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가르친 교리 중에는 잘못된 것

도 있었지만 그는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천주교의 관점에서  
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heresy 혹은 heretick)”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단  
이란 전체의 모임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어 그들이 자신이나 혹은 자기가 선호  
하는 교리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마틴 루터는 “이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  
주교 내에 있으면서 천주교를 개혁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 천주교  
내부에서 천주교를 개혁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천주교회를 나오  
고 나서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몰몬교도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 있는 이단들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이단은 반드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이단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며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교회 내의 이단은 항상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힘은 연합(unity)에 있고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사랑  
과 교제에 있습니다. 이단은 이러한 것을 꺾어버림으로 교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해롭게 합니다. 교회 내에 이단이 작은 모임으로 형성되면 이런 식의 이야기  
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들의 눈에만 그 문제가 보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  
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을 때 디도서의 말씀처럼 한두 번 훈계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실수로 이런 일을 했다면 그는 훈계를 듣고 깨닫고 나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두 번 훈계한 후에도 계속 동일  
한 일을 한다면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

신들만이 바른 영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사람을 그대로 두면 결국 교회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사역이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내의 이단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어느 정도 그것을 믿노니”**(고전 11:18) 이것은 물론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분쟁이나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로 연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19절) 분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이 있습니다. 19절만을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 반드시 이단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내에 분쟁이 있는 곳에는(18절) 이단이 반드시 있다(19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열(분쟁)이 있는 곳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 즉 이단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적으로 교회의 인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단인 자를 바로 잡든지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분열을 하기 위해 교회로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를 높이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을 따르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미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갈 5:19-21)

갈라디아서 5장에서 열거하고 있는 육신의 행위들은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거나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지역교회를 망치는 사람은 상급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짓은 교회를 세워주는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단 파당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교회 내의 한편의 성도들이 다른 쪽의 성도들을 미워하게 하고 나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자신의 관심에 사람들이 동의하게 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 교회 내에 분열을 가져 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육신의 행위인 이단 파당일 뿐입니다.

교회 내의 이단은 반드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 파당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 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벧후 2:1-2)

우리는 왜 교회 내의 이단을 뿌리 뽑아야 합니까? 교회 내의 이단들은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위에 도전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려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나 인도자에 대해 불평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사장일지라도 항상 그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도 사람들은 불평하고 비난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러한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에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사들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집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구원받건 구원받지 않건 상관없이 육신 안에 있는 한 누구나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단적인 사람이 등장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자신은 영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들이 보인다고 하며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교회의 연합과 단결을 깨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 항상 비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비판 받는 게 싫으면 사역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인도자나 지도자는 비판을 받게 마련입니다. 비판 받는 게 싫으면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육신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이단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이러한 육신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

르치거나 실행하면 어떻게 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실행하는 데도 교회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실행하는 교회에 왜 다니고 있습니까? 만일 교회가 잘못된 것을 실행하거나 가르친다면 그 교회에서 나와서 바른 것을 실행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가면 됩니다. 만일 바른 것을 실행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면 그러한 교회를 세우면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세운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잘못을 지적한 후 자신을 따르는 사람 스무 명을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회의 잘못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한삼서를 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썼으나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요삼 9) 디오드레베가 행한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니다. 성경을 읽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으뜸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기 원했고 주목 받기 원했습니다.

요한삼서의 말씀을 골로새서 1장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골 1:18)

만일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임스 닉스의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한참 잘못 나간 것입니다. 만일 제가 나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저는 오히려 완전히 오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제임스 나스가 가르치는 것만 따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완전히 오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으뜸이 되게 한다면 완전히 오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목사나 그 누구도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나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목사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 실망합니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믿는 것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회에 있거나 혹은 사람들을 모아 데리고 나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 계속 교회에 남아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것은 이단 파당을 만드는 것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갔다고 해서 그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반갑

지 않습니다.

만일 거리에서 설교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거리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로 가십시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교회로 가십시오.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가르치고 실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따르는 서른 명을 모을 때까지 동의하는 척하지는 말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계속 우리 교회에 머무르는 것도 자유입니다. 새국제역본(NIV)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다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새국제역본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물론 새국제역본은 바른 성경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새국제역본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지만 않는다면 이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게 다 다릅니다. 자신이 믿는 모든 것이 다 바른 것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잘못된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따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가르치고 싶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주일 오전 성경공부를 인도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 그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형제는 계속해서 자신이 그 시간을 맡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 성경을 가르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형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뱃티스트 브라이드(Baptist Bride)”<sup>24</sup>일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저의 대적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과 싸우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비방하지도 않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보다 “침례교인”이라는 명칭을 더 강조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자신들의 교회가 침례교회이고 근본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자신들만 휴거 된다거나 아니면 자신들만 특별한 상급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러한 주장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명칭과 입장으로 인해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회가 침례교회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례교회도 종류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한 신학교를 나왔다는 데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특정한 교단에 속해 있거나 특정한 신학교를 나와야만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누는 일이며 이단 파당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신들만이 주님 앞에서 특별한 것처럼 주장한다면 그게 바로 이단 파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 침례교인과만 교제를 나누는

<sup>24</sup> 침례교인(뱃티스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브라이드)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역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침례교회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빌 2:10) 이 말씀을 사도행전 4:12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으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 4:12) 어떤 이름을 내세우고 싶다면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내세우기 바랍니다. 자신이 침례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기 바랍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그룹은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sup>25</sup>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누구보다 세대주의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으로 교회와 관련이 없으며 모두 유대인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구약성경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앞부분도 교회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바울서신만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극단적 세대주의 체계는 벌린저가 만들었고 스텐이 계승했습니다. 벌린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킹제임스성경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sup>25</sup> 대표적인 극단적 세대주의자로는 벌린저(Ethelbert W. Bullinger), 스텐(Cornelius, R. Stam), 오헤어(John C. O' Hair)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극단적 세대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역주

그의 <컴패니언 바이블(Companion Bible)>은 매 페이지에 네다섯 번에 걸쳐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성경을 믿으면서 동시에 벌린저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믿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벌린저나 스텐이나 오헤어가 가르친 교리 안에 머무르면서 그 얘기만을 합니다. 그들이 나누는 교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나눕니다. 그들은 항상 극단적 세대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파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세워서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자신들에게로 모은 다음 데리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밖에서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벌린저는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방인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그 허약한 사람에게 행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 하는 일로 우리가 이 날 심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 온 백성은 이것을 알라.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온전하게 여기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 4:8-12)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바로 교회의 기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한 몸의 신비에 대해 한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잇돌이 되시나니”(엡 2:19-20)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누가 교회의 모퉁잇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 하리라.”(마 16:18) 유대인의 교회가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개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만 있습니다. 두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한 몸 안에 있는 한 무리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친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무리는 바로 “침례교송배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

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1-7)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잭 하일스<sup>26</sup>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피터 러크만<sup>27</sup>에게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제임스 닉스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잭 하일스는 누구며 피터 러크만은 누구며 제임스 닉스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바울이나 잭 하일스나 피터 러크만이나 제임스 닉스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나라에는 잭 하일스로 인해서 복을 받고 세움을 받고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잭 하일스가 했던 대로 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사를 비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문제입니다. 목사나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잭 하일스가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잭

<sup>26</sup> 잭 하일스(Jack Frasure Hyles, 1926-2001), 인디애나 주 허몬드 시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인 제일침례교회의 담임목사였습니다. 그는 하일스 앤터슨 대학교의 공동 설립자였으며 그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로 유명했습니다.-역주

<sup>27</sup> 피터 러크만(Peter Sturges Ruckman, 1921-), 플로리다 주 펜사콜라 시에 있는 독립침례교회인 성경침례교회의 담임목사입니다. 그는 펜사콜라성경신학원의 설립자이며 킹제임스성경의 옹호자로 유명합니다.-역주

하일스 목사의 교회에 다니고 싶으면 인디애나로 이사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하늘나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잭 하일스 목사는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교리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저의 원수는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함께 거하는 주님의 지체요 형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그가 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회와 목사를 비판한다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이단 파당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렉크만 목사로부터 삼 년간 성경을 배우면 그가 세상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피터 렉크만이 가르치는 것을 똑같이 가르치지 않는다고 목사나 성경 교사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문제는 피터 렉크만 목사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그와 똑같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렉크만 목사는 자신이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교회에 가서도 렉크만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교회와 목사를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며 천주교인들이 교황을 따르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렉크만 목사가 한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피터 렉크만 목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대상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단 파당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피터 렉크만 목사와 똑같이 믿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은 렉크만 목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면 성경을 믿는 것이지 누가 믿는 것을 따라



믿는 게 성경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피터 렉크만 목사는 저의 원수가 아닙니다. 저는 그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를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의 사역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과 제가 믿고 전파하는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시대의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와 싸우지 않습니다.

피터 렉크만 목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와 똑같이 믿지 않는 교회나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렉크만 목사가 가르치는 것을 똑같이 가르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믿고 교회가 그것을 기념한다면 그 교회를 비판하면서 저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sup>28</sup> 그 교회가 실행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십시오. 제가 가르친 것을 이용해서 그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그 교회를 파괴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 그 교회에 분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와 실행에 여러분은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게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는 게 옳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교회를 분열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잘못되었다면 그 교회에서 나오면 그만일 뿐 그 교회를 분열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기념하지 않는 교회로 가든지 그것을 기념하지 않는 교회를 세우면 되지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를 분열시킬 필요도 없

<sup>28</sup> 저자는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킨 것인지에 대해 소책자를 썼습니다. 제목은 〈Santa Claus, The Great Counterfeit〉입니다. -역주

고 그럴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른 일을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나 교회나 목사를 비판함으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잘못되었거나 목사가 잘못되었다면 목사에게 말하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목사에게 말했는데도 그가 그것을 고치거나 바꾸지 않는다면 그곳을 떠나십시오. 그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어떤 목사가 제임스 나스처럼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목사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면 그 목사에게 말하십시오. 그가 고치지 않는다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제발 제가 가르치는 것을 근거로 그 교회를 분열시키지는 마십시오.

저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1)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비록 완전히 성경적인 교회는 아닐지라도)”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 교회의 복이 되는 것.
- (2)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 교회의 복이 되는 것.
- (3)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세우는 것.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는 사람들은 이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다고 해서 아무 교회도 가지 않는 것은 절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에 머무르면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역행하여 자신이 믿는 교리를 전파하는 것도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사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저를 한 번도 본적이 없는데도 저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된 의도로 저의 책을 사용해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분열시켰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제가 쓴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부분적으로만 본 다음 잘못된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는 제가 주장하지도 않은 것을 제가 주장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생각하며 저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망치는 또 다른 그룹은 이 세상의 것들을 교회로 가져오는 사람들입니다.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예배 안에 가져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가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는 이유가 교회가 지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 세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해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지루해할 것을 걱정해서 세상적인 것을 예배 안으로 들여온다면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영적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지만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교회의 타락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롬 12:2)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콘서트장이나 극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즐기기 위한 또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와 세상은 달라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교회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그것이 청소년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로 들여올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또 하나의 극장이나 콘서트장이나 사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비판하지 말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이 꼭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있는 교회로 가면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없다고 교회를 비판하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모아 파당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한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짓일 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단이 되지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단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이단이 되지 말고 복이 되기 바랍니다.

## 요약

1. 성경에 의하면 교회 내에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단 파당은 거짓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함으로 파당을 만드는 사람입니다(딤후 3:10-11).
2. 이단이란 전체의 모임에서 사람들을 끌어내어 그들이 자신이나 혹은 자기가 선호하는 교리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3. 교회를 망치는 것은 여호와와 증인들이나 물몬교도들이나 천주교인들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4.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고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짓고 사람들은 디도서의 말씀처럼 한두 번 훈계해야 하며 훈계한 후에도 계속 그러한 일을 하면 쫓아내야 합니다.
5. 성경은 분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단 파당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전 11:18-19).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적으로 교회의 인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단인 자를 바로 잡든지 쫓아내야 합니다.
6. 교회 내의 분쟁과 분열은 육신의 행위이며 자신과 교회를 망치는 행위입니다(갈 5:19-21).
7. 교회 내에 있는 이단 파당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벧후 2:1-2).
8. 교회 내에 이단적인 사람이 등장해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자신은 영적이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들이 보인다고 하며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나 교회의 연합과 단결을 깨는 것은 영적인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입니다.
9. 만일 교회가 잘못된 것을 실행하거나 가르치면 그 교회를 떠나서 바른 것

을 실행하고 가르치는 교회로 가야 합니다.

10.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음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1)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비록 완전히 성경적인 교회는 아닐지라도)”에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 교회의 복이 되는 것.
- (2)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함으로 그 교회의 복이 되는 것.
- (3) 스스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세우는 것.

11. 자신이 사는 지역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없다고 해서 아무 교회도 가지 않는 것은 절대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는 교회에 머무르면 서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역행하여 자신이 믿는 교리를 전파하는 것도 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 제23장 세 부류의 사람

성경은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눕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두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겉 사람과 속사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고후 4:16) 겉 사람은 아담의 자손으로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육신의 몸을 말합니다.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겉 사람은 점점 쇠약해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거듭난 게 엇그제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결국 더 이상 시간의 제약 받지 않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겉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과 질병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것은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이것은 새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 안에서 우리는 육신에 복종하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데도.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 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2-25)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성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성품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두 성품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갈등을 겪고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기 원합니다. 반면에 아담으로부터 태어나 구원받지 못한 육신은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그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두 성품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 쪽은 죄를 짓기 원하지 않고 다른 한 쪽은 죄를 즐기려고 합니다. 한 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 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다른 한 쪽은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싸움이며 전쟁입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앞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



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롬 7:15-21)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는 무엇이 바른 것인지 알고 있었고 그 바른 것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른 것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 세력이 나타나서 그를 막았습니다. 그 반대 세력은 마귀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할리우드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자는 바로 육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바로 여러분의 육신입니다. 이 원수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이 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거울에 보이는 그 자가 바로 원수입니다.

속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옛사람, 겉 사람, 육신은 육신에 속한 것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 3:8-9)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마귀로부터 나지 않았습니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일 뿐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 안에서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은 죄악의 씨를 가진 아담의 혈통을 따

른 육신일 뿐입니다. 그러나 영은 다릅니다. 육신인 옛 사람 안에는 썩지 않고 영원히 있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걸 사람과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두 사람은 결코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의 손을 들어줘야 합니다. 이 둘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 사람을 따라가면 육신을 기쁘게 할 것이고 새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월요일에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다가 화요일에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죄에 빠졌다가 수요일에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다가 목요일에는 다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결코 죽을 수 없고 옛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새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 준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지어 본 적이 없는 끔찍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결코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옛 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주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

장을 보겠습니다.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런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롬 8:21)

이것은 육신에 대한 말씀이며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사주의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지금 당장 육신의 몸을 고쳐주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에서 빠져 나오기 전에는 결코 육신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22-23절)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몸이 구원받고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놓임을 받는 것이라면 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음하겠습니까? 신음하는 이유는 몸이 아직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976년 12월 17일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앞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의 몸이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몸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종하여 죄를 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육신과 싸워야 하고 여러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만일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면

교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natural man)”이고, 둘째는 “육신적인 사람(carnal man)”이고, 셋째는 “영적인 사람(spiritual man)”입니다.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식별됩니다. 어떤 사람이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인지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과 죄악 된 본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were by nature)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 2:3)

에베소서 2:3에 의하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전적으로 육신의 욕망의 통제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삽니다. 자신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오로지 육신의 욕망만을 따라 삽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갑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을 통제하는 방법은 무력을 동원한 강제력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로는 전혀 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은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떠돌고 싶을 때 떠돌고 뛰고 싶을 때 뛩니다. 옆에 있는 다른 아이를 때리고 싶으면 때립니다. 아이들은 본성에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안에는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교사가 아이들을 통제하고 제어해야 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제한이 있다고 그것을 따르는 게 아니며 규칙이 있다고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경찰과 감옥과 법이

없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맙니다. 자연재해로 국가의 권력이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잃었을 때 혼돈과 약탈이 자행됐던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야만 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신약성경은 단순히 “무엇을 하라(let)”고 말씀하시는 반면 구약성경은 “반드시 할지니라(must)”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법을 주셔서 통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거듭나서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여기서는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그들은 항상 좋은 느낌을 찾아갑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는 웅장한 건물과 성상과 특정한 복식과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종교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백만장자가 된 것도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자극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독교 방송도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상하기 때

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고전 2:14)

어떤 사람이 자신은 창조론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면 이 세상의 뉴스 미디어는 그 사람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떠들어 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비과학적이며 어리석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보기 때문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는 성경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것은 큰 소득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사회나 도덕이나 정치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도덕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은 정치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들은 그것을 어리석게 여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이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한물간 기준을 아직도 믿냐고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의 진리가 그저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고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성경의 진리들이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제 좀 슬픈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변하는 것

은 영원한 종착점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각과 행동과 삶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달라지는 것은 죽어서 가는 목적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았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롬 8:5)**

여기서는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따르느냐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입니다.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6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설이 바로 7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7-8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거듭 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값없이 받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sup>29</sup>은 아예 교회에 다니지도 않습니다. 교회에는 다니지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을 즐겁게 해 주는 교회를 찾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만 그 정의는 단순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대형 교회를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 멋대로, 육신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늘어날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살게 하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 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느낌을 의지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도 자신의 느낌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지에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살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삽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sup>29</sup>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행 11:26). 따라서 원칙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표현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역주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갇난아  
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고전 3:1)

우리는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너  
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  
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고전 3:2) 하나님의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단단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  
림, 천년왕국, 휴거, 구약 성도들의 구원, 세대주의 등이 단단한 음식일까요?  
이러한 것을 알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일까요? 이것  
은 흥미 있는 주장일 수는 있지만 영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말씀의 젖을 먹는 사람은 성경의 일부에만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소화할 수 있고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자신이 순종하길 원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  
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건  
지 아니하느냐?”(3절)

지금 여기서는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닙  
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아  
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바  
로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나 하는 문제는 본  
질적으로 성경 지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는 필수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하지만 성경 지식만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

으킨다면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영적으로 어린 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없다면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과 다르면 조금도 참아주지 못하고 함께 지내지 못한다면 육신적인 사람이며 영적인 아기일 뿐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 하고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육신적인 사람이며 영적인 아기입니다.

성경의 어려운 교리들을 안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난해구절을 많이 알고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서는 세리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본성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육신적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사람하고만 잘 지낼 수 있다면 육신적인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지금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spirituality)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나 인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고 노는 게 즐거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있는 게 더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주목 받는 것을 시기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주고 자신의 눈에 가치가 있는 사람과만 교제를 나눕니다. 항상 자신들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자녀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보면 견디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형제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육신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자아 중심적이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옵니다. 자신은 너무 영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갈 6:7-8)

육신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를 넘어선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는 일이 한 달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하는 일이 십 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명칭해서도 아니고 지능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을 세우시는 분입니다.<sup>30</sup>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성막과 성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세웠고 십자가 구속을 통한 계획을 세우셨고 교회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자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은 분열됩니다. 여자가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가정은 붕괴됩니다. 사랑과 순종은 영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곳은 분열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분열되며 이것은 육신의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으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고후 10:3-5)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육신을 따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12에서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영적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지 육신적이거나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sup>30</sup> 성경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눅 7:30, 행 2:23, 4:28, 20:27, 엡 1:11, 히 6:17 참고)-역주

육신적인 사람들은 “낙태반대 운동”이나 “폭력추방 운동”은 하지만 직장 동료에게 어떻게 하면 거둬내고 구원받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켜 주고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자고 정치적인 운동을 하지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설교자들과 다투고 그들을 비난하지만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도 교회 일에 관심을 갖기는 하지만 오로지 교회가 자신의 뜻대로 돌아가고 자신이 교회에서 주목 받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테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공교육 제도가 우리의 원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유엔이나 나토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환경 파괴범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거나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육신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짓 종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만일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

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전 2:11-13,15)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다녀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저런 옷을 입어도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저 교회에 다녀도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영적인 사람은 모든 판단과 관계와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

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피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1-2)

여기서는 영적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믿으면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이는 장소를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치우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치워야 합니다. 내가 치우면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야만 영적인 사람인 게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지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치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망가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게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것은 단순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보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타락한 형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돕고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려고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낙담한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낙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함입니다. 갓난 아기는 스스로 기저귀를 갈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잘하지 못합니다. 성장한 사람이 갈아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만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염려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롬 8:6)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육신적으로 살면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려야 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평화롭게 지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 길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평화롭게 함께 걸으며 여행을 즐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줍니다. 기도는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부드러움과 선함으로 대해주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사람들을 온유와 절제로 대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이러한 마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을 대해도 여러분의 반응은 항상 영적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육신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전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본성에 속한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영적인 사람인지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본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도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주시기 원합니다.

## 요약

1.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겉 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고후 4:16, 갈 2:20).
2. 성경에 의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성품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두 성품이 서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롬 7:15-21, 22-25).
3.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옛사람, 겉 사람, 육신입니다.
4.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겉 사람과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속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요일 3:8-9).
5. 예수님을 믿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롬 8:21-22).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몸 안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6. 성경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성에 속한 사람(natural man)”이고, 둘째는 “육신적인 사람(carnal man)”이고, 셋째는 “영적인 사람(spiritual man)”입니다.
7. 성경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 2:3). 본성에 속한 사람은 감각과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유 19).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고전 2:14).
8. 구원받으면 자동으로 변하는 것은 영원한 종착점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롬 8:5-8). 육신적인 사람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고전 3:1-3). 육신적인 사람은 현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갈 6:7-8). 육신적인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고후 10:3-5, 엡 6:12).
9. 어떤 사람이 육신적이냐 영적이냐의 문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정한 영성(spirituality)은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이나 인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0.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고전 2:11-13,15). 영적인 사람은 모든 판단과 관계와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1.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사람입니다(갈 6:1-2). 영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별책부록 124면)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31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분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4년 3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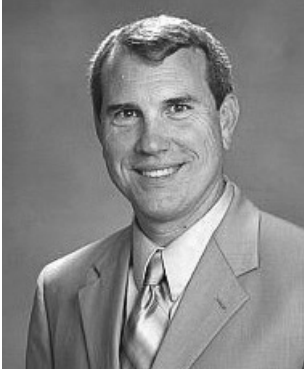
김 영 균 목사

##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http://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지은이 : James W. Knox**



제임스 낙스 형제는 1958년 2월 26일 루이지애나 배턴 루지에서 태어나 줄곧 플로리다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영어와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76년 12월 17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이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낙스 형제는 1987년 미국 플로리다의 덜랜드에 성경침례교회를 세운 목회자입니다. 그는 109개 나라에 성경공부 자료와 설교 테이프 자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세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988년부터 지금까지 백 30만 개의 자료들을 보급해 왔습니다. 낙스 형제는 테이프 사역과 문서사역을 통해 세계 곳곳의 지체들에게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도 그들에게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http://www.jameswknox.org>

**\* 옮긴이 : 이우진**

- \* 펜사콜라성경신학원
-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원
- \* 前 월간 강단의거성 편집장
- \* 前 펜사콜라성경신학원 강사
- \* 現 도서출판 진리의성경 편집장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강사